

청소년 전통 축제의 인식



축제 의미 토의
내 고장 축제는
그 맛을 느껴보아야

지난날 푸른 하늘아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가락이 온 들관에 울려 퍼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어 남녀노소(男女老少), 부귀빈천(富貴貧賤) 할 것 없이 며칠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음주가무와 신명의 잔치를 벌였다. 세상의 만물이 소생하고 결실을 맺음에 하늘님께 감사드리고 순연히 천신과 하나로 만남에 조화를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축제는 조선조에 들어와 위축 변질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쇠퇴의 과정을 밟아, 현재는 공연을 주축으로 여러 민속 및 부대행사를 펼치고 있으나 한국적 또는 지역적 전통의례가 제대로 신명나게 거행되지 못하거나 상징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잡다한 각종행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한국의 축제는 뿌려진 축제의식이나 개념없이 전통문화와 서양식 축제를 뒤섞어 놓은 혼란한 행사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원래 한국 향토축제의 원형은 한국 고대사회의 천제(天祭)에서 찾을 수 있고 천제에서는 인간이 무당의 중재로 신령과 만나는 체험이 강렬하고 그 신명이 도져하다. 여기서 그 만남과 화합의 범위는 하느님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환경까지 포괄되니, 이것은 고대로 한민족의 천지인(天地人) 합일(合一)사상으로 발전 계승되어 온 것이다. 풍물과 음주가무 속에서 천지인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천제 및 향토축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조화이다.

— 「향토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연구」중에서 —

활동 1 축제 의미 토의

활동개요

청소년의 전통 및 전통축제에 대한 관심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의 계승·발전이라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서구문화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전통축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축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전통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본 활동에서는 전통축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활동목표

토론을 통하여 축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눴으로써 축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축제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축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준비사항

축제 관련 자료, 칠판, 비디오

활동사항

- ① 대략 5~12명의 청소년 토의집단을 구성한다.
- ② 축제와 관련한 토의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한다.
 - ㉠ 전통축제에 깃들여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 ㉡ 전통축제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가?
 - ㉢ 전통축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전통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계승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 전통과 현대 축제는 화합할 수 있는가?
- ③ 토의에 앞서 모든 참가자 개개인 또는 조별로 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생각과 자료를 미리 조사해 오도록 한다. 자료조사는 논문 및 문헌, 축제전문가 면담, 영상매체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 ④ 축제 관련 비디오,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토의에 들어가기 앞서 상영한다.
- ⑤ 사회자의 진행아래 각자 조사해 온 내용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 ⑥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자유롭게 전개한다.
- ⑦ 토론된 내용들을 종합하고 참가자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⑧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도록 한다.

유의사항

- ① 참가자는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참가자들은 반드시 축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토의에 참여해야 한다.
- ③ 사회자는 발표 및 토론 시간을 엄수하게 하며 지나친 논쟁이나 주제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무리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1. 축제의 어원

축제는 주로 영어 개념의 feast, festival, carnival으로 표기되는데, fasting이 거론되기도 한다. festival이 축제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고 흔히 feast와 같은 뜻으로 함께 사용된다. feast는 우리의 잔치에 가까우며, fasting은 feast와 매우 상대되는 개념으로 원래 단식을 뜻하는데, feast 곧 잔치행사의 준비과정으로서 일종의 정화(淨化)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carnival은 본래 라틴어 caro(고기)와 levar(제거)에서 유래하고 그것이 뒤에 합성되어 carne vale로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사육제로 번역되어 유럽 제국에서 대개 술과 육식을 끊고 수도하는 사순절 직전 전야에 거행되는 기독교적 축제를 말한다.

2. 축제의 개념

축제는 농업·종교·사회·문화의 어떤 사건이나 절기를 기념하여 그것을 의례적으로 축하하는 어느 날이나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종교적 내지 의례적인 연원을 갖는다. 따라서 특별한 의례와 관련하여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성스러운 식사가 포함된다. 이것이 점차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제에는 연극적 무용·체육행사·주정부리기·카니발 등이 곁들여졌다.

또한 축제는 성스러운 시간과 계절 변화의 시간이라는 두 특징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일상의 시간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축제는 특별한 시간이다. 엘리아드(M. Eliade)는 이러한 축제 기간을 성스러운 시간으로 이해하여 축제 시간은 인간의 종교·사회·문화 등의 제도와 활동이 확립되는 초월적 내지 초자연적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 축제에는 인간의 기원·주체성·문명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여러 사건들이 의례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축제 참가자들은 거기서 성스러운 시간을 체험하고 스스로를 그것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스러운 시간은 일상의 시간을 가능케한다고 보았다. 결국 축제는 신화적 사건의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이다.

3. 한국 축제의 유래

한국축제는 고대사회의 하늘굿을 원형으로 한다. 천손(天孫)이라는 인식을 갖고 봄가을로 계절적 소생과 결실을 하느님에게 감사드리기 위하여 온 나라가 크게 모여서는 하늘굿을 올리고 며칠씩이나 밤낮으로 쉬임없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음주가무와 신명의 찬치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러한 축제의 전통은 삼국시대의 화랑도 내지 풍류도와 고려시대의 연등회·팔관회로 이어졌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운 이 왕조는 전통신앙인 무(巫)를 천대·억압하여 금무(禁巫)의 법령과 함께 전래의 마을축제인 마을굿이 대부분 유례화(儒禮化)되어 하늘굿의 전통이 끊어졌다. 오늘날 각 지역의 마을굿 대부분이 유교식으로 치루어지게 된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일제 이후 축제는 엄중한 탄압과 천대 아래 또 다시 쇠약·변질되었으며, 일제가 한국축제를 말살하여 한민족의 기운과 기개를 완전히 꺾어버리려 시도하다 실패하자, 그것을 세속화된 서양식 축제로 변질시켰다.

해방 이후 그대로 계승되어 대부분 축제의 정신과 본질을 망각한 연례적 행사로 치루어져 오게 되었다.

* 자료 : 조흥운 외, 1994.

활동 2 내 고향 축제는

활동개요

축제는 시기적으로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인 축제와 시군단위, 마을단위, 학교단위 등 그 규모가 다양하다. 또한 청소년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참가하는 축제의 형태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축제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축제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고 그 시기는 언제이며, 주체, 참가자 등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등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활동목표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학교,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및 그 내용(주체, 시기, 참가자, 유래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지역 축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와 동시에 탐구심을 함양한다.

준비사항

축제 조사표, 축제 관련 자료(민속자료, 지역 간행물, 학술논문)

활동방법

- ① 토의 과정(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지역 축제 정보의 출처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 ② 축제 관련 정보자료를 통해서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어떠한 축제가 있는지 찾아본다.
- ③ 축제 진행 기관의 선정, 조사 시기, 조사 내용 등 축제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④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축제 조사표를 작성한다.
- ⑤ 조사대상 학교, 청소년단체, 지역사회의 축제 관련 담당자를 방문·면접한다.
- ⑥ 기관조사후 축제 관련 자료를 참고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유의사항

- 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고 모두에게 차례로 기회를 주며 이를 정확히 기재한후 축제 조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 ② 조사기관 방문시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하여 용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만남의 약속을 하며 시간을 정확히 엄수해야 한다.
- ③ 한번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면담자가 부적절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2의 면담자를 모색해야 한다.

참고사항

1. 축제 조사표(예)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자	
축 제 명					
축제주체					
축제시기					
참가인원					
축제내용					
기타사항					

2.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요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적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두뇌를 쓰도록 하는 집단사고의 한 방법이다. 브레인 본래 두뇌를, 스톼은 폭풍(우), 걱정, 급습, 소동 등을 의미하는 데서 출발하여, 브레인스토밍은 돌발적인 정신착란, 영감,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 엉뚱한 생각 등을 의미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창조적인 집단사고(creative group thinking)에 있어서 절대적인 긍정적 토대 아래(on a strictly positive basis), 마음에 푸른 신호를 주는 과정(the process of 'giving the mind the green light')으로 묘사되고 있다.

1) 브레인스토밍의 성격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역동적 성격(dynamic characteristics)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완전히 비형식적(informal)이다.
- ② 보통의 제약(restrictions) 또는 금지(inhibitions)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의 토의를 가능하게 한다.
- ③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닌 대안들(alternatives)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집단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자극(interstimulation)과 창조성 신장을 위한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⑤ 안정, 해방된 분위기 속에서 마음놓고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집단의 사기(group morale)와 단결심(esprit de corps)을 높일 수 있다.

2) 브레인스토밍의 이용

브레인스토밍법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으며, 회의라 부르나 사실은 명령, 지시사항의 하달에 그쳐온 많은 회의의 기회에 이용되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법이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 ① 창의성과 집단구성원 상호 자극을 최대한으로 허용하고자 할 경우

- ② 종래의 인습적인 목표, 방법, 활동 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할 경우
- ③ 모든 행동의 과정·결과에 대한 고찰·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자 할 경우
- ④ 어떤 문제의 어느 측면도 간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할 경우
- ⑤ 현존하는 집단의 주요방침, 정책 등을 전환시키고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견을 수렴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 ⑥ 매우 훌륭할 수 있는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찾고자 할 경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3) 브레인스토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

브레인스토밍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집단이 비교적 성숙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경우
- ② 완전한 의사발표의 자유가 용납될 수 있는 환경
- ③ 특정의 역할·지위의 양상이 최소화되어 있어 누구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보다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 ④ 집단구성원들이 자원, 전통, 논리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습적인 기대감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융통성이 충분한 분위기
- ⑤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집단의 크기 또는 참여자의 수는 5~50명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으나 10~15일 이내인 쪽이 더욱 효과적이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소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
- ⑥ 당장 실천에 옮겨져야 할 절박한 문제보다는 여유있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 ⑦ 참여자들을 선정하거나 소집단으로 나눌 경우 비슷한 계급, 연령의 집단으로 하는 것이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 브레인스토밍의 운영·진행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요약된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회원 또는 참가자 전원

- ① 브레인스토밍에 부하게 되는 문제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해결책이어야 한다.
- ② 참가자 또는 회원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낼 문제의 영역, 그리고 목표, 수단, 활동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③ 토의에 소요될 시간을 결정하되 한 주제에 대하여 40~6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 ④ 회의장소 준비는 모두가 안락한 분위기에서 주저함이 없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⑤ 회원 모두가 타인이낸 아이디어에 대하여 비평을 하지 않는다.
- ⑥ 자유분방하고 거친 아이디어라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무언 중에 격려할 수 있어야 하며 양은 질을 낳는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 ⑦ 인습적인 회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간과 기회를 균형있게 나눠 쓰도록 하되 한번에 한 아이디어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 ⑧ 장난·농담 등으로 인기를 집중시키거나, 발언의 기회를 소수가 독점하려 하거나 또는 침묵을 연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 ⑨ 타인의 아이디어를 주의깊게 경청하고 중복을 피하되 타인의 아이디어에 편승하여 결합과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환영한다.
- ⑩ 적극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여 발언하고 경청하되, 흥분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도자

- ① 브레인스토밍할 문제 또는 주제를 명확히 하여 회원 참여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서기를 1~2명 선출 임명하되 제출되는 아이디어들을 요약

기록하는 한편 분류·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브레인스토밍에서의 주요 준수사항을 환기시키고 회원들이 이를 준수 하도록 한다. 특히 현실적인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창조적이고 거친 아이디어도 환영되며, 토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도전받거나 비평되지 않으며, 타인의 이해를 위한 추가 설명 정도만이 가능 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 ④ 전체 토의시간 및 몇 사람이 독점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규정, 예를 들면 1인 1회 3분이내 등을 주지시키고 지켜가도록 한다.
- ⑤ 두 사람 이상이 한꺼번에 말하고자 할 때의 우선권을 합리적으로 주지시키고 주저하거나 소극적 참여자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⑥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한다.
- ⑦ 브레인스토밍은 주제와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50분 정도의 시간이 좋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처음의 5~10분간은 아이디어의 제시가 느리다가, 다음의 10~15분간은 상당히 빨라지며 그 후로는 다시 느려지기 시작한다. 회장 또는 지도자는 언제 브레인스토밍을 마감할 것인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⑧ 브레인스토밍의 최종단계는 행동화할 수 있거나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선택될 때까지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서기와 회원들의 협력을 얻어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 : 사회교육연구회(편), 1988.

활동 3 그 맛을 느껴보아요

활동개요

전통축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이나 매스컴만을 통하는 간접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하는 데 그 원인이 많다. 축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축제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이미지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합당하게 본 활동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 축제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목표

학교,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등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관하거나 일부 가능한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축제 체험을 경험하며 이를 통하여 전통축제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축제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준비사항

비디오, 축제 관련 정보

활동방법

- ① 축제가 시작되는 시기, 장소, 내용 등 축제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 ② 참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영화, 비디오 등을 상영한다.
- ③ 축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솔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관람한다.
- ④ 프로그램 참관후 축제에 대한 감상을 글로 작성한다.

유의사항

- ① 축제 진행 기관과 사전에 협조가 가능하면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협조하에 참관한다.
- ② 지나친 통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흥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 데 주안점을 둔다.
- ③ 감상문은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이나 문제점, 바라는 점 등을 솔직하게 기술한다.

참고사항

〈지역별 축제 편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1월	우리민속 한마당 전통 민속놀이 마당		
2월		달맞이축제	
3월	명동축제 양천향교 석전제		두류축제 대덕제
4월	도심속의 작은 축제 신춘제, 거리문화축제 선잠제, 관악산제	풍어제	
5월	대학로 가로예술 축제 신춘문화축제 압구정 문화축제	부산청소년예술제 전통예술경연 부산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 용두산문화축제 자성대축제, 구민백일장 금단곶보제 전통민속예술공연	날피축제 동성로축제
6월	사직대제 재현 마포나루굿		
7월		용왕제	
8월	세계한민족축전 민속공물전	광복길놀이 부산바다예술제	세계한민족 축전
9월	명동축제 양천향교 석전제 강서문화 축제 한성백제문화제		
10월	장충단문화제 도심속의 작은 축제 관훈 인사동 전통문화행사 대학로 가을축제 아현분 산대놀이 시연 우리 국악 한마당 남이장군 대재 양천문화축제 한우물축제 낙성대 인현제 마들문화제 용마돌산공원축제 아차산 둔출축제 향토문화축제	문화의 거리축제 자갈치 수산물축제 농악경연봉수대재, 풍년제 광복로축제 한글시백일장 구봉산 봉수대 고유제 낙동민속제 장산인모임 큰놀이마당	달구벌축제 팔공문화제
11월	국악의 거리축제 우리옷한마당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1월				
2월	정월대보름 맞이구민한 마당잔치			길과재줄다리기시연(수원시) 차관동신제 및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평택시) 대보름민 속놀이한마당(수원시) 정월대보름 민속놀 이(의정부시) 원소절행사(파천시) 원부리 얼 담교놀이(여주군) 전통민속놀이대회(여주군)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연천군)
3월	경축문화행 사			행주대첩 제전행사(고양시)
4월	남동계 경 축행사		신관진봄꽃 제	국악의 향연(광명시) 덕동에술제(평택시) 안성종합예술제 양주소놀이굿 정기공연 복 사골예술제(부천시)
5월	제물포예술 제	광주무용제		효의 성곽순례(수원시) 성남청소년종합예 술제 물왕예술제(시흥시) 청소년용재(안양 시) 전통관례식(의정부시) 도자기축제(여 주군) 가평군 민요경창대회 대은문화예술 제(남양주군) 양주 별산대놀이 산채아가씨 선발대회(양평군) 반월문화제(포천군) 행 주문화제(고양) 단오절국악경창(동두천 시)
6월	제물포예술 제	장승문화제		단오제(안양시) 풍물놀이 경연대회(안산 시) 단오맞이 민속놀이(안산시) 어린이 풍 물놀이 경연대회(안산시) 병남단오행사(평 택시) 단오 민속놀이 경연(송탄시)
8월		국악경연대 회	세계한민족 축전	우리가락 한마당큰잔치(구리)
9월			유성온천문 화제 한밭문화제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국악합주경연(광 주군) 사물놀이 및 농악놀이경연(광주군) 매울문화제(화성군) 설봉문화제(이천군) 서라벌문화제(평택시) 금피문화제(김포 군) 백운문화제(양평군)
10월	월미축제	광산고싸움 놀이 전통문화예 술한마당큰 잔치	민속놀이경 연대회	경기종합예술제 경기국악제 만안문화제(안 양시) 경기도예술제(안양시) 안양1번지거 리축제(안양시) 화릉문화제(의정부시) 산 성문화제(성남시) 화홍문화제(수원시) 송 탄국악대공연 별망성 예술제(안산시) 먹골 배아가씨선발대회(구리시) 구름산예술제 (광명시) 소요문화제(동두천시) 연성문화 제(시흥시) 농악경연대회(여주군) 만요경 창대회(여주군) 태백제 백성문화제(안성 군) 안성국악제 터전(안성군) 율곡문화제 (파주군) 가평 잣아가씨선발대회 머섯아가 씨선발대회(포천군) 양주문화제 다산문화 제(남양주군) 풍물경연대회(부천시)
11월		광주국악대 전 무등축전		젓머리성황제(안산시)
12월		충정로축제		국악한마당(양평군)

	경 상 남 북 도	제 주 도
2월	교동농악대지신밟기(영천시) 대보름 민속놀이(안동시) 두레골 성황제(영주시) 동제, 수점제(구미시) 천황제 및 지신밟기(경산시) 경산시 민속놀이 경연대회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대회(영주시) 영천민속축제 농악놀이행사(문경시) 전국 연날리기 대회(경산시) 예천군 민속놀이대회 민속놀이경연(영덕군) 31민족문화제 대동제(마산시)	주민화합민속축제(북제주군)
3월	전국민속 투우대회(청도군) 달기 약수 영천제(청송군)	제주 칠머리 당굿(제주시) 제주 향교 석전제(제주시) 공부자란강 춘기 석전대제(남제주군)
4월	복사꽃 큰잔치(영덕군) 전가지 용왕제(구미시) 축령 장승제(영주시) 가락문화제(김해시) 배꽃축제(울산시) 외병 제전(의령군) 진해 군항제 고향의 봄 축제	제주 유채꽃 큰잔치(제주시) 삼성사대제(제주시) 주민화합 민속축제(북제주군) 용수리 절부암제(한경면)
5월	수달래제(청송군)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밀양시) 아랑제(밀양시) 가고파 큰잔치(마산시) 옥포 대첩제(거제시)	가래현 문화제(서귀포시) 주민화합민속축제(한경면) 수월제(한경면) 항목전(한경면) 주민화합 민속축제(조천읍)
6월	한장군 놀이(경산시) 평해담 대천 단오제(울진군) 민속경연대회(청송군) 처용문화제 안동청소년예술제 축제백일장(영주시)	
8월	한시백일장(영천시)	
9월	대보름 지신밟기 및 한가위 풍물공연(여천군) 우륵추모제(고성군, 군위군) 탈춤(칠곡군) 근위문화제 도사진 대전	제주향교 석전제
10월	동해별신굿(포항시) 전국 시조경창대회(포항시) 연오랑세오녀선발(포항시) 경북농악경연대회(포항시) 무용제(포항시) 시벌향전(경주시) 영호남 전통문화교류 안동 차전놀이 전국 국악대제전(경주시) 너와너새 일귀놀이(울릉군) 상주문화제 소백예술제(영주시) 영강문화제 소백문화제(영주시) 성주문화제 영양문화제 성류문화제(울진군 대가야문화 예술제(고령군) 민속원놀이(영양군) 예천문화제 청량문화제(봉화군) 청송문화제 안동민속축제 하회별신굿탈놀이 김천문화제 주호축제(문경시) 구미 예술제 화천문화제 지리산 평화제 대야문화제(합천군) 수양제(사천군) 소가양문화제(고성군) 비사벌 문화예술제(창원시) 울산예술제 창원예술제 한려문화제(삼천포시) 독로문화제(거제시) 삼랑문화제(양산군) 한산대첩제(통영시)	한라문화제 삼성사대제(제주시) 전통민속마을 재현행사(남제주군)
11월	개천예술제 진영단감제 통영예술제	남주축전 영천축제
12월		삼성사대제 삼성축전 양지천축제 주민화합민속축제

	강 원 도	충 청 남 북 도	전 라 남 북 도
4월	영월 단종문화제	가림성충혼제(부여군) 온양 이산문화제 매현문화제 도원문화제(연기군)	군서 벚꽃놀이 왕인박사 춘향대제 개나리꽃 축제(영암군) 진도 영동축제
5월		소백산 철쭉제(단양군) 속리 축전(보은군) 지용제(옥천군) 저산문화제(서천군)	춘향제(남원시) 동백연(고창군) 낙안민속축제(순천시) 진남제(여수시) 전국시조 경창대회(장흥군) 다향제
6월	강릉단오제 죽서문화제(삼척시) 현산문화제(영양군)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전주시) 풍남제(전주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전주시) 법성단오제(영광군)
8월			세계한민족축전(전주)
9월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소양제(춘천시) 수성문화제(고성군) 함강문화제(인제군)	청원문화제 입장 거봉포도 축제 금산인삼제 상록문화제(당진군) 칠갑문화제(청양군) 만세보령제(보령군) 늘미향토제	덕유산가씨선발대회(무주군) 사선문화제(임실군) 해남강강술래 향토축제 남도문화제
10월	강원종합예술제 치악예술제 강릉 무천제 영동종합예술제 대현 이울곡선생제(강릉) 소금강 청학제(강릉시) 의암문화제(춘천시) 무릉제(동해시) 두타문화제(삼척시) 설악제(속초시) 한서문화제(홍천군) 태백예술제 정선아리랑제 태봉문화제(횡성군) 노성대축제(평창군) 용화축전(화천군) 홍천예술문화제(화천군)	청풍문화제(제천시) 피산문화제(괴산군) 상산축전(진천군) 충북예술제 강서농자들이 삼거리문화제(천안시) 서라예술제(아산시) 백제문화제(공주시)	군산예술제 진포대첩제 오성대제(군산시) 이리 예술제 정읍사 문화제(정주시) 남원예술제 의암주 논개제전(장수군) 흥부제(남원군) 모양성제(고창군) 마이산신제(진안군) 마한제(익산군) 국제도서 민속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 팔마고수대회(순천시) 남도음식대축제(순천시) 여천 여수예술제, 팔미문화제(순천시), 망마제, 적벽문화제, 농악경연대회, 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
11월			전국어린이관소리대회

* 자료 : 한국관광공사, 1995.

청소년 전통 축제의 준비



목표 정하기
백지장도 맞들어야
계획은 처지에 맞게

애들아 우리는
 백두산 산바람을 마시고 사는 애들아
 대동강 강물에 먹감는 애들아
 이 곳 산바람을 아니?
 낙동강 물빛깔을 알고 있니?
 니네들도 모두 보고 있겠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보름달 두둥실 보고 있겠지
 애들아 애들아
 우리는 어른들을 닮지 말자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한라산
 우리들의 산에 나무가 자라듯
 푸르게 나무들이 자라듯이
 우리는 한빛깔
 높지도 낮지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아이들
 어른들은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어른들은 높은 자리가 좋다고 하지만
 애들아, 우리는 어른들을 닮지 말자

어른들은 빛깔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단군 할아버지의 손자들
 백두산 산바람 밑에도
 귀순이란 애가 살고 있겠지
 깡돌이란 애가 살고 있겠지
 태백산 산바람 밑에도
 혜순이란 애가 살고 있겠지
 도식이란 애가 살고 있겠지
 모두 눈이 새까만 애들
 모두 입술이 빨간 애들

설날이 오면 널을 뛰고 연을 날리고
 썰매 타고 제기 타고
 여름엔 미역 감고 씨름도 하고
 보리밥 먹고 팔뚝이 굵고
 고추장에 김치 먹고 야무진 애들
 보리싹처럼 싱싱하고 인정 많은 아이들
 우리는 어른들을 닮지 말자

해는 천만 년을 지나도 해이듯이
 달은 반만년을 지나도 달이듯이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같은 손자들
 애들아
 우리는 어른들을 닮지 말자

— 고등학교 신문 창간시(작자 미상) —

활동 4 목표 정하기

활동개요

청소년축제는 반드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따라서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제의 구성이나 내용도 각기 달라지게 된다.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축제를 진행하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쉬우며 축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어렵게 된다. 또한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최측과 사회적 요구 등도 반영하여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청소년 축제의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중요하다. 본 활동에서는 이상과 같은 축제의 목표를 정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한다.

활동목표

축제의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축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게 하며 또한 축제의 전체 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준비사항

축제 질문지

활동방법

- ① 준비된 질문지를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어 축제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축제의 의미, 축제의 참여도, 축제의 만족도, 축제의 문제점, 축제의 개선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② 조사된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기존 축제의 문제점과 해결 대안 등을 파악한다
- ③ 분석된 청소년들의 요구와 추측, 기타 주변의 요구를 토대로 토론을 실시하여 축제의 방향을 설정한다.
- ④ 축제의 방향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한다.

유의사항

- ① 청소년들의 축제에 대한 요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조사나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의뢰하도록 한다.
- ③ 목표의 진술은 구체적인 용어로 진술하여 평가 가능하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참고사항

〈천안 YMCA의 학교축제 설문 사례〉

1. 설문 개요

본 설문은 천안 YMCA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토론평장’의 기초 조사로서 실시되었다. 학교축제는 개인적으로나 학교쪽에서나 또 사회적으로나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학교축제를 떠들석하게 시간보내는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때문에 학교축제의 의미와 필요성이 무시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축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천안시 6개 학교 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에 걸쳐 “학교축제 어떻게 하던 좋을까요?”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지

학교축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귀하는 학교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참여합니까?
 - 1) 꼭 참여한다
 - 2) 참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 3) 참여하지 않는다
2. 다른 학교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3. 학교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재미있다
 - 2) 지루하다
 - 3) 유익하다
 - 4) 관심없다
4. 학교축제 프로그램 중 가장 자랑스런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1) 프로그램명 ()
 - 2) 없다
5. 학교축제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1) 특별활동을 통해 쌓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 2)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하나되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 3) 학과 이외의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
 - 4) 애향심 혹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 5) 기타
6. 학교축제의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 1)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
 - 2) 무질서하다
 - 3) 선배가 강압적으로 시켜 싫다
 - 4) 공부 잘하거나 재주있는 몇몇 학생의 독무대이다
 - 5) 기타
7. 귀하가 학교축제를 마음대로 꾸며볼 수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구성하겠습니까?
 - 1)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 2) 선생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겠다
 - 3) 지역주민을 초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램을 기획하겠다

4)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

5) 우리들 문제를 가지고 연극이나 발표회, 토론 등을 해보겠다

6)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초청하겠다

7) 기타

8. 학교축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다음중 어떤 것입니까?

1) 다른 학교 학생에게도 학교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2) 오락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한다

3) 무대장치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4) 축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전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5)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경비를 줄인다

7) 상급 학년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9. 축제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만족한다

2) 다른 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

3) 좀 더 길면 좋겠다

4)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

10.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명 : ()

2) 성 별 : 남 () 여 ()

3) 학 년 : ()

* 자료 : 천안 YMCA, 1995.

활동 5 백지장도 맞들어야

활동개요

청소년축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든 청소년이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간과 노력이 더욱 소모되며,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축제의 준비는 청소년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축제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소개한다.

활동목표

축제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 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축제준비위원회의 필요성 및 활동을 이해하게 한다.

준비사항

지역사회 인사 명단

활동방법

- 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적정 인원(10명-6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학교, 단체,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의 진행하에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 ④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홍보, 재정, 섭외, 진행, 총무, 시설 등이 있을 수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유의사항

- ①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단지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② 위원회 인원이 소수이거나 축제 규모가 적은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참고사항

〈강릉단오제 운영위원회 조직〉

행사를 실제로 치루는 하부조직으로서의 행사 담당 조직은 총무·홍보·문화재행사·민속행사·예술행사·체육행사·경축행사·상가·시설·경비의 운영위원회 산하 10개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준비와 운영에 임하고, 분과는 업무내용에 따른 다음과 같은 부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 ① 총무분과 : 기획·서무·총무·재정·본부운영
- ② 홍보분과 : 선전·보도·안내·관광
- ③ 문화재행사 : 제례·무격(巫覡)·가면극·농악·국사성황행사·부사행렬

- ④ 민속행사 : 한시백일장·민요경창·시조경창·푸너리공연·그네·씨름·줄다리기·국악공연
- ⑤ 예술행사 : 서예전시·연극공연·촬영대회·사생대회
- ⑥ 체육행사 : 축구·궁도·테니스·탁구·승마·태권도·케이트볼
- ⑦ 경축행사 : 고공낙하·수석전시·축포·도서전시·민속놀이
- ⑧ 상가 : 상가분양·전기·향토음식
- ⑨ 시설 : 전화·급수·하수·환경·시설관리
- ⑩ 경비 : 경비·교통·소방·구호·보호

* 자료 : 조홍윤 외, 1994.

활동 6 계획은 처지에 맞게

활동개요

축제의 계획은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과정으로서 건축에 있어서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축제의 계획이 어떻게 짜여졌는지에 따라 축제의 성패가 결정되며 따라서 계획에 철저히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는 진행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계획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켜 청소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축제를 계획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활동목표

축제를 청소년들이 직접 계획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축제 계획에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준비사항

인원, 장비, 재정상황 자료

활동방법

- ① 계획수립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② 축제의 목적, 방향, 내용, 소요경비 등 축제 계획을 수립한다.
- ③ 프로그램, 일시, 장소, 주관 등을 포함하는 축제계획서를 작성한다.
- ④ 각각의 축제 단위 프로그램별로 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유의사항

- ① 축제의 계획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② 행사 내용은 축제의 목적 수행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③ 주어진 자원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 ④ 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움을 얻어야 한다.
- ⑤ 과거의 계획 및 앞으로의 계획과 상호 연관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제64회 춘향제 행사계획〉

1. 방향

- 1) 전통성 재현 계승하여 춘향문화 선양
- 2) 전통문화 재조명으로 전국민적 축제화
- 3) 민족문화의 우수성 세계문화의 승화
- 4) 지방문화 시대에 부응한 현대자원화
- 5) 국악원 해, 한국방문의 해, 부용 홍보축전

2. 행사개요

- 1) 행 사 명 : 제64회 춘향제
- 2) 행사기간 : 1994. 5. 17~5. 21(5일간)
- 3) 주 관 :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 제64회 춘향축전위원회
- 4) 후 원 : 문화체육부, 문예진흥원, 한국방송공사, 서울신문사,
금성,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군
- 5) 참 여 : 각 기관 및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지역민

6) 행사내용

구 분	종목수	행 사 명
축제행사	6	• 관등점화(설치포함) • 등불행렬 • 국악 한마당 • 불꽃놀이 • 춘향골의 밤 • 관악대 취타대 시가행진 ※ 축제분위기 조성 — 홍보조형물 설치
춘향관련 행 사	9	• 참배 • 춘향제사 • 춘향1대 재현시가행렬 • 기념식 • 전국춘향선발대회 • 춘향그네뛰기 • 춘향 및 명창행렬 • 춘향문화대상 • 춘향창극
민속행사	10	• 제21회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 • 제49회 전국남녀 양국대회 • 제10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 제9회 민속씨름대회 • 민속농악시범공연 • 고전 군무 • 만복사 탐돌이와 토성밧기 • 춘향가 완창 • 이몽룡 타령 • 민속국악 대공연
기타부속 행 사	8	• 제18회 춘향기 대항 영호남 테니스대회 • 제8회 전국춘향미술대전 • 제8회 전국사진 촬영 대회 • 춘향제 기념 글짓기 백일장 • 연변가무단 무극춘향전 • 한시백일장 • 전국판소리 학술대회 • 국악의 해 기념공연 ※ 풍물시장(미락, 토공산품, 오락, 씨커스)

7) 소요경비 및 재원

(1) 소요경비	220,000 천원
－ 행사비	137,000 천원
－ 행사추진비	51,000 천원
－ 홍보조형물	32,000 천원
※ 광고협찬에 의함.	축제홍보물
(2) 재원	220,000 천원
－ 도비보조	70,000 천원
－ 시비보조	60,000 천원
－ 군비보조	15,000 천원
－ 진흥기금	5,000 천원
－ 기업체 및 단체협찬	70,000 천원
※ 협찬 주관행사(본 예산외 행사)	

3. 단위 행사 계획 사례(춘향 1대 재현 시가행렬)

- 1) 일 시 : 1994. 5. 18 10 : 00—12 : 00
- 2) 장 소 : 시내 일원
- 3) 주 관 : 춘향축전위원회
- 4) 참 여 : 11개 중고등학교, 시범공연농악대
- 5) 행진코스

남원시청(집결) → 시 단협4가 → 역전광장 → 법원4가 → 용
성4가 → 제일은행4가 → 동양약국 4가 → 공설시장 → 합리정
미소 → 광한루원정문 → 춘향교 → 관광단지 → (해산)

※ 집결 : 5. 18 09 : 30까지 남원시청 광장

6) 대진대열 및 순서

순서	요 목	내 용	적 요
1	선도차	경찰백차 1, 싸이카 2	경찰서
2	프랑카드	경 제64회 춘향제 축	남원 여고 (4명)
3	관악대	악대	남원농공상 (100명)
4	취타대	취타대	남원상고 (100명)
5	영 정	차륜, 꽃장식, 춘향영정, 행렬	남원여고 (4명)
6	대형기 (4x6cm)	태극기, 선양회기(한복, 흰고무신)	남원여고 (12명)
7	대형PK(3)	주제: 세계의 춘향 한국의 자랑(프랑카드 형식) (한복, 흰고무신) ※ 문안 검토 작성	남원여고 (3명)
8	농악대	시범공연농악대(40명)	행사중간에 삼입행진
9	학교별 가장	학교별 가장행렬 (1) 춘향, 이도령, 광한루원 상봉 (2) 이도령, 춘향가 방문 사랑 (3) 동부승지 교지 오리정 이별 (4) 신관사또 취임 행차 (5) 기생 점고 (6) 항명수절 옥중 고행 (7) 파립어사 춘향가 방문 (8) 변학도 생일잔치 어사 출도 (9) 어사 출도후 서울 행차	각 200~300 명
10	참여교	남원중, 용성중, 남원여고, 용성여고, 남원농공고, 남원고, 남원여고, 성원고, 남원상고, 남원여상고, 한남여고	
11	참여단체	(10) 고전군무단 (11) 시범농악대	한 남 여 고 (200명)

요 목	내 용	담 당		준비 기간
		사전위	행정	
물품준비	• 태극기 선양회기 • 꽃차 1대, 백색장갑 26조 • 프랑카드 대 1, PK용 3개 • 집결지 표식반(남원시청) • 준항 영정	31-0313	기획계	5.10
사전준비	• 관계기관 협의 • 학교 협조 • 시가행렬 참여 실무자회의 • 선도차1대, 싸이카2대, 엠브란스1대 협의 • 관악대, 취타대 협의 - 농공고, 남원상고 • PK 기수요원 협조 - 여고 26명 • 농악대 협의 - 시범농악대			5. 5
최종점검	• 준비상태 - 순회점검 • 관계자회의 등을 통한 행진대열 질서유지 방안			5.15
기념식 참석대열 안내	• 기념식장 입장(광한루원 잔디밭) 5. 18 13 : 40까지 • 참석대상 농공고 관악대 40명 한남여고 고전군무단 200명→ 남원여상고 합창단 60명→ 남원상고취타대 100명→			

청소년 전통 축제의 진행



열림마당



온 동네를 하나로
홍겨운 우리 혼례
조상님께 인사부터

地神 地神 地神아 主山地神을 올리자
 天地玄黃 생긴 후에 日月星辰이 밝았다.
 山川이 개탄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함경도라 白頭山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두만강 정기가 떨어져 강원도 금강산이 생겼고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 임진강이 생겼고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 평안도 묘향산이 생겼고
 묘향산 정기가 떨어져 대동강이 생겼고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 황해도 구월산이 생겼고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 세룡강이 생겼고
 세룡강 정기가 떨어져 경기도 삼각산이 생겼다.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 한강이 생겼고
 한강 정기가 떨어져 충청도 계룡산이 생겼고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 백마강이 생겼다.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 전라도 지리산이 생겼고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 영산강이 생겼고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 경상도 태백산이 생겼고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 낙동강이 생겼다.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 東萊 金井山이 생겼고
 금정산 정기가 떨어져 이 洞內 主山이 생겼네
 今年해분 某年某月某日에 主山님께 發願이요
 이 洞內 家家戶戶, 나갈 때는 半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 짐지고
 부귀영화 安過泰平 짐지하여 주옵시고
 어히여루 주산님 만대유전을 누리소
 (후렴) 잡귀 귀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 주산풀이 —

활 동 7 온 동 네 를 하 나 로

활동개요

우리의 축제는 관객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많은 사람들의 참여속에 일체감 형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축제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은 축제의 성패를 판가름 하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별로 또는 축제에 따라서 독특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성이 그 축제의 성격을 규정짓기도 하고 있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축제의 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축제를 알리는 과정을 소개한다.

활동목표

축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축제의 의미를 알리고 동시에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흥미를 북돋는다.

준비사항

각종 기, 연등, 가장 의상, 가면(탈), 각종 악기 등

활동방법

- ① 참가단체 및 참가자를 선정하여 사전 협조를 구한다.
- ② 실무자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③ 행렬의 집결에서 해산까지의 진행경로를 확정한다.
- ④ 기, 군악대, 연등, 가무, 농악대, 가장 등의 진행 대열 및 순서를 확정한다.
- ⑤ 각 진행대열별로 필요한 인원 및 구성 내용 등을 확정한다.
- ⑥ 행렬의 진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확정하여 준비한다.
- ⑦ 준비된 행렬을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시킨다.

유의사항

- ① 행사성 위주의 무리한 행렬을 준비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의 흥을 돋구는 대열의 준비에 치중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대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③ 전문 기능이 많이 요구되는 대열은 소수로 하고 전문 기능없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농악 등의 대열로 행렬을 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구한다.

참고사항

〈길놀이〉

길놀이는 탈춤놀이가 행해지기 전에 영기를 받쳐들고 길군악을 울리면서 놀이판에 이르는 행렬로 아침부터 시작되는 씨름·그네·소리판·줄타기 등에 앞서 벌이는 길놀이와 저녁에 탈놀이로 들어가기 전에 벌이는 길놀이가 있는데, 온 고을 사람들에게 놀이판을 알리는 동시에 참여해 줄 것을 바라는 뜻이 있다. 각 놀이에서의 길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봉산탈춤에서는 잭이를 선두로 하여 사자·말뚝이·취발이·포도대장·소무·양반·영감·상좌·노장·남강노인의 순서로 고을의 큰 거리를 일주하는데, 중도에서 대열이 넓은 마당에 이르면 모두

어울려서 한바탕 춤판을 벌이고 다시 열을 지어 탈판으로 향한다.

- ② 강령탈춤에서는 팔경대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한바퀴 돈 다음 놀이판에 이르며, 말뚝이가 맨 앞장을 서고 뒤이어 사자·원숭이·먹중·상좌·노승·소무·취발이·양반·영감·할미판대 등의 탈꾼행렬 뒤에 짚이들이 뒤따른다.
- ③ 은율탈춤에서는 헛목·사자·마부·짚이들·팔벽중·양반삼형제·말뚝이·새매시(1)·老丈·새매시(2)·최팔이·할미판대·영감·무당 등의 순서로 읍대를 한 바퀴 돌고, 아랫장 마당으로 간다.
- ④ 양주별산대놀이에서는 서낭대와 탈들을 앞세우고 풍물을 울리며 집돌이를 한다. 지신밟기를 겸한 집돌이를 하는 낮 동안에는 집집마다 들러 춤과 덕담을 베풀어 酒食을 대접받고 돈과 곡식 등을 추렴한다. 길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고사를 지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⑤ 송파산대놀이에서는 현재 길놀이가 없어졌다.
- ⑥ 북청사자놀음에서는 등군·사령·통소·북·장고·팽과리·징·소고·양반·객쇠·영감·마누라·처녀·총각·무동·송무·의사·중·사령·등군의 순서로 진행한다.
- ⑦ 동래야유의 탈놀음판인 복천동 마당까지의 대행렬로 맨 앞에 대청계초롱 2개가 서고, 그 다음 그 해의 12지상의 콘 등이 선다. 5백개나 되는 소등을 일렬로 배열하거나 혹은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기도 하며 그 밖에 용등·봉등·학등·귀등·가마등·포도등·일산등 등도 간간히 배치한다.
- ⑧ 수영야유에서는 길놀이와 군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월출을 기다리던 부락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둔 소등(약 200개)을 가지고 연회장서 약 1킬로미터 쯤 떨어진 원수정 근처에 모여서 행렬 준비를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소등대·풍악대·길군악대·팔선녀·사자(인형) 또는 마차를 단 수양반·남봉가패·양산도패가 장사진을 치고, 가장·가무·연등의 화려한 대행렬이 이루어진다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활동 8 흥겨운 우리 혼례

활동개요

예로부터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고 그 결실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은 모든 젊은이들의 설레임이자 바람이었고 온 마을의 경사였다. 예식에 쓰일 음식을 장만하고 서로가 들떠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혼례의식은 엄숙함과 해학이 동시에 있으며 모든 이들을 신명나게 만드는 하나의 축제마당이 된다.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흥겨움과 풍성함을 되찾을 수 있는 전통혼례는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전통혼례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이 가상적으로 전통혼례를 해 봄으로써 전통혼례가 갖는 우리 정신을 이해하고 신명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준비사항

축기, 함, 말(사람 무등), 가마, 오복음식(쌀, 보리, 조, 콩, 기장),
기러기(인형), 초, 대례상, 음식, 신랑·신부 의상, 정화수, 합한주,
닭, 비나리, 악기류

활동방법

① 혼례청 열음 마당

청사초롱이 앞서면, 사인교를 탄 늑름한 신랑과 가마탄 수줍은
각시가 뒤따르고, 함진아비들의 함팔이 행렬이 이어진다. 가마
꾼과 함팔이꾼의 짓궂은 장난이 밟지만은 않은 정겨운 행렬, 오
복곡식을 나누는 손길에 잔치의 넉넉함과 복됨이 배어난다.

㉠ 혼례 행렬 길놀이

축기를 든 길놀이패와 청사초롱이 앞서고, 사인교를 탄 신랑과
가마를 탄 신부에 이어 함진애비와 함팔이꾼들이 뒤따르며 혼례행
렬을 만든다.(원래 함은 혼례의 약속을 교환하는 것으로 혼례의 전
에 이루어지고 신랑의 행렬은 혼례 당일에 이루어지며, 신행(신랑
신부가 함께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옮겨가던 행렬)은 혼례 후에
이루어지나 여기에서는 현대감각에 맞춰 혼례전에 배치, 혼례 행렬
을 연출한다)

㉡ 오복곡식 나누기

함잡이꾼들은 오복음식(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나누어 주면서
혼례의 복담을 서로 나눈다(여기에서 오복은 장수와 부와 건강과
덕있음과 평안한 부움의 다섯가지 복을 뜻한다).

② 혼례 본마당

큰 절을 하다 엉덩방이를 찢는 각시. 합한주를 원샷하는 신랑이 웃
음바다로 만들고, 대례상 다리 너머로 슬며시 마주보는 신랑 각
시의 눈길이 사뭇 설레던 우리의 전통 혼례. 풍물과 춤, 시와 노
래가 있는 전통 예술은 잔치의 즐거움과 경사스러움을 더한다.

㉢ 기러기 들임

신랑은 준비한 기러기 또는 기러기 모양의 인형을 신부에게 들인
다(기러기는 본시 새끼를 많이 치고 배우자를 다시 맞지 않기 때문

이다. 자손이 창성하고 정절을 지키는 새이기 때문에 남편이 될 신랑이 아내가 될 신부에게 그렇게 살것음을 약속하는 의식으로 전통 관습으로는 기러기를 원앙으로 보아 ‘원앙과 같이 금슬좋게 살겠다’는 약속의 표현이다).

㉔ 마당밭이 풍물

풍물을 올려서 널리 시작을 알리며 관을 잡는다(곧 지신밭기로 혼인의 주인공을 따. 받칠뿐 아니라 만물생육의 터전인 땅을 굳게 다지는 풍물굿이다).

㉕ 꽃불 밝힘

신랑신부의 어머니는 대례상 양편에 촛불 또는 기름 촛불을 밝힌다(모두의 정성으로 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위로 오르는 불꽃의 기운이 하늘을 감화하여 이 관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의식이다).

㉖ 땅술 붓기

신랑 신부의 아버지는 차례로 대례상 앞 바닥에 술을 두른다.(술을 땅속으로 흘려내려 땅신을 감화해 올리려는 뜻으로 이렇게 하여 땅과 하늘이 보우하는 가운데 예식을 치르는 것이다)

㉗ 씨리재춤

씨리재춤 또는 혼례분위기에 맞는 춤을 춘다(씨리재춤은 춤사위가 너른 격식있는 춤으로 혼례마당을 정갈히 해내는 의식이다. 씨리비로 마당을 쓸어 깨끗이 하듯이 판에 낀 만액과 잡귀를 흩어내고 청결한 터전이 되게 하여 신랑신부가 들어설 마당을 온전하게 마련한다).

㉘ 신랑 신부 들어섬

신랑과 신부는 한복으로 화사하게 차려입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의젓하게 함께 들어선다.(신부는 고개를 숙인채 신부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은 서양식 전통으로 아버지가 가졌던 주권을 신랑에게 넘기는 것이고, 신부가 입는 흰 웨딩드레스는 순결을 의미하며, 면사포는 하나님을 직접 우러러보지 묵하도록 한 가리개의 뜻이다)

㉙ 손씻음

신랑신부가 손을 정화수에 담가 정결하게 한다.(손은 노동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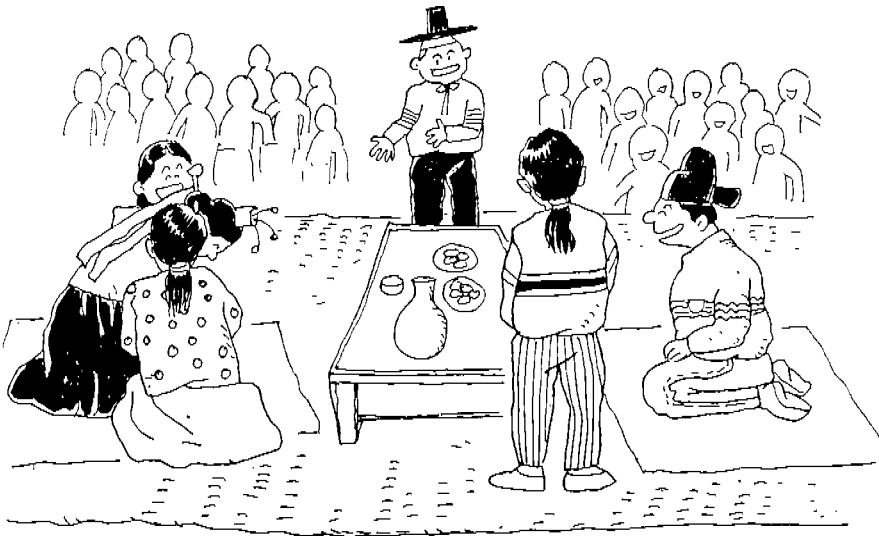
현하는 주된 부위이니 이 손을 씻는 것은 사람의 온통을 순결히 하는 것이다)

㉞ 여는 말

신랑신부를 마주서게 한 채 본 예식을 성스럽게 고지한다.(하늘과 땅이 어우러져 만물을 생육하듯이 이질의 생명 주최인 남성과 여성이 화합하여 발전하는 이치, 그리고 한쌍의 화합에 주변 만물과 천지 음양이 화통하여 어울려든다는 우주와의 친화의식을 품고 혼례본식을 성스럽게 선포하는 것이다)

㉟ 맞절

신랑신부가 세번에 걸쳐 큰 절을 나눈다(평생을 존경으로 마주해야 하는 부부가 서로 반려에게 보내는 가없는 경배의 시작이다. 구식 혼례에선 신부가 먼저 올리는 재배에 신랑이 받는 일배, 그 절차를 반복한다).



㉔ 잔 나눔

각기 공경의 마음을 담은 술 한잔씩을 상대에게 올리고 나서, 다 음으로 각각의 술을 합한 합환주를 나누어 마신다.(술은 생명의 원 천인 물이라는 자연에 사람의 공을 들여 숙성된 천인(天人) 협력 물로 술을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만물을 가꾸는 못 사 람들의 정성과 자연의 공덕 속에 하나되어 동참함을 뜻하는 것이 다)

㉕ 비나리

공동체되는 하객들을 마주하고 겸허하게 꿇어 앉아서 부부되는 결의를 담은 글을 낭송한다(존경하는 윗분을 모시어 부부된 한쌍의 마음가짐 그대로 대독케 하고 신랑신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전 형으로 한다. 이제, 인간 초월의 주재신에 인간을 맡기는 것은 보편 심리가 되지 못하고 진실에 밀린 미신이 되며 오직 인간공동체가 연대하는 사랑만이 세계 창조와 진보의 신앙일 수 밖에 없고, 따라 서 대례상 곧, 자연신이나 하늘을 향한 빌기가 아니라 진정 믿음의 대상이며 세계 개척의 동반자인 사람들, 그 이웃과 하객을 통한 맹 서이며 발전의 축원이다. 남들 속에서 겸손할 때 내가 귀해지는 이 치니, 꿇어 앉는 것은 낮음의 표현이 아니라 같이 높아가는 겸허한 믿음의 자세이다. 이러한 비나리는 다른 혼례식의 성혼 선언과 주례사, 고천문, 길눈이말씀 따위를 겸허한 종교심성 위에서 인간 주체의 의지로 포괄해내고 있다).

③ 혼례 뒷풀이 마당

각시를 꼬시기 위해 갖은 아양을 부리는 신랑과 신랑을 애태우다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신부의 모습이 보는 이를 애태운다. 사랑맛이를 표현한 축하대무와 닭날리기로 흥청거리는 혼례청, 장탈꼬리 대동무와 단신무로 이내 대동의 마당이 된다.

㉖ 축하발림

하객 중에서 신방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노래 또는 춤을 공연 한다.(신랑 신부의 기쁜 마음, 몸으로, 소리로, 음악으로 한껏 풀어

주는 큰 꼴이 되게 한다)

㉞ 감사의례

아버지와 하객분들께 올리는 고마움의 큰 절을 한다.(이제, 아버지가 꼴을 떠나 어엿하게 독립한 어른으로 올리는 큰 효도와 보은의 맹세이며, 아울러 실문과 뒷심이 되어 배려하는 하객들에 대해 올리는 한없는 감사의 표시이다)

㉟ 축하 닭 날리기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닭을 손으로 집어서 날린다.(본래 닭은 화를 쳐 새벽을 알리는 짐승이라 귀신을 쫓는다 하여 영물시 하였다. 혼례청에서 닭을 날림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앞날에 악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㊱ 함께 나섬

주위의 하객들과 함께 부르는 결혼 축하의 음악 소리에 맞춰 신랑 신부가 함께 걸어나선다.

오늘

○○ 서른한 해

○○ 스물아홉 해

신랑 ○○○은 천안 땅을 딛고 나와
때로는 맑은 햇살을 받으며
돌녘을 달려와 여기에 우뚝 섰습니다.
신부 ○○○는 서울 하늘을 이고 태어나
때로는 따순 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눈보라를 가르며
물을 건너 산넘어서
여기에 환하게 자리잡았습니다.

뼈를 주고 살을 주신
선대와 아버님 어머님이시여
우애를 나눠 주신 형제 자매여
울을 치고 지켜 주신 친지들이시여
이들에게
아버이의 피땀은 육신과 근력이 되고
친지형제의 배려는 길눈과 뒷심이 되어
이제 이 두사람
사랑의 장도에 오릅니다.

친구와 이웃,
선후배 동지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두리 안에서 저희들은
한덩어리진 친지생명과
애정의 너른 연대를 깨우쳐 왔습니다.

많지 않은 것을 고루게 나눌 때
넉넉해지는 이치와
부리는자 노는자 없이
함께 땀흘릴 때
화평해지는 도리와
어울린 일꾼들이
서로를 다독이며 이웃을 노래할 때
뿌듯해지는 법도를 되새기웁니다.

역사를 밝혀온 고운뎃들이시여
그대들의 은공이 배인 이 강토가
꽃이 피고 향기나는
우리의 산천임을 새기오며

저희, 그 길을 더욱 밝혀
한 뭉치로 신명을 바치겠나이다.

은 주변과 이웃과 아울러 끝끝내
지켜보아 주시고 채찍이 되어 주시옵소서
동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두어 축원합니다.

○○, ○○

동체 원년 초일

* 자료 : 문예창작마을 뭉치부설 우리의례연구소, 1995.

활동 9 조상님께 인사부터

활동개요

우리의 축제는 전통적으로 종교의례적 성격을 지녀 인간이 무당을 중재로 신령과 만나는 의식을 진행하여 왔다. 우리 축제의 전형이라 보여지는 마을굿에서는 부락굿·부락제·동제·당제·서낭제로 불리어져 왔으며 무가 중심이 되는 형, 주민(농악대)이 중심이 되는 형, 제주가 중심이 되는 형, 이 셋의 절충형 등으로 각각의 의식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바빌로니아 및 서양의 축제가 코스모스로서의 일생생활 및 사회적 체제를 무질서, 혼돈의 의미를 지니는 카오스적 신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 반면, 한국의 축제는 그 전환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으며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활동에서는 축제의식의 진행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활동목표

축제의식 진행에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전통적 축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동체의식을 다진다.

준비사항

제사 음식, 축문, 제복, 홰기, 제례악, 징, 장구, 북, 평과리, 호적 등

활동방법

- ① 祭需(제사에 소용되는 여러가지 음식이나 재료), 祝文(제사때 신명께 읽어 고하는 글), 笄記(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 제복, 제례악 등을 준비한다.
- ② 제의를 주관할 청소년 대표를 뽑는다.
- ③ 제사상을 차린다.
- ④ 징, 장구, 북, 평과리, 호적 등 동원 가능한 악기를 연주한다.
- ⑤ 축문을 읽는다.
- ⑥ 절을 한다.
- ⑦ 음복한다.

유의사항

- ① 의식은 가능한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 ② 의식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며 절차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 ③ 종교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며 편의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의식으로의 대체도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1. 축문 사례 I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유세차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효자모(봉사자명) 감소고우

顯考某官(學生) 府君 顯비孺人(某封)某氏 歲序遷易 顯考 學生夫君
(어머니 忌祭日이면 顯비孺人 ○○(貫) 某氏)

현고모관(학생) 부군 현비유인(모봉)모씨 세서천역 현고 학생부군
(어머니 기제일이면 현비유인 ○○(관) 모씨)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清酌庶羞 恭伸尊獻 尚 饗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존헌 상 향

(꽃이)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고하
나이다. 해가 바뀌어서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영원
토록 사모하는 마음과 하늘과 같이 크고 넓은 은혜에 보답코자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잔을 올리오니 마음껏 드시
옵소서.

2. 축문 사례 II

어루어루 당산님 당산님께 비나이다
남방적제 당산님 북방혹제 당산님
어이어루 당산님 당산님께 비나이다
우리농민 생활 속에 살아있는 풍물소리
어깨춤이 절로나고 고개짓이 절로나네
마음도 함께하고 힘도 또한 함께하세
조화롭게 어우러져 통일된 뜻을 모아
쾌매고 새살돋워 하나되게 함이오니
어루어루 당산님 당산님께 비나이다
신명도 함께하고 마음도 함께 하세
푸릇푸릇 가꾼벼가 탄탄하게 영글며는
건강한 밥이되고 평등한 밥이되어
저곡가 저임금 모두모두 물리치는
밥자유 평등평화 이뤄내게 하옵시고
뜨거운 심장으로 이 땅을 딛고 서서
만복의 그날을 그날의 해방을
잡귀잡신은 물알(바다)로 만복은 이리로

동방청제 당산님 서방백제 당산님
중앙황제 당산님 오방당산을 울리자
우리농민 정성담긴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고개들씩 가슴들씩 무릎들씩 온몸들씩
함께하는 풍물 속에 신명도 함께 하고

장구소리 쇠소리 북소리 징소리
이 당의 찢어진 조각조각 하나하나

오늘 우리농민들과 술도함께 춤도함께
우리농민 힘모아서 온 땅이 살아가고
사람의 세상살이 모든 것 키워내는
상하귀천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농민의 밤이되고 민중의 밤이되어
땀흘리며 일하는 건강한 농민
에헤야 열사안고 에헤야 춤을 추는
우리 끝내 이루도록 힘껏밀어 주옵소서
어이어루 당산님 만대 유전을 비읍니다

3. 축문 사례 Ⅲ

오늘같이 화창한 봄날에
따파먹고 사는 우리 농민들 () 마을에 모여
천지신명께 비읍나니
이 나라 이 땅 위해 사우다 돌아가신 뉘들께서는 모두 이 자리에 오시
어
이 약하고 착한 백성 원 풀어주고 한 풀어 주옵소서
우리 농사꾼 바람이야 그저
천수받아 씨부리고 모심을 때 비 잘 내려
무럭쭙쭙 벼포기 자라나, 병 하나 없이
아, 그놈이 제때 제때 씨를 배어 누렇게 익어갈 제
해가 때맞추어 자상히 내리찍어서 알알이 한 톨 남김없이 영글어
년년이 풍년들어, 피땀흘려 지은 농사
나락 한톨이라도 제값에 팔려, 한달 전에 빌려온 최영감네 빚 갚
을 걱정,
비료주고 약뿌릴 때 빌려온 농협부채 걱정,
서울간 아들놈 하숙비, 학비걱정,

바람난 딸년 출가시킬 걱정,
 고생만 하는 우리 마누라 속바지 하나라도 제대로 해입힐 걱정,
 이런 모든 걱정들이 싹 물러가고
 그저 탈없고 한숨없이 한번 기뻐고 살아보는 것이오니,
 오늘날과 같은 재앙 다시는 없게 하옵시고,
 키 큰 강도, 키 작은 강도, 총칼든 도적 물리치시어
 다시는 이 나라 어진 백성이
 찬바람 눈 속에도 해매이지 않는
 밝은 세상되게 속속이 살피주옵시길
 적은 음식 차려놓고 온갖 정성 모두 모아 천지신명께 비옵나이다.
 상 --- 향
 () 어디어디(제의를 지내는 곳을 가리킴)

* 자료 : 봉천놀이마당, 1994.

4. 제의의 종류

동제는 일반적으로 산신제가 보편적이고 마을에 따라 그 밖의 제사가 있을 수 있다. 강릉에서는 대관령서낭을 제사하는 단오제가 있고, 온산에서는 별신제가 크게 거행되며, 제주도에서는 영등제가 있고, 영남지방에는 풍신으로서의 영등할머니를 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신들은 모두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사하고 위하는 데 있어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동제를 이루게 된다.

* 홍일식 외, 1982.

노래와 춤 마당



아름다운 우리 공연
함께 배우는 노래와 춤
누가 누가 잘 하나

그렇게 춤을 추십시오.

햇빛이 화사합니다.

혈맥이 돌고 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면

내 한민족의 수난이

곤한 기억으로 침전하여

빛 바랜 소매를 쥐어잡니다.

단풍 내음으로 물든 버전이

그리도 소중하게 보이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이없는 향수의 바다를 건너

박꽃 내음으로 가득 찬

초가로 돌아 가렵니다.

그것은 수난 속에 자란

죽순의 얼이 담긴

내 조상의 손길입니다.

— 부채춤(이선관) —

활동 10 아름다운 우리 공연

활동개요

우리의 노래에는 시조, 가사, 가곡, 민요, 가곡, 입장, 판소리, 범패가 있고, 춤에는 무당춤, 농악무, 탈춤, 승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통 춤과 노래는 또 지역별로 세분되어 있어 평소에 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아서 축제 현장에서의 공연은 청소년들의 전통 세계에 대한 이해에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단체나 전문인의 섭외를 포함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활동에서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펼쳐지는 전문가들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활동목표

전통 노래, 전통 춤을 직접 관람함으로써 우리의 것을 이해할 기회를 갖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풍부히 한다.

준비사항

전통 춤, 노래 공연팀, 무대 및 무대시설

활동방법

- ① 준비가 가능하고 청소년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의 공연을 선정한다.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유래되고 있거나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능인을 활용한 전통 춤이나 노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 ②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정된 공연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 ③ 중간 중간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연을 진행하도록 한다.
- ④ 공연이 끝난후 공연자들과 청소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유의사항

- ① 공연 시간은 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 ② 공연은 진행자의 자율성 존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가능하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사항

1. 우리 노래

1) 가사(歌詞)

가곡(歌曲) 시조(時調)와 함께 한국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 8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었다. 가사체(歌詞體)의 긴 사설을 일정한 장단의 틀에 담은 노래로, 소리의 표출 방식이나 음악적 특징이 가곡과 시조에서 처럼 고아하게 표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잡가의 성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시조창이 대중적이어서 아무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비전문가의 노래인데, 가사는 가곡과 함께 음악을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가의 노래이다. 가사는 조선 중기에 풍류방의 가객과 상공인의 공청의 가객들에 의해 발달하여 조선말기에 성립되었다.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12가사를 보면, 〈백구사〉, 〈황계사〉, 〈죽지사〉, 〈춘면곡〉, 〈어부사〉, 〈길근악〉, 〈상사별곡〉, 〈권주가〉, 〈수양산가〉, 〈양양가〉, 〈처사가〉, 〈매화타령〉 등이 있다. 가사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고 《악장가사》에 있는 어부사를 농암 이현보가 개작한 것이 가사의 효시가 된다. 현행 12가사 중 어부사 외에는 모두 조선말기에 발생된 것으로 《고금가

곡》에 〈죽지사〉, 〈춘면곡〉, 〈양양가〉, 〈어부사〉의 가사가, 《청구영언》에 〈백구사〉, 〈황계사〉, 〈군악(길군악)〉, 〈준면곡〉, 〈어부사〉, 〈상사곡〉, 〈권주가〉, 〈양양가〉, 〈처사가〉, 〈매화가〉의 10곡이 《남훈태평가》에서는 〈춘면곡〉, 〈상사별곡〉, 〈처사가〉와 잡가로 〈백구사〉, 〈매화가〉가 《가곡원류》에는 〈어부사〉만 전한다.

2) 민요(民謠)

민간에 전승되어온 노래로 민속음악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민요는 일반적으로는 예술음악과 대립되는 말이지만 예술음악의 모체가 되기도 한다. 민요는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제례나 노동을 할 때 부르기 시작한 노래로서, 특정한 창작자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민중의 생활 감정을 소박하게 반영하고 때로는 국민성·민족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민요는 유행가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자식에게서 손자로 전승된 것이다. 또 그 전승도 문자나 악보를 매체로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춤과 함께 집단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가사와 곡조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민요란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로서 생활상의 필요성에서 창자가 스스로 즐기는 노래이며, 창자만으로도 존재하는 자족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민요는 전파정도와 세련도에 따라서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로 구분된다. 토속민요란 국한된 지방에서 불리워지는 민요로서 사설이나 가락이 소박하고 향토적이며 상여소리·김매기·모내기·집터다지는 소리 등이 그 예이다. 통속민요란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하여 불리워져 세련되고 널리 간파된 민요인데, 사설은 옛 시구나 중국고사를 인용하는 등 세련되어 있지만 여러 곡에서 끌어내어 쓰기 때문에 중복이 많다. 육자배기·수심가·창부타령·강원도 아리랑 등이 그 예이다.

3) 범패(梵唄)

절에서 제를 올릴 때 쓰는 의식음악으로 불교음악의 총칭으로 좁은 의미로 범패 중에서 훗소리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요무형문화

제 제50호(1973. 11. 5)로 지정되었다.

범패는 일명 범음, 인도(印度 또는 引導)소리 또는 어산(魚山)이라고도 하는데 절에서 주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이고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삼대 성악곡 중의 하나이다. 범패는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율이며 제를 올릴 때 쓰는 의식음악이라는 점, 그리고 발생연대가 8~9세기라는 점에서 서양 음악의 그레고리아(Gregoria) 성가와 비슷하다. 서양음악사의 주류를 이루는 근원이 그레고리아 성가에 있듯이 범패는 우리의 정악 즉 궁중 제사음악을 제외한 아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범패는 주로 상주권공제·시왕각배제·생전예수재·수륙제·영산재 등 다석가지 제에 쓰인다.

범패에는 그 음악적 유형으로 보아 안채비들이 부르는 안채비소리와 곁채비(또는 바깥채비)가 부르는 홑소리 및 짓소리, 그리고 이 밖에 축원을 하는 화청이나 화심곡 등 4가지가 있다. 좁은 의미의 범패는 홑소리만을 가리키고 범음은 짓소리의 별칭이다. 안채비란 제를 올리는 절 안의 유식한 방법 또는 범주가 유치, 청사같은 축원문을 요령을 흔들며 낭송하는 것으로 흔히 염불이라고도 한다. 한편 바깥채비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중이 다른 절에 초청을 받고 가서 소리하는 것을 말한다. 범패는 주로 이 곁채비들의 노래이다.

4) 입창(立昌)

한국의 전통 성악곡 가운데 서서 부르는 노래의 총칭으로 선소리라고도 하며 좌창의 대가되는 말이다. 한 사람이 장고를 메고 소리를 메기며 소고를 쥔 4-5인이 전진 또는 후진하며 발림과 함께 제창으로 받는다. 좁은 의미의 입창은 산타령만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는 산타령 외에도 보령, 화초사거리, 양산도, 방이타령, 자진방이타령, 경북궁타령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그것이 불리던 지방에 따라 경기입창, 서도입창, 남도입창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사설의 내용과 선율형에 의해 동계의 음악으로 추측된다. 이중 일반적으로 경기입창을 원형으로 본다. 이러한 입창 특히 산타령이 원래 사당패의 음악에 근거를 두었다는 견해를 갖는 이도 있다.

5) 잡가(雜歌)

가곡·가사·시조 등 지식층에서 즐기던 노래에 대하여 대중들이 즐겨부르던 긴 노래의 총칭이다. 광의의 잡가와 협의의 잡가로 구분되어 쓰이기도 한다. 광의의 잡가로는 전라도의 화초사거리·보령, 경기 지방의 산타령·12잡가·휘몰이 잡가, 서도 지방의 초한가·공명가 등 긴 노래와 각 지방의 민요까지도 포함된다.

협의의 잡가는 각 지방의 민요를 제외한 직업 가수들이 주로 부르던 화초사거리·산타령·12잡가 등 긴 노래를 가리킨다.

6) 판소리

이야기를 소리(노래)와 아니리(말)와 발림(몸짓)으로 엮어 나가는 극적 연예양식으로 판소리는 본래 마당을 놀이판으로 하여 길게 순서대로 부르는 놀음 즉, 판놀음으로 공연되던 것이다. 판놀음으로 공연되는 것은 판줄·판굿·판염불과 같이 ‘판’이라는 말이 붙는데, 〈춘향가〉나 〈심청가〉와 같은 소리(노래)가 판놀음으로 연행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판소리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판소리 열두마당 중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홍보가〉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판소리에서는 노래하는 사람을 창우, 판대, 객이라고 말하고 북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판소리가 다른 놀음과 함께 공연되지 않고 판소리만 공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래는 줄타기·땅재주·죽방울 등 여러 창우들의 놀음과 함께 판놀음으로 공연되던 것이었다. 판소리의 기원은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 없으나 조선초기에 광대소학지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광대소학지회는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연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판놀음에서 소리와 아니리와 발림으로 공연하면 판소리와 같은 공연형태를 갖게 된다.

판소리는 원래 12편뿐이었는지는 미상이나 보통 판소리 열두마당으로 그 전부를 지칭한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는 〈춘향가〉, 〈심청가〉, 〈홍부가〉, 〈수궁가〉, 〈적벽가〉, 〈배비장타령〉, 〈변강쇠타령〉, 〈강릉매화타령〉, 〈옹고집타령〉, 〈장끼타령〉, 〈무숙이타령〉,

〈숙영낭자타령〉이라 하였다. 송만재(1769—1847)의 《관우회》에 서는 〈무속이타령〉과 〈숙영낭자타령〉 대신에 〈왈자타령〉과 〈신선타령〉을 열두마당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판소리의 열두마당이 형성된 시기는 숙종부터 영조 사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후 시대와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그 내용이 빈약하거나 허량한 것은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춘향가〉, 〈심청가〉, 〈홍부가〉, 〈적벽가〉, 〈수궁가〉 등 다섯마당 뿐이다.

* 자료 : 신준호, 1991.

2. 우리 춤

한국의 전통무용은 크게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용 그리고 향토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춤의 목적이나 기원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춤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줄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1) 궁중무용

장중한 멋을 자랑하는 궁중무용은 왕권정치가 확립되면서 많은 의식이 왕실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 궁중무용은 중국의 귀족사회에서 들여온 춤(당악정재)과 이를 새롭게 우리귀족의 취향에 맞게 창작한 춤(향악정재)이 있는데 이는 일명 ‘정재’라고도 한다. 정재라는 말은 ‘춤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과 기예를 보인다’는 뜻이다. 곧 궁중에서만 통용되던 술어로 ‘어떤 기예를 고귀한 사람에게 보인다’는 뜻이다.

정재는 궁중의 향연이나 국민을 위한 연회 또는 나라의 경사 때 추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왕실의 존엄과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화려한 무복과 도구로써 우아한 음악에 맞추어 장엄한 춤사위로 총과 예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궁중무용이 유교적 관념론에 지배되어 형식의 엄격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무복의 색깔이

나 무용의 기본구성은 유교의 배경 사상이 되는 오행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적 색채를 지닌다.

궁중무용의 종류로는 고려 때부터 내려온 향악무로 무고, 무예무, 학무 등이 있고 당악무로는 포구락, 수연장, 연화대, 오양선, 현선도 등이 있다. 조선조의 향악무에는 가인전목단, 무산향, 처용무, 검무, 광수무, 고구려무, 선유락, 사선무, 봉래의, 문덕곡 등이 있으며 당악무에는 몽금척, 수보록, 하황은 등이 있다.

2) 의식무용

의식무용에는 문묘와 종묘의 제사에서 추는 춤, 불교의 재(齋)의식에서 추는 춤이 있다. 이 밖에 환구단, 사진단 제사에서 악과 춤이 있었으나 춤은 소멸되고 말았다.

(1) 문묘악과 종묘악

문묘악은 중국 주대에 시작한 것으로 공자나 맹자와 같은 중국의 성현과 우리 나라 성현을 제사할 때 추는 춤이며, 종묘악은 조선 왕조의 역대 군왕의 위패를 모시는 제사에 추는 춤이다.

문묘악과 종묘악은 문무와 무무로 나뉜다. 문묘악의 문무는 문인을 위한 것으로 왼손에는 피리를, 오른손에는 쟁깃을 들고 춤을 추며, 무인을 위한 무무는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전투용 도끼를 들고 춤을 춘다. 종묘악에서 무무는 앞줄은 목검, 가운데 줄은 목창, 뒷줄은 궁시를 갖고 춘다.

이와 같이 문묘와 종묘 제사에서 추는 춤을 일명 ‘일무’라 한다. 이 춤의 특징은 다른 무용에 비하여 그 동작이 단조로우나 감정을 죽이고 묵묵히 추어야 하며, 동작은 무겁고 매듭이 확실하며 팔을 위주로 한 움직임은 하는 것과 악장에 따라 춤사위의 길이가 느리게 또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작법

불교 재(齋)의식 때 추는 춤을 ‘작법’이라고 한다. 이 춤은 의식을 거행할 때 장중한 범패에 맞추어 동작을 지어 불전에 공양을 드리는 춤이다.

작법에는 긴 장삼의 의막 돋보이는 나비춤, 소리를 내는 악기인

바라를 들고 추는 바라춤, 춤을 추며 복을 올리는 법고춤이 있다.

3) 민속무용

민속무용은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민중의 생활체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천신제, 지신제, 부락제 등 각종 행사와 대중이 즐기는 세시풍속 가운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민중과 밀착되어 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민간 생활에 깊이 뿌리 박고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민속무용의 표현양식은 궁중무용에서 보이는 고정된 틀의 형태에서 벗어나 민중생활의 실체를 자유로운 몸짓으로 표현한다. 또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현란한 의상이나 방대한 무대장치가 없이 세련된 동작으로 평민계급의 소박한 생활감정을 춤으로 표현한다.

한국춤의 특징을 우리는 ‘신명’의 춤이라 말한다. 이 신명이란 종교적 현상으로 신령과 인간이 일체감이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체감을 통해 일반 대중의 고통이나 좌절로 깊이 웅어리진 것을 해소시킨다. 이 신명은 민중의 생활을 표현한 예술의 원천으로서 삶의 비극을 희극적인 것으로 해체시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나아가는 충동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신명의 춤인 민속무용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춤을 출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살풀이, 승무, 강강술래, 농악, 무속춤 등이 있다.

4) 향토무용

향토무용은 민속무용의 한 갈래이다. 원시적 신앙행사나 세시풍속의 행위에서 발생된 것 가운데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방에 뿌리를 박고 토착되어서 오랫동안 그 지역 범위 안에서만 성행하고 성장하여 현재까지 전해진 춤을 말한다. 대개 가면극에 나오는 탈춤이 그것으로 서민계층의 생활 경험을 무용극처럼 엮어

삶의 활력을 넣어준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탈춤은 강릉단오굿의 관놀음이나 하회별신굿 등과 같이 대륙 전래의 것 이전의 토착적인 탈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형이다. 이들을 지방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경기일원의 산대놀이, 황해도를 중심으로한 해서지방 탈춤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 부산 일원의 들놀음과 서쪽 경남일원의 오광대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구분하면 두레패적인 탈춤으로 강릉단오굿의 관놀음과 하회 별신굿, 북청 사자놀음 등의 농촌형 탈춤과 중부지방의 양주 별산대놀이, 송파 산대놀이, 해서지방의 봉산탈춤, 강령 탈춤, 온유탈춤, 남부지방의 수령 들놀음 그리고 고성 오광대나 통영 오광대, 가산 오광대 등의 도시형 탈춤이 있다.

* 김매자, 1994.

활동 11 함께 배우는 노래와 춤

활동개요

전통 축제는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이들에 의한 공연에서 보다도 미숙하나마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함께 어울려 흥을 느낀다는 데에서 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서양 음악과 춤에 익숙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소리나 동작은 매우 까다롭고 재미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단지 우리의 것에 익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막상 쉽고 간단한 동작이나 소리를 접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청소년들은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의욕을 나타나게 된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전통 소리와 춤을 배우는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활동목표

비교적 쉽고 간단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해 봄으로써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느껴보며 실제로 익혀보게 한다.

준비사항

노래 악보, 카세트, 노래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비디오, 전통 악기

활동방법

① 노래배우기

- ㉠ 노래 악보와 노래 테이프, 카세트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 여러 곡이 수록되어 있는 노래 악보를 나누어 준다.
- ㉢ 직접 또는 카세트 등을 통해서 노래 소리를 들려준다.
- ㉣ 들려준 노래중에서 흥미있는 노래를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하게 한다.
- ㉤ 선정된 노래에 따라 청소년들을 몇개의 조로 편성한다.
- ㉥ 조별로 음의 고조, 길이, 발음의 변화에 주의하면서 노래를 부분적으로 반복하여 부르게 한다.

② 춤배우기

- ㉦ 비교적 쉽고 흥미로우며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우리의 춤을 몇개 선정한다.
- ㉧ 춤이 공연되는 상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함께 시청한다.
- ㉨ 관심있는 춤의 종류에 따라 몇개의 조를 편성한다.
- ㉩ 조별로 기본 동작과 춤사위를 익힌다.
- ㉪ 준비된 음악(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③ 악기배우기

- ㉫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중심으로 조를 편성한다.
- ㉬ 각 악기에 대한 특징과 간단한 가락과 장단을 가르쳐 준다.
- ㉭ 조별로 나누어 악기를 반복 연습하도록 한다.
- ㉮ 여러 가지 진을 짜보면서 악기를 연주한다.

유의사항

- ① 너무 어려운 것을 선정해서 청소년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 ② 한가지만 익힐 것이 아니라 관심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③ 되도록이면 지도 시간보다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이 비중을 두어 배정하도록 한다.

1. 민요부르는 방법

민요가 옛 사람들의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많이 불려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민요의 운율이나 내용이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활 체험이나 일의 율동과 완전히 함께 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민요는 혼자서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앞소리를 메기고, 그 나머지 모두가 뒷소리로 받는다. 이 때 뒷소리는 거의 정해져 있지만 앞소리는 그 판의 분위기나 구성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1) 함께 부르기(합창)

우리가 늘 모여서 부르는 형식이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서로의 신명을 추슬리고 상승시키는 ‘아우성’으로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미 없는 방식이 되기 쉽다. 손을 손을 잡고, 앞뒤로 힘차게 움직인다든지 하는 몸짓이 함께 이루어져도 좋다. 노래에 맞는 율동이 같이 이루어져도 신나는 일이다.

2) 번갈아 부르기(교환창)

모인 사람들이 남녀로 나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번갈아 가며 노래 부르는 방식이다. 서로 대거리를 하는 맛이 가장 잘 살아 있는 방식이다. 특히 옛 전통민요 가운데 댕거리로 이루어지는 들노래에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3) 메기고 받기(선후창)

뒷소리(후렴 받는 소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노래는 ‘쾌지나 칭칭나네’와 같이 앞소리(설소리, 메기는 소리)를 메기고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불린다.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거나, 한 작은 집단이 앞소리를 메기고 다른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거나, 혹은 사람마다 돌아가면서, 아니면 여러 집단마다 돌아가면서 앞소리를 메기고 다른 사람들은 뒷소리를 받는 등 여러가지로 부를 수 있다. 신명은 서로 주거나 받거나하는 과정

끊어서 표기한다. 약간 늦은 장단으로 ‘새타령’, ‘농부가’ 등에 쓰인다.

|| 덩 | 기 | 닥 | 쿵 | 딱기 | 닥타 | 쿵 | 쿵 | 딱 | 쿵 | || 쿵 ||

3) 중중모리

중모리보다 조금 빠른 장단으로 원래는 12/8박자로 되어 있으나 악보에는 6/8박자로 나누어 표기한다. 우아한 멋과 흥을 돋우는 곡조에 알맞는 장단이다.

|| 덩 | | 따 | 쿵 | 따 | 따 | 쿵 | 쿵 | 딱 | 쿵 | || 쿵 ||

4) 자진모리

중중모리와 같은 형식의 장단이나 보다 빠르고 자유롭게 진행된 다. ‘군밤타령’과 같이 빠르며 경쾌한 곡들에 사용되는 장단이다.

① 또는 ② 장단을 번갈아 가며 자유롭게 친다.

① || 덩 | | 따 | 쿵 | | 따 | 쿵 | 덩 | | 따 | 쿵 | 따 | 쿵 |
 ② || 덩 | | 따 | 쿵 | 따 | | 덩 | | 따 | 쿵 | 따 | |

5) 덩더쿵/북는타령(당악)

4/4박자의 리듬 형태를 갖춘 장단으로 탈춤이나 무악 등 주로 춤곡에 쓰이나 간혹 신민요에도 이 장단이 쓰이기도 한다.

|| 덩 | | | 덩 | | | 덩 | | 따 | 쿵 | | 쿵 ||

6) 굿거리

6/8박자 또는 3/4박자로 표기되며, 민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장단이다. ‘남원산성’, ‘몽금포타령’, 등 어깨춤이 절로 나는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장단이다. ① 또는 ② 장단을 번갈아 가며 자유롭게 친다.

①		덩			기	탁		덩		더	러		러	러		덩			기	탁		콩		더	러		러	러	
②		덩			기	탁		덩		따		콩		콩		기	탁		콩		따								

7) 타령

12/8박자 또는 4/4박자로 표기되는 느린 장단으로 탈춤이나 춤곡으로 느리고 애조 띤 곡에 주로 쓰인다.

	덩			기	탁			따		덩			기	탁			따		
--	---	--	--	---	---	--	--	---	--	---	--	--	---	---	--	--	---	--	--

8) 세마치(양산도)

굿거리 장단과 함께 민요의 주류를 이루는 장단이다. 9/8박자 또는 3/4박자로 표기되며 약간 빠르게 진행된다.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에 쓰인다. ① 또는 ② 장단을 번갈아 가며 자유롭게 친다.

①		덩				덩			따		콩		따			
②		덩				덩			따		콩		따			

3. 판소리 부르는 방법

판소리를 부르는 데에는 무대가 필요하지 않다. 마당에 자리 하나를 깔고 그 위에 광대가 서고 고수(북치는 이)가 앉아서, 광대는 창(노래)을 하고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치며 추임새라고 하는 감탄의 소리로 흥을 돋군다.

1) 허두가(단가)

판소리를 시작할 때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듣는 이들을 모아 둘기 위해 부르는 소리로 대개 단가를 허두가로 부른다. 단가는 중머리 장단에 자연풍경이나 인생무상 등을 노래한 그리 길지 않은 가사체의 사설로 ‘백발가’, ‘태평가’, ‘이산저산’ 같은 것들이다. 단가

외에도 판소리의 앞에 작품의 주된 내용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어서 허두가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2) 아니리

판소리 예술의 기본적 짜임 요소는 창, 아니리, 발림(너름새)이다. 이 가운데 창은 소리노래를 말하며 발림은 몸짓을 말한다. 아니리는 소리를 빼버린 서술로 말토만 하는 대목이다. 창 만을 계속하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아니리를 섞어서 광대가 숨을 돌릴 수 있게 하고 여유 있는 판의 분위기를 갈기도 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아니리는 판소리의 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판소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구경꾼에게 전달해 주는 예술임을 상기하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장단

판소리는 장단의 변화가 다채로운데, 이것은 음악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른바 ‘일고수 이명창’이란 판소리에 있어서 장단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이다.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까지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진양조 - 슬픈 분위기를 자아낸다.

중모리 - 태어난 맛과 안정감을 준다.

엇중모리 - 점잖은 느낌을 주며, 판소리의 끝부분인 뒷풀이에 주로 쓰인다.

중중모리 -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을 준다.

휘모리 -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데 효과적이다.

엇모리 - 급작스런 상황변화나 뜻밖의 등장인물이 나타날 때 주로 쓰인다.

자진모리 - 섬세하면서 명랑하고 차분하면서 상쾌하다.

4) 발성법

관소리의 발성은 우리 일상 언어생활의 발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생활에서의 발성과는 다른 인위적인 발성을 요하는 서양의 소위 ‘벨칸토 창법’과 구분된다.

관소리에선 수리성이라 하여 탁하면서도 성량이 풍부한 성음을 제일로 친다. 관소리가 추구하는 음빛깔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르다. 산골짜기의 맑고 투명한 물빛깔이 서양 발성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관소리는 지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검푸르게 넘실대는 저 깊이 모를 바다 빛깔을 추구한다. 서양이 인위적·관념적인 발성이라면, 관소리는 자연적·현실적인 발성이라 할 수 있다.

5) 소리제

소리제에는 동편제·서편제·중고제로 나누는데, 대개 동·서로 나누고 중고제는 명맥이 끊어졌다. 동편은 소리 시작을 씩 무겁게 하고 끝마침은 되게 하여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하는데 전체적으로 호령조가 많은 남성적인 소리제를 말하며, 서편제는 장단붙임과 선율에 변화를 많이 주어서 동편에 비해 섬세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강조한 여성적인 소리제이다. 중고제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중간이라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전승이 끊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제의 구분도 20세기에 들어와 광대들 사이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그 구별이 모호해져서 오늘날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 자료 : 봉천놀이마당, 1994.

4. 춤사위의 형태

우리 춤을 말할 때 춤과 춤사위라는 용어를 흔히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춤’은 내용을 말하고 ‘춤사위’는 형태로 나타난 어떤 모양새나 상황을 가리킨다.

1) 농악에 있어서 쇠꾼들이 부포놀이

외사·양사·사사·팔사·전조시·퍼넘기기·피꼬리상모·산치기·배

밀기(배미르기)·뚫대치기·복판치기·이슬털이 등

2) 농악에 있어서 쇠꾼들의 발림춤

앉았다 일어서기·앉은 걸음·발 사이로 손모으기·좌우치기·앉은 좌우치기·연풍대·채던지기 등

3) 농악의 장구춤

숙바더듬·고깔더듬·통돌림·채바굼치기·사채·궁굴채던지기·접시 돌리기·테돌림·발림·까치걸음·엇붙임걸음·명석말이·학걸음·삼진 삼퇴·좌우치기·미지기굿·바꿈질굿·연풍대 등

4) 농악의 북춤

삼진삼퇴·제자리회전·연풍대·까치걸음·한벌들어 북판치기·덧배기춤·두루걸이·북치고 회전 등

5) 농악의 소고쟁이의 채상모춤

외상모·양상모·사사·앞뒤로 짓히는 사위·사채(역진굿놀이)·맷는상·앉는상·지게북·연풍대·마상개·나비상·차고 앉은 상·자반뛰기(두루거리)·쌍방아쥘기·기러기춤·엮어베기·말법고·삼채기법고·칠채법고·몸틀기·꽃봉오리·소고 올렸다 내리기·옆걸음치기·까치 걸음·서고돌리기·앉아서 상모돌리기·소고 차고 돌기·소고 사선으로 올리기·소고 잡고 발 옆으로 올리기·발림·거북이채 등

6) 농악의 고깔소고춤

소고 앞뒷면치기·물푸기·벌려 겹치기·앉아서 소고치기·팔걸이·사모쟁이·제기법고·좌우로 올리기·연풍대·굿거리춤·자반뒤집기·팔벌리기·땅치기·가랑이 밑으로 소고치기 등

7) 농악의 무동춤

깨끼춤·좌우치기·찍금놀이·어르기·상하치기·겨드랑사위·한손어르기·앉은 춤·어깨 좌우로 틀기·발림·삼진삼퇴·앞으로 손짓하기

춤 등

8) 봉산탈춤의 팔먹중춤

볼림·다리들기·제자리걸음·외사위·겹사위·양사위·앉아뛰기·외사위·앉아뛰기·겹사위·연풍대·까치걸음 등

9) 봉산탈춤의 취발이춤

트림사위·걷기·근경·허리재기·발뛰기·너울질 등

10) 봉산탈춤의 첫먹중춤

등장·다리풀기·허리풀기·너울질·다리돌기 등

11) 강령탈춤의 말뚝이춤

우방진·좌방진·방진·곶사위·곤장차기·외발뛰기·코치기·고개잡이·에워뛰기·채찍놀림·이마치기·앉아뛰기 등

12) 송파산대놀이의 팔먹중춤

어르기·화장무·짚은화장무·여단이·활개퍼기·곶사위·명석말이·배치기·팔뚝잡이·거울보기·깨끼리 1·깨끼리 2 등

13) 송파산대놀이의 첫상좌춤

합장재배·사방재배·팔뚝잡이·몰아치기·덜미잡이·거울보기 등

14) 양주별산대놀이의 움중춤

팔뚝잡이·사방치기·용트림·꺼뜩이(끄덕이)·활개퍼기 등

15) 야유의 덧배기 춤

어름새·베김새·풀음새 등

16) 오광대에 있어서 덧배기춤

어름새·베김새·풀음새 등

17) 오광대의 덧배기 춤

어름새·배김새·풀음새 등

18) 북청 사자놀음의 사자춤

응꽃뽕사위·모대기치기·모걸음치기·뒗걸음치기·꽃꽃이 서기·몸
짓사위 등

19) 남사당 덧배기의 말뚝이춤

나비사위·닭이뚱사위·팔뚱고개잡이·피조리사위 등

20) 동태학춤

활개뽕사위·일자사위·돌림사위·어름사위·옆걸으마위·배김사위·
꼬아배김사위·좌우풀이사위·좌우활개사위·동근팔사위·소매걸음사
위·모음뛰기사위·모이좁는 사위 등

* 자료 : 정병호, 1993.

활동 12 누가누가 잘하나

활동개요

전통 노래와 춤, 악기가 전문 기능인에 의해서만 공연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은 청소년과 전통문화와의 거리감을 더욱 멀리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청소년들에 의한 공연은 활동기간내에 준비되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학교나 단체에서 평소 연습해 오던 씨름이나 그룹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일부에 의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관객으로 남아있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흥을 느끼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활동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축제 참가 청소년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발표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활동목표

각 조별로 반복해서 익힌 소리와 춤을 조별로 혹은 몇개의 조가 한데 어울려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서로간의 단결심을 기르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체험을 하게 한다.

준비사항

악기, 발표 의상, 분장용품 등

활동방법

- ① 노래, 춤, 악기별로 확대하여 조를 짜거나 노래와 춤, 노래와 악기, 춤과 악기 등으로 공연 조를 재구성한다.
- ② 각 공연 조별로 공연 내용을 선정한다.
- ③ 공연 내용에 적합한 의상, 분장 등을 준비한다.
- ④ 필요하면 지도자의 도움을 얻어 공연에 대비한 연습을 한다.
- ⑤ 발표시간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그동안 연습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
- ⑥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심판진을 구성하여 참가 조에 대한 시상을 한다.

유의사항

- 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면 모든 청소년들이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반드시 새롭게 조편성을 할 필요는 없고 새롭게 조편성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들 스스로에 의해 자유롭게 하게 하며 지도자는 단지 조언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 ③ 경연에 대한 평가는 기능보다는 협동심이나 열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사항

1. 민요 모음

1) 각설이 타령(자진모리) 구전민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여름바지는 솜바지 겨울바지는 홰바지
당신본께로 반갑소 내고라지 본께로 서럽소
주머니가 비어서 서럽소 곱창이 비어서 서럽소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일자리 없어서 굶어 죽을판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이판사판 사까다지판
삼자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삼일빌딩 호화판
사자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사짜기짜 잘살판

오자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오적들이 난장판
 육자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육씨문중에 장설관
 칠자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칠전 몽둥이에 불이날판
 팔자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팔자 타령이 절로날판
 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구세주가 와야할판
 십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오소 십원짜리 하나가 아쉬울판
 밥은 바빠서 못먹고 떡은 떨어져 못먹소 죽은 죽어도 못먹소 술
 은 술이술이 잘 넘어간다
 어허이 품바가 잘도현다(어허이 품바가 잘도현다) 품바하고 잘
 도현다(품바하고 잘도현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얼씨구씨구 들어간
 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줄지도 않고 또 왔소 어얼씨구씨구 들어
 간다 품바하고 잘도현다

2) 남원산성

에헤야 뒤여허 허등가 허허 등가 등가 내 사랑이로구나(받는 소리)

(1)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지니 해동
 청 보라매 떴다 봐라 저 종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우고 능
 수버들가지 휘늘어질때 꾀꼬리는 짹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꾀
 고리 수리루 음음 어허야

(2) 니가 나를 몰라면 심양강 건너가 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설마 설마 셋설마 제일친하. 니가 내 사랑이지(내
 친구지) 음음 어허야

(3) 옥양목 석자 없다고 집안에 야단이 났는데 새 보선 신고
 속없이 뛰 하러 또 내집에 왔냐 음음 어허야

(4) 앞집 큰애기 시집을 갔는데 속없는 노총각 생병났다드라
 음음 어허야

3) 농부가

두리둥둥 두리둥둥 깨갱매갱매갱매 어털랄랄 상사디여(중모리)
여어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디여(받는 소리)

(1) 여보시오 농부넌네 이네 말좀 들어보소 어허와 농부들
말들어요

신농씨 만든 쟁기 좋은 소로 앞을 매어 상하평 깊이 갈고
후직의 본을 받아 백곡을 뿌렸으니 용성의 지은 책력 하시절이
돌아왔네

(2) 이마위에 흐르는 땀은 방울방울 행기일고 호미끝에 이는
흙은 땀기땀기땀기 황금이로구나

(3) 전라도라 하는디는 신산이 비친 곳이라 저 농부들도 상
사소리를 매기난디 각기 저정거리고 더부렁거리네

(4) 인정전 달 밝은 밤 세종대왕 놀음이요 학창의 푸른 술은
산신미의 놀음이요 오뉴월이 당도하니 우리농부 시절이로다 패
랭이 꼭지에다 장화(개화)를 꽂고서 마구잡이 춤이나 추어보세

(5)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묻어 들어온다. 우장을 허리 두르
고 샷갓을 써라

어화 어화 여허루 상사디여(중중모리, 받는소리)

(1) 여보소 농부들 말들소 어허와 농부들 말들어 운담풍경
근 오천에 방화수류하여 전천으로 내려간다

(2) 다 되었네 다 되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지가 무슨 발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3) 충청도 증복송은 주지가지가 열렸고 강릉땅 감대추는 아
그대 다그대 열렸단다

(4) 우리가 농사를 어서지어 팔구월 추수하여 우격지격을 스
려돌여다가 물 좋은 수양수출 땔그당땔 방아를 찧자

(5) 떠들어온다 점심 바구니 떠들어 온다

4) 돈타령(양산도)

돈돈돈 돈에 돈돈 악마의 금전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서로 사랑하다가
둘이 둘이 사랑하다 못 살겠거든 맑고 푸른 한강수에 풍덩 빠져서
너는 죽어서 화초가 되고 나는 죽어서 훨훨 날으는 벌 나비가 되어
내년 삼월 춘삼월에 꽃피고 새가 올 때 당신 품에 안기거든 난
줄 아소서

5) 뱃노래(굿거리)

여기야 디여차 여기야 디여 여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받는소리)
(1) 부딪히는 파도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 소리 처량도 하구나
(2) 하늬바람 마파람아 맘대로 불어라 키를 잡은 이 사공이 갈 곳이 있단다
(3) 닻을 놓고 노를 저으니 배가 가느냐 알심없는 저 사공아 닻 걸어 올려라
(4) 밀물 썰물 드나드는 세모래 사장에 우리님이 달고 간 발자취 내 어이 알소냐

6) 사랑가(굿거리)

(1) 사 사랑을 할려면 요 요렇게 한단다 요내 사랑 변치말자
굳게굳게 다진 사랑 어화 둥당기 내사랑 둥당가 둥당가 덩기 둥당기
내사랑 꽃과 나비 너울너울 춤을 추고 우리네 사 사랑은 아이가이가 두둥실 좋을씨고
(2) 다 당신은 내사랑 아이 알뜰한 내사랑 일편단심 변치말자
굳게굳게 다진 사랑 어화 둥당기 내사랑 둥당가 둥당가 덩기 둥당기
내사랑 너를 보면 신바람이 절로 나고 너를 마 만나면 아이가이가 두둥실 좋을씨고

7) 어디로 가야 하나(중모리)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나
실안개 피는 언덕넘어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나
밤은 깊고 설움질어 달빛도 무거운데
가다보면 잊을까 넘다보면 잊을까
인생고개 넘어넘어 가다보면 잊을까

8) 옹헤야(자진모리)

에헤헤레 옹헤야 어절시구 옹헤야 자도현다 옹헤야(받는소리)
(1) 옹헤야 옹헤야 어절시구 옹헤야 저절시구 옹헤야 잘도현
다 옹헤야
(2) 철뚝넘어 옹헤야 메추리란 늪이 옹헤야 보리밭에 옹헤야
알을 낳네 옹헤야
(3) 앞집금순 옹헤야 뒷집복순 옹헤야 서로만나 옹헤야 정담
현다 옹헤야
(4) 정월보름 옹헤야 달 밝은 밤 옹헤야 줄다리기 옹헤야 신
명난다 옹헤야
(5) 구월시월 옹헤야 보리심어 옹헤야 동지설달 옹헤야 싹이
난다 옹헤야
(6) 이월삼월 옹헤야 보리패니 옹헤야 시월오월 옹헤야 타작
현다 옹헤야
(7) 이논배미 옹헤야 어서심고 옹헤야 각 집으로 옹헤야 돌
아가세 옹헤야
(8) 풋고추에 옹헤야 다된장에 옹헤야 보리밥 찰밥 옹헤야
많이먹자 옹헤야
(9) 일락서산 옹헤야 해 떨어지고 옹헤야 월출동령 옹헤야
달솟는다 옹헤야

9) 정선아리랑(중모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받는소리)

(1) 눈이 올려나 비가 올려나 억수장마 질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2)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가 왜 피나 모 춘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가 왜 우나

(3) 정선읍내 일백오심호 동땅 잠들여 농곳 이호장네 만며느리 데리고 성마령을 넘자

10) 타박네야(느린 자진모리)

타박 타박 타박네야 너어드메

- 울고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산이 높아서 못간단다 산이높으면 기어가지 물이 깊어서 못간단다 물깊으면 헤엄치지

명태 줄까 명태싫다 가지줄까 가지싫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우리 엄마 무덤가에 기어기어 와서보니 빗갈 좋고 탐스러운 게 똥참외 열렸길래

두 손으로 떠서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 게주던 젓말일세

명태 줄까 명태싫다 가지줄까 가지싫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2. 판소리와 단가 모음

1) 이산저산(단가, 허두가)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마는 세상사 쓸쓸허드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헌들 쓸 데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

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하여, 제 절개를 굽히지 않은 황국 단풍도 어찌현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 바람에 백설만 펼 펼 휘날려 온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 허니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벗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 보소. 인간이 모두가 팔십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허면,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망상당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지수는 불여생전일배주 만도 못 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그나. 늘어진 계수나마 끝끝어리다가 대량 매달아놓고 국곡투식 허는 놈과 부모 불효허는 놈과 형제화목 못 허는 놈, 차례로 잡어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 버리고, 나머지 벗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들 먹게”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2) 사랑가 - 춘향가 중에서

(아니리)

“도령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말썽난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답도 허고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데,

(중중모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이이히이 내 사랑이로다. 아매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등글등글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능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 버리고, 붉은 점 읊푹 떼 반간진수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굴병 사탕의 혜화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

으랴느냐. 당동지지루지 하니 외가지 단 참외 먹으려느냐? 시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 도령 스는디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저리 가거라, 뒤탄을 보자, 이리 오너라, 앞냄을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긔 웃어라, 잇속을
보자. 아매도 내 사랑아.”

(아니리)

“이애,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느니 너도 날 좀 업어다고.”,
“도령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령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는단 말씀이요?”, “애야, 내가 널다려 날 무겁게야 업어 달라
더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
에 천지 우락 장막이 다 들었느니라.” 춘향이가 도령님을 업고
노는디 파접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놀것다.

(중중모리)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둥둥 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령님을 업고 보니 좋을 ‘호’자가 절로나. 부용작약의
모란화 탐화봉접이 좋을시고. 소상동정 칠백리 일생 보아도 좋
을 ‘호’로고나,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령님이 좋아라
고, “이애,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허니 ‘정’자 노래
를 들어라. 담담장강수 유유원객정 하교불상송허니 강수의 원함
정 송군남포불승정 무인불견송아정 하남 태수의 회유정 삼태육
경의 백관조정, 주어 인정 복없어 방정, 일정실정을 논정허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양인심정이 탁정타가 만일
파정 되거드면 북통절정 걱정되니, 진정으로 완정허잔 그 ‘정’자
노래라

(아니리)

“아이고 우리 도령님 말씀도 잘도 하시네”, “어지 그것 뿐이
라. 또 ‘궁’자 노래 한번 들어 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나 너와나와 둘이 있는데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자진모리)

‘궁’자 노래를 들어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초분천지개탁후
웅장허다 창덕궁 강태공의 조작궁 진시황의 아방궁 진진허구나
홍문연 들어간다. 번패자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애, 춘향
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와.’, ‘아이고 부끄러워 나
는 못 가겠소.’, ‘아서라 이 제집, 안될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잡자자.’ 와락 뛰어 달려들어 저고리, 치마, 속적삼 벗겨, 병풍위
의 걸어 놓고, 덩똥똥 법중 ‘여’로다. 초동 아이 낫자루 잡듯,
우악한 놈 상투 잡듯, 양각 취어드니, 베개는 우그로 솟구치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고나. 병풍이 우당탕탕.

(단중모리)

이리 한참 요란할 제 말하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3) 돈타령 - 흥부가 중에서

(중모리)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궤문을 덜컹 열고 돈 닷 냥을 내여
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
오. 잉” 박흥보 좋아라고 질청 박을 썩 나서며, “얼씨고나, 얼
씨고나, 돈봐라, 도돈돈돈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
면 삼강 오륜이 다 보여도, 조금 있다가 떼고 보면 보이난 게
돈 밖으는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
서 떡국 반푼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돈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드리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
장부 한번 걸음에 엽전 서른 닷 냥이 떠들어올 간다.” 저의 집
으로 들어오며,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
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율
제, 제집이 이 사람아, 당돌히 앉아서 좌이부동이 웬말인가? 예
라 이 사람, 몫쓸 사람.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박홍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 못 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놓아 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의 근본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상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을 가진 돈, 이놈의 돈아, 아 나 돈아 어딜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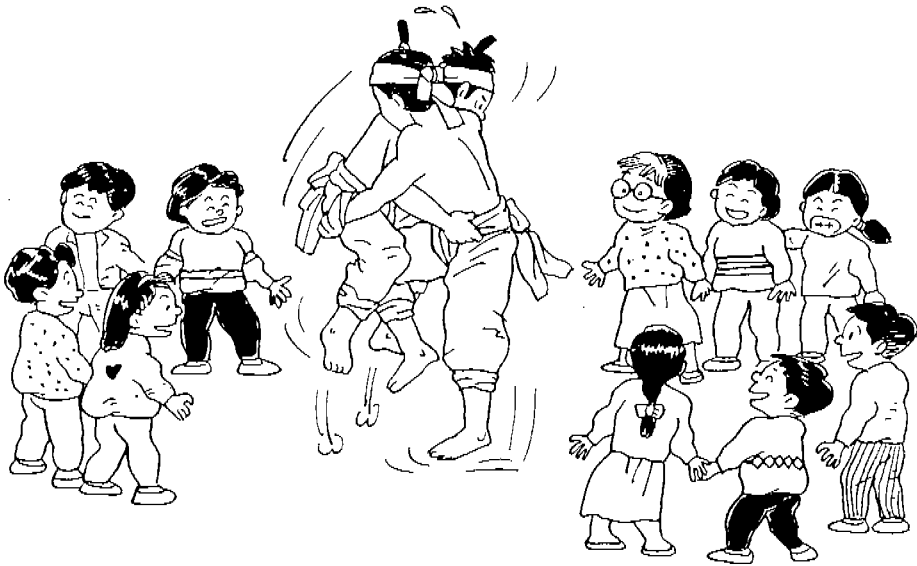
4) 쑥대머리 - 춘향가 중에서

(중모리)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의 찬 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 낭군을 보고 지고, 서방님과 정별후 일장서.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글 공부에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연이신혼 금슬우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계궁항아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저. 막왕막내 막혔으니 앵무서를 내가 어찌 보며 전전반칙 납뽕 이루니 호접몽을 꿀 수 있나. 손가락의 피를 내어 사정으로 편지허고, 간강의 썩은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볼까. 이 화일지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우문령단장성에 비탄 많이 와도 임의 생각 녹수부용채련여와 제룡망체에 뿔따는 여인네들도 낭군 생각 일반이라. 날보다는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뿔을 따고 연 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령님을 못 보고 옥중고혼이 되거드면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나. 방성통곡의 울음을 운다.

* 자료 : 봉천놀이마당, 1994.

놀이마당



춤과 놀이를 동시에
우리의 명예를 걸고

여울에 몰린 은어떼.

빼비꽃 손들이 들레를 짜면
달무리가 비잉 빙 돈다.

가아웅 가아웅 수우워얼 레에
목을 빼면 설음이 솟고...

백장미 발에
공작이 취했다.

뛰자 뛰자 뛰어나 보자
강강술래.

뇌누리에 테포가 감긴다.
열두 발 상모가 마구 돈다.

달빛이 배이면 술보다 독한 것

기폭이 찢어진다.
갈대가 스러진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 강강술래(이동주) —

활동 13 춤과 놀이를 동시에

활동개요

우리 나라의 민속놀이는 민족의 수난과 노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춤과 노래 등을 동반한 놀이를 통하여 단결된 지혜를 보여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민속놀이는 일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싸움터에서의 용기와 단합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놀이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단지 발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민속놀이는 중요한 시사가 된다고 보여진다.

본 활동에서는 민속놀이 중에서 춤과 노래 등을 동반 놀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로 하여금 춤과 노래 등을 동반한 민속놀이를 하게 함으로써 민속놀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소년들간의 협동정신을 기른다.

□ 유 래

강강술래는 호남지방의 특유한 민속놀이의 하나로서 해마다 음력 8월 한가윗날 달 밝은 밤에 곱게 단정한 부녀자들이 수십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늘어서서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면서 뛰어노는 놀이이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목청이 좋은 여자 한 사람이 그 둘레 가운데 서서 앞소리(선창)를 하면 다른 일동이 뒷소리(합창)로 후렴을 부르면서 춤을 추며 돌아간다.

이 놀이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390년 전 임진왜란 때 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수병을 거느리고 왜군과 해전을 하였을 때 적군에게 해안을 경비하는 군세가 많아 보이게 하고 또 적군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창안해 낸 춤으로 알려졌다. 이 춤은 특히 전지 부근의 부녀자들이 수십명씩 떼를 지어 해안 근처의 산에 올라 곳곳에 불을 놓아 돌면서 ‘강강술래’ 노래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 뒤 전쟁이 끝나자 그 곳 해안 부근의 부녀자들이 당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8월 한가윗날 밤을 택하여 하나의 연중행사로서 강강술래의 노래를 부르며 뛰고 놀면서 놀이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행사가 점점 호남지방 일대에 퍼져서 지금은 그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가 되었다.

* 자료 : 홍일식 외, 1982.

□ 진 행 방 법

강강술래는 다양한 종류의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강강술래는 해남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8호)로 늦은 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잣은 강강술래, 남생이 놀이, 고사리 꺾기, 청어엮기, 풀기, 덕석몰이, 풀기, 지와밧기, 대문 열기, 권취잡기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놀이를 늦은 강강→중 강강→작은

강강→남생이 놀이, 고사리 꺾기→청어엮기, 풀기→덕석 몰이, 풀기, 지와밟기→대문 열기→권쥐 잡기, 남생이 놀이 고사리꺾기→청어엮기, 풀기, 덕석 몰이→지와 밟기→대문 열기 등으로 묶어서 각 조별로 나누어 연습하도록 한다.

▲ 늦은(진) 강강술래

- ① 양옆 사람의 손을 잡아 둥글게 원을 만들고 몸은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돌려 앞사람의 등을 바라보는 형태로 비껴선다.
- ② 목청 좋은 선 소리꾼이 진양조로 선창을 하면 놀이꾼들은 “강강 술래”라고 받는 소리를 하며 가락에 맞춰 천천히 걸어 나간다.
- ③ 오른발부터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앞으로 내딛는다. 이때 강(오른발), 강(왼발), 술(오른발), 래(왼발) 순으로 박자를 맞춘다.

▲ 중 강강술래

- ① 선 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을 메기면 놀이꾼들은 “강강술래”라고 받는 소리를 하며 손을 아래위로 흔들면서 어깨춤 추기 좋게 원을 넓힌다.
- ② 늦은 강강술래와 같은 방법으로 걷되 빨라진 가락과 넓어진 원의 크기를 고려하여 넓은 보폭으로 빨리 신나게 걷는다.

▲ 잣은 강강술래

- ① 선 소리꾼이 “뛰어보세 뛰어보세”하고 자진모리 가락으로 선창을 하면 놀이꾼들은 “강강술래”라고 소리를 받으면서 양팔을 쭉 뻗쳐 원을 넓히며 뛰기 시작한다.
- ② 앞뒤 사람과 손이 끊이지 않게 손을 단단히 잡고 뛰는 속도와 보폭을 조절하며 신나게 뛰는다.

▲ 남생이 놀이

- ① 잣은 강강술래를 하다가 지치면 선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으로



로 “남생아 놀아라”를 선창한다.

- ② 다른 사람들은 발걸을 늦추면서 이를 되받아 부르며 천천히 계속 돈다.
- ③ 빙글빙글 돌고 있는 대열에서 2-3명이 원 안으로 뛰어 들어 “절래절래 잘 논다”를 부르며 갖가지 춤을 춘다. 주로 곱사춤, 궁둥이춤, 아장거리는 춤을 춘다.
- ④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추는 춤을 즐기면서 중중모리 가락에 맞춰 원무를 계속한다.

▲ 고사리 꺾기

- ① 선소리꾼이 “고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를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은 “유자 쿵쿵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며”로 받아 부르며 원무형태 그대로 손을 잡고 앉아 어깨만 돌췌인다.
- ② 선두로 정해진 사람이 일어나 오른쪽 사람과 잡은 손을 놓고

왼쪽 사람과 잡은 손위를 넘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차례로 그 다음 사람들의 잡은 손 위를 넘어 진행한다.

- ③ 두번째 사람은 선두가 잡은 손에 이끌려 세번째 사람과 잡은 손부터 넘어간다.
- ④ 이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씩 끝까지 넘어 다시 둥근 원을 만든다.

▲ 청어 엮기, 풀기

- ① 고사리 꺾기가 끝나면 선소리꾼이 “청청 청어엮기 위도군산 청어엮자”라는 노래를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이를 되받으며 제자리에 선 채 서로 잡은 손만을 위아래로 흔든다.
- ② 선두로 지정된 사람은 오른손(왼손)을 놓고 둘째 사람과 잡은 왼손(오른손) 밑으로 꿰어간다. 이어서 둘째 사람과 셋째 사람이 잡은 손 밑으로 꿰어간다.
- ③ 선두를 따라 이렇게 한 사람씩 차례로 꿰어간다.
- ④ 다 꿰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왼손(오른손)이 오른쪽(왼쪽) 어깨 위로 감기게 되어 마치 청어를 꼬리로 엮은 모습과 흡사하게 된다.
- ⑤ 청어엮기가 끝나면 선소리꾼이 “청청 청어풀자 위도군산 청어풀자”를 부르면 엮을 때와는 반대로 풀어진다.
- ⑥ 한 사람씩 팔을 풀어 다시 둥근 대형이 되게 한다.

▲ 덕석몰이/덕석풀기

- ① 청어풀기가 끝나 다시 원형이 되면 선소리꾼이 “몰자 몰자 덕석몰자”를 선창한다.
- ② 선두로 지정된 사람은 오른쪽 사람과 잡은 손을 놓고 왼쪽으로 원을 그리고 돌면서 중심을 잡아간다.
- ③ 다른 놀이꾼들은 노래를 받아 부르며 선두를 따라 차례로 멍석을 말듯 돌돌 말아간다.
- ④ 덕석이 다 말아지면 선소리꾼이 “풀자풀자 덕석풀자”를 선창한다.



- ⑤ 다른 놀이꾼들은 이를 되받으면서 말 때와는 반대로 외곽 사람이 돌면서 풀어간다.

▲ 지와밧기

- ① 덕석풀기가 끝나고 둥근 원무상태가 된 채 돌다가 선소리꾼이 “어덧골 지원가, 장자 장자풀 지와세”라고 선창하면 선두가 앞사람과 잡은 오른 손을 놓고 일렬로 풀고 나간다.
- ② 다른 사람들도 이 노래를 되받으면서 선두를 따라 일렬로 뛰어 간격을 좁힌다.
- ③ 놀이꾼이 한줄이 되면 선소리꾼은 노래를 바꾸어 낮은 자락으로 “뽕자 뽕자 지와를 뽕자”라는 노래를 한다(혹은 “지와밧세”라고 소리를 지른다).
- ④ 모든 소리꾼들은 잡은 손을 놓고 허리를 굽혀 앞사람의 허리 부분에 오른쪽 뺨을 대면서 두 팔로 허리를 껴안는다.
- ⑤ 끝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사람은 좌우로 갈라서서 맨끝 사람이

일렬로 구부린 사람들 위로 올라서는 것을 도와준다. 손을 잡아 주어 등을 밟고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부축해 준다.

- ⑥ 허리를 굽힌 사람들이 “어딴골 지와가”를 노래하면 밟고 가는 사람은 “장자골 지와세”라 응송하며 조심스럽게 등위를 밟아간다. 다 밟고 지나가면 내려서 맨앞에 허리를 구부린다.

▲ 대문 열기

- ① 지와밟기가 끝나면 선소리꾼이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를 선창한다.
- ② 양쪽 옆에서 부축해 주던 두사람이 대열의 앞쪽으로 나와 손을 마져 뻗쳐 잡고 문을 만든다.
- ③ 나머지 놀이꾼들은 허리를 잡은 채 일렬로 정리하며 늘어선다.
- ④ 놀이꾼 전원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라고 흥겹게 노래하며 이 문속을 꿰어간다.
- ⑤ 문지기가 된 사람들은 “열쇠없이 못 열겠네”라는 노래로 답한다.

▲ 권취잡기

- ① 대문열기 놀이가 끝난 후 선소리꾼이 “권취새끼 찢룩 찢룩 가사리 벗이여”를 노래하면 다른 놀이꾼들은 이를 되받으면서 일렬로 재정렬한다.
- ② 선소리꾼이 “권취새끼 잡세”하고 소리지르면 모든 소리꾼들은 “위 — “ 소리를 외치면서 앞사람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는다.
- ③ 선두는 맨 끝사람을 잡으려 쫓는다.
- ④ 잡힌 사람을 맨 앞으로 끌고 와서 앞세우고 선두를 목마에 태워 돌게 한다. 잡는데 수고한 선두를 이렇게 위로한다.
- ⑤ 이 때 선소리꾼은 “잡았네 잡았네 권취새끼를 잡았네. 콩하나 땡졌드니 콩차두 풋차두 되었네”라는 노래를 부른다.
- ⑥ 다른 놀이꾼들은 이를 되받으면서 허리를 잡고 구부린 채 목

동해동창 달떠온다/강강술래/ 강호방은 어디가고/강강술래/
 저-달이 뉘달인가/강강술래/ 저달뜬줄 모르는가/강강술래/

2. 중 강강술래 가락

(첫소리)

강 강 - 수 술 래 강 강 - 술 래
 나주영산 전술목에 온조가씨 팔에-걸고
 치추개는 지근아가 니어칠이 너여-디나
 내아길들 밧을라면 갓은구를 강술-목에
 명두칸 지와집여 아-롱한 대복-발여
 화초병종 물려-치고 니키여사 팔팔-걸고
 영고형고형 고소리들고 고소리들고날 찾아-모게

3. 늦은 강강술래 가락

(첫소리)

강 강 - 술 래
 1. 뛰 어 보 세 뛰 어 보 세 2. 옥 신 옥 신 뛰 어 나 보 세
 3. 열 은 마 상 깊 어 지 고 4. 깊 은 마 상 열 어 나 기 게

강강술래/강강술래/

뛰어보세 뛰어보세/강강술래/ 먼데사람 듣기좋고/강강술래/
 옥신옥신 뛰어보세/강강술래/ 곁에사람 보기좋게/강강술래/

4. 남생이 놀이 가락

절 래 절 래가 잘 논 다

(앞소리)

남 생 아 놀아 - 라 남 생 아 놀아 - 라 -

남 - 생 아 - 놀아 - 라 남 생 아 놀아 - 라

5. 고사리 꺾기 가락

(뒷소리)

고 사 리 대 사 리 꺾 자 나 무 대 사 리 꺾 자

옥 자 롱 톱 재 더 나 녀 - 자 아 장 장 장 별 이 더

(앞소리)

꺾 자 꺾 - 자 고 사 리 대 사 리 꺾 자

수왕산고사리 꺾 어 다 가 우 리 아 배 반 찬 하 세
 지리산고사리 꺾 어 다 가 우 리 어 땀 반 찬 하 세

6. 청어 엮기, 풀기 가락



청 청 청 어엮자. 위 도관 산 청 어엮자



청 청 청 어풀자 위 도관 산 청 어풀자

7. 덕석몰이/덕석풀기 가락



몰자몰자 덕석몰자 비 온다 덕석몰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별 난다 덕석풀자

8. 지와밧기 가락



어 디골 지-완-가 잠자잠자골 지와세



봄자봄자 기와돌봄자 봄자봄자 기와돌봄자



어 디골 지-완-가 잠자골 지와세

어 디골 지-완-가 천라도 지와세

몇 닷남 쳇-느-가 스물닷남 쳇-네

9. 대문열기 가락



10. 천취잡기 가락



* 자료 : 심우성, 1990. 한승희·이혜연, 1993. 임번장 외, 1994.

□ 유 래

놋다리밟기는 지금으로부터 6백여년 전 고려 31대 恭愍王(A. D. 1352~1374)이 왕비인 노국공주와 함께 안동지방에 播遷왔을 때 그 고을 백성들은 남녀노소가 총출동하여 왕 일행을 영접하였다. 이 때 안동으로 들어오는 시내에는 물이 흐르므로 고을 원은 성신을 다하여 정중히 맞이하기 위하여 젊은 부녀자들로 하여금 그 시내 위에 일렬로 늘어 엮드리게 하여 사람다리를 놓아 노국공주를 지나가게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고을 부녀자들은 당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새해 명절인 정월 대보름날 밤을 택하여 이 ‘놋다리밟기’를 하여 왔고, 그 후 하나의 연중행사가 되었다.

이 놀이는 안동·의성 지방을 비롯하여 광주·이천·영주·상주·동래·사천·천안·논산·완주·금산·남원·정읍·김·군산·광주·순천·보성·화순·담양·장성·함평·영광·완도·정선 등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음을 본다. 이것은 후대에 와서 이 놀이의 발생지인 안동·의성 지방의 부녀자들이 각 지방에 이동(이주·출가 등으로)함에 따라 각 지방에 전파된 것이라고도 생각된다(홍일식 외,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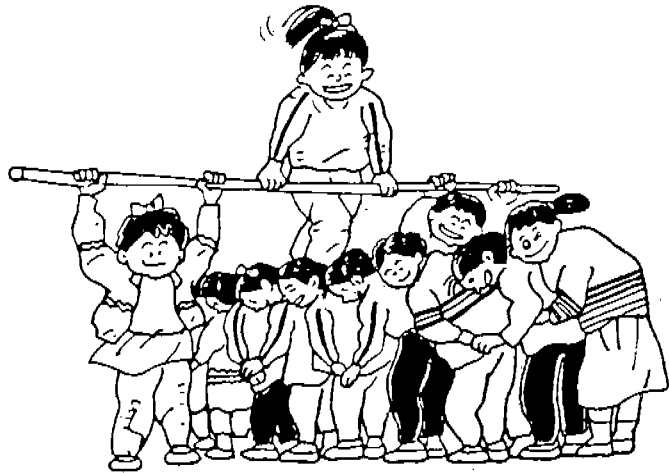
이 놀이는 상원날 저녁 부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에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여들어 시작되며, 놀이 지역은 금남의 지역으로 선포된다. 부녀자들이 모두 일렬로 늘어선 허리를 굽힌 뒤 앞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고개는 앞 사람 궁둥이에 대고 왼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미리 선발하여 치장을 한 동자와 공주가 굽힌 등 위를 노래에 맞추어 걸어가게 한다. 공주가 자기 등을 밟고 지나가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굽혀서 열이 그치지 않게 한다. 경우에 따라 놋다리패는 여러 개가 있어 서로 만나기도 하고, 길도 비켜주면서 밤이 늦도록 이 놀이를 즐긴다(자료: 신준호, 1991).

이 놀이는 반복하면서 즐겁게 노는 것이 특징이다. ‘강강술래’가 전라도 특유의 여성민속놀이라면 이 ‘놋다리밟기’는 경상도 특유의 여성민속놀이이다. ‘강강술래’는 놀이가 발달하면서도 율동적인 요

소가 많은 반면에 ‘놋다리밟기’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고 차분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 진행 방법

- ① 여러 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각각 한줄로 늘어선다.
- ② 각 조별로 다리를 건널 한 사람과 보조자 두 사람을 골라낸다.
- ③ 나머지는 허리를 굽히고 앞 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고개는 앞 사람 궁둥이에 대고 왼쪽으로 돌린다.
- ④ 준비 신호가 있으면 다리를 건널 사람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맨 뒷사람의 등에 서며 전원은 노래를 부른다.
- ⑤ 노래에 맞추어 양쪽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등을 밟고 건넌다.



- ⑥ 다 건너면 건넌 사람은 맨 앞에서 다시 다리를 만들고 부축했던 두 사람은 맨 뒤쪽으로 가 계속해서 한 사람씩 건넌다.

- ⑦ 여러 조가 서로 비켜가거나 한데 모여 큰 다리를 만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놀이를 한다.

□ 유 의 사 항

1.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허리를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허리를 꼭 잡고 등을 붙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한다.

□ 참 고 사 항

1. 뚝다리밟기의 특징

- ① 등, 서부로 편을 지어 놀지만 같은 안동지방의 동채싸움과는 달리 서로 몸을 맞부딪쳐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 ② 여성들만의 놀이로 남자는 일체 참가하지 못함은 물론 구경까지 못하게 한다.
- ③ 다른 민속놀이에서 흔히 보이는 기풍(祈豊), 제액(除厄) 등의 요소가 전혀 없다.

2. 뚝다리 노래

어느운에 뚝다리로/정계산에 뚝다릴세/이터전이 뉘터이로/나라님의 옥터일세/이기와가 뉘기와노/나라님의 옥기왈세/그어디소 손이왔노/경상도서 손이왔네/무슨꼭게 싸여왔노/어깨꼭게 싸여왔네/멧대간을 밟아왔노/선대칸을 밟아왔네/무슨옷을 입고왔노/백마사주 입고왔네/무슨바지 입고왔노/지죽바지 입고왔네/무슨띠를 띠고왔노/광목띠를 띠고왔네/무슨버선 신고왔노/타래버선 신고왔네/무슨행전 치고왔노/자지행전 치고왔네/무슨신을 신고왔노/봉만화를 신고왔네/무슨갓을 쓰고왔노/통양갓을 쓰고왔네/무슨망근 쓰고왔노/외울망근 쓰고왔네/무슨풍잠 달고왔노/옥각풍잠 달고왔네/무슨관자 달고왔노/옥관자를 달고왔네/무슨동곳 꼽고왔노/산호동곳 꼽고왔네/무슨갓끈 달고왔노/구슬갓끈 달고왔네/무슨도포 입고왔노/남창의를 입고왔네/손이시러 어이왔노/양모토시 끼고왔네/귀가시러 어이왔노/수피휘양 쓰고왔네/입이시러 어이왔노/모개쪽을 물고왔네/물이깊어 어이왔노/인다리를 밟아왔네/무슨말을 타고

왔노/배대마를 타고왔네/무슨안장 실고왔노/순금안장 실고왔네/
무슨반에 채려주동/재죽반에 채려주데/멧접시를 채렸더노/칠첩으
로 놓였더네/어데다가 밥담았동/식기굽에 담아주데/어데다가 반찬
주동/접시굽에 담아주데/어데다가 김치주동/중발굽에 담아주데/
어데다가 송응주동/삼칭쟁반 굽쟁반에/뚜에엎어 갔다주데/놋다리
야 놋다리야

* 자료 : 김신일 외, 1992. 심우성, 1990. 이영숙 외, 1992.

□ 유 래

우리 나라의 탈놀이의 기원에 관해서는 산대회 기원설, 기악 기원설, 제의 기원설의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산대회 기원설은 궁중의 나례와 산대잡희에서 산대잡극이 나오고, 다시 서울 근교의 산대놀이, 서해의 탈춤 등 산대극으로 이전했다는 설이고, 기악 기원설은 백제 사람 미마지(味摩之)가 중국 오나라에서 배워다가 일본에까지 전수한 기악이 현전하는 산대놀이, 탈춤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이며, 제의 기원설은 탈놀이의 기원을 (연극적) 제의로부터 구하는 설로 논자에 따라서 원시제전 기원설, 농악굿(서안굿) 기원설, 무당굿 기원설로 다시 나뉜다. 이들 가운데서 근래에 와서 보다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제의 기원설이며, 특히 농악 기원설이 주목되어 왔고 최근에 등장한 무당굿 기원설이 이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리라는 개연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탈놀이의 유형으로는 하회별신굿놀이, 강릉 관노탈놀이, 북청 사자놀음 등이 있는데 일정한 지연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존속하며, 마을의 안녕과 생산의 풍요를 비는 뜻에서 연행되었다.

*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1987.

□ 진 행 방 법

- ① 탈춤 연기가 가능한 전문가를 지도자로 모신다.
- ② 배우게 될 탈춤의 유래 및 의의 등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한다.
- ③ 탈춤의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본 동작과 춤사위를 익힌다.
- ④ 각자 탈춤에서 한 역할을 맡아 음악에 맞추어 춤동작과 함께 연기한다.
- ⑤ 하나의 과정이 끝난 후 바꾸어 연기를 한다.
- ⑥ 다 함께 탈춤을 춘 후, 서로의 연기를 평가하고 느낌을 나눈다.

□ 유 의 사 항

- ① 너무 형식에 얽매여 청소년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탈을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참 고 사 항

〈전국 탈춤의 연희 내용〉

탈 춤 이 름	탈춤의 마당별 제목
봉산탈춤	첫째마당, 4상좌춤 둘째마당, 8목중춤 첫째 거리, 목중춤 둘째 거리, 범고놀이 셋째마당, 사당춤 넷째마당, 노장춤 첫째 거리, 노장춤 둘째 거리, 신장수춤 셋째 거리, 취발이춤 다섯째마당, 사자춤 여섯째마당, 양반춤 일곱째마당, 미알춤
강령탈춤	첫째마당, 사자춤(원승이춤 포함) 둘째마당, 말뚝이춤(일명 첫목춤) 셋째마당, 목중춤 넷째마당, 상좌춤 다섯째마당, 양반춤 여섯째마당, 노승춤 첫째 거리, 8목중춤 둘째 거리, 노승춤 셋째 거리, 취발이 춤 일곱째마당, 미알할미·영감춤
온을탈춤	첫째마당, 사자춤 둘째마당, 헛목(상좌) 춤 셋째마당, 8목중춤 넷째마당, 양반춤 다섯째마당, 노승춤 여섯째마당, 영감·할미광대춤

탈춤 이름	탈춤의 마당별 제목
동래들놀음	앞놀이 군부마당 첫째마당, 문둥이마당 둘째마당, 양반마당 셋째마당, 영노마당 넷째마당, 할미마당
하회별신굿 탈놀이	강신(降神) 첫째마당, 주지놀음 둘째마당, 삼석놀음 셋째마당, 과거승마당 넷째마당, 양반·선비마당 다섯째마당, 살림살이 마당 여섯째마당, 살생마당 일곱째마당, 환재마당 여덟째마당, 혼례마당 아홉째마당, 신방마당 헛천 거리굿
양주별산대놀이	길놀이(거리굿) 서막고사 첫째마당, 상좌춤 둘째마당, 움중과 상좌 셋째마당, 목중과 움중 넷째마당, 연잎과 눈썹적이 다섯째마당, 8목중 첫째 거리, 엄불놀이 둘째 거리, 침놀이 셋째 거리, 애사당 법고놀이 여섯째마당, 노장 첫째 거리, 과거승놀이 둘째 거리, 신장수놀이 셋째 거리, 취발이놀이 일곱째마당, 샌님 첫째 거리, 의막사령놀이 둘째 거리, 포도부장놀이 여덟째마당, 신할아버와 미얄할미

탈춤 이름	탈춤의 마당별 제목
송과산대놀이	첫째마당, 상좌춤 둘째마당, 음중과 먹중 셋째마당, 연잎과 눈끔적이 넷째마당, 애사당 복놀이 다섯째마당, 8덕중 곤장놀이(염불놀이) 여섯째마당, 신주부 침놀이 일곱째마당, 노장춤 여덟째마당, 신장수놀이 아홉째마당, 취발이놀이 열째마당, 말뚝이·의막사령놀이 열한째마당, 섯님·미알할미·포도부장 열둘째마당, 신할아비와 신할미
통영오광대	첫째마당, 문둥이탈 마당 둘째마당, 풍자탈(말뚝이탈)마당 셋째마당, 영노탈 마당 넷째마당, 농창탈(제대각시탈)마당 다섯째마당, 포수탈마당
고성오광대	첫째마당, 문둥광대 마당 둘째마당, 오광대 마당 셋째마당, 승무마당 넷째마당, 비비(영노)마당 다섯째마당, 제밀주마당
가산오광대	첫째마당, 오방산장무 둘째마당, 영노마당 셋째마당, 문둥이마당 넷째마당, 양반마당 다섯째마당, 중마당 여섯째마당, 할미와 영감마당 파지굿(뒤놀이)
덧뵈기	첫째마당, 마당씻이 둘째마당, 움탈잡이 셋째마당, 섯님잡이 넷째마당, 먹중잡이
수영들놀음	앞놀이 군무마당 첫째마당, 양반마당 둘째마당, 영노마당 셋째마당, 영감·할미마당 넷째마당, 사자마당

□ 유 래

사물놀이는 우리 조상들이 제의를 갖거나 축제를 벌이는 등 여럿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면 항상 등장하여 흥겨운 가락을 선사하던 풍물가락에서 파생되어 기교를 더하며 전파된 우리의 가락이다 (한승희·이혜연, 1993).

1978년 김용배(뽕과리), 김덕수(장고), 이광수(북), 최중실(징) 넷이서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첫 발표회를 갖게 되었을 때 단체 이름이 없어 고민하던 중 풍물에서의 ‘사물’(민사물: 뽕과리, 징, 북, 장고, 절사물: 법고, 운판, 목어, 대종)에다 우리 전통 예능 이름 끝에 잘 붙는 ‘놀이’를 붙여 사물놀이로 되어 ‘공간사랑’에서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후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물놀이’란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풍물패가 생겼고, 현재에는 뽕과리, 징, 북, 장고의 ‘사물’ 뿐만 아니라 ‘소고’나 ‘날라리’가 합세해도 5-6인이 어울리는 규모가 작은 패거리나 그 패거리가 연주하는 풍물을 분별없이 ‘사물놀이’라 부르기에 이르렀다

□ 진 행 방 법

- ① 사물 놀이 전문가를 지도자로 모신다.
- ② 사물놀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
- ③ 각자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가락과 장단을 익힌다.
- ④ 네개의 악기가 한조를 이루어 연습을 한다.
- ⑤ 노래에 맞추어 공연을 한다.

□ 유 의 사 항

- ① 설명은 간단히 하고 실습 위주로 한다.
- ② 중간 중간에 일부 연주 가능한 사람을 참여시켜 끝까지 공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참 고 사 항

1. 팽과리

소금(小金) 또는 팽매기라고도 한다. 낫쇠로 얇게 만들어서 사물 중에서 덩치가 제일 작으면서도 소리는 아주 크다. 그래서 팽과리 치는 사람이 풍물놀이나 사물놀이에서는 가락과 진풀이를 엮어나가는 지휘자의 역할을 맡는다. 둥글고 납작한 나무조각을 끝에 달아서 채로 쓴다. 팽과리를 다루는 기술 중에 ‘막음새’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팽과리를 들고 있는 손의 손가락을 팽과리의 뒤쪽에 넣어 소리의 여운을 조절하는 것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기술이다.

2. 징

징은 금(金)이라고도 하는데 낫쇠를 두툼하게 두드려서 만들며 나무막대기 끝에 천을 두툼하게 감은 채로 치므로 소리 역시 여운이 길고 꾸밈하다. 사물들 중에서 단연 어머니 격이라 할 수 있다. 자주 치지 않고 장단의 머리박에 한 번씩 쳐 주면서 전체 가락을 푸근하게 감싸준다.

3. 장구

허리가 가늘다고 해서 세요고(細腰鼓) 혹은 발음하기 좋게 장구라고도 한다. 팽과리가 천둥, 징이 바람, 북이 구름이라면 장고는 비라고 부른다. 요즘은 주로 오동나무를 깎은 통에 개가죽, 말가죽, 소가죽, 염소가죽 등을 양쪽에 씌워서 양 손에 채를 들고 친다. 음이 높게 나는 쪽의 가죽을 열편(채편), 낮게 나는 쪽의 가죽을 궁편(궁글편)이라고 하는데 그 가죽들을 치는 채를 각각 열채, 궁채(궁글채)라고 한다. 장고는 우리 나라의 전통음악 중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쓰임새와 역할이 다양하다.

4. 북

팽과리와 징이 쇠로 만든 악기라면 북은 장고와 더불어 가죽 악기에 해당한다. 소나무와 오동나무로 만든 튼튼한 통에 소가죽을 매서 박달나무나 물푸레 나무를 깎아 만든 채로 친다. 북이 제대로 기동을 세워 나가야 팽과리와 장고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

* 자료 : 한승희·이혜연, 1993.

활 동 14 우리 명예를 걸고

활동개요

우리의 민속놀이는 사회·정치의 변이와 문화 발전으로 인하여 집단적인 것에서 개인적, 그리고 남녀노소의 분리와 사회 계층간의 차이와 변모를 낳게 했다. 당초에는 남녀가 함께 즐겼던 그네는 여자 전유의 경기로 변모했고 대조적으로 씨름은 남성만의 개인적 겨룸판이었다. 같은 남성의 겨룸놀이에서도 땅재먹기·비석치기·자치기·제기차기 따위는 아이들의 놀이였고 가마싸움 같은 것은 서당에 다닐 수 있는 집안의 자제들 놀이였다. 고려려 시대의 활쏘기는 그 시대 젊은이들의 소양이었지만 조선왕조의 활쏘기는 시종한량들의 여기(餘技)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우리의 겨룸놀이는 계절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난날 우리 사회가 농업 위주의 사회였고 그 자체가 계절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세시풍속과 관련되게 된 것이다. 단오절, 추수절, 그리고 농한기인 세초(歲初)에 놀아진 것이 겨룸놀이의 시간적인 현상이었다. 겨룸놀이는 또한 지역적인 제약성도 지니고 있어, 씨름·그네처럼 전국적으로 보급·전승되어 있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고싸움·동채싸움은 영남지역에서, 그리고 편싸움은 주로 평안도·황해도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게다가 같은 이름의 겨룸놀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나 방법에 차이를 갖는 것도 있다(홍일식 외, 1982).

본 활동에서는 이와같이 다양한 의미와 모습을 지니며 오랜동안 변화를 거듭해 온 우리의 겨룸놀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겨룸놀이를 하게 함으로써 즐겁게 체력을 단련하고 협동심, 단결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유 래

경상북도 안동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서 1969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 2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명칭은 ‘안동차전놀이’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의 일반인들은 ‘동채싸움’ 또는 ‘동태싸움’이라고도 한다. 안동지방의 속어 가운데 저돌적인 사람을 ‘동태 머리꾼’ 같다는 말도 있어 ‘동채’ ‘동태’는 같은 말이 구개음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동태’란 수레바퀴의 경상도 사투리이므로 ‘동채싸움’은 바로 차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동채(同體)싸움’이라고도 하니 싸움의 과정에 수많은 군중들이 한 몸 동채가 되어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라 한다.

이 놀이의 유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후백제의 왕 견훤은 지렁이였다. 지렁이가 사람으로 변하여 안동땅에 왔다. 안동 사람들은 지렁이를 몰아내기 위하여 소금배를 풀어 낙동강 물을 짜게 만들고, 모두 나와서 집단적으로 팔장을 끼고 어깨로 지렁이를 밀어 강물에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지렁이는 잔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안동 사람들은 지렁이를 떠밀 때처럼 떼지어 동채싸움놀이를 했는데, 놀이를 할 때에는 손을 쓰지 않고 팔장을 끼고 어깨로 서로 밀어 낸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고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의 견훤과 안동에서 격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에 권행, 김선평, 장길 세 장군이 있어 왕건에게 가담하여 견훤을 패하게 하였다.’ 그 후 이 세 분을 태사로 모시어 ‘삼태사’라 이르고, 삼태사가 충성을 다하여 승리로 이끈 데 대한 기념으로 이 놀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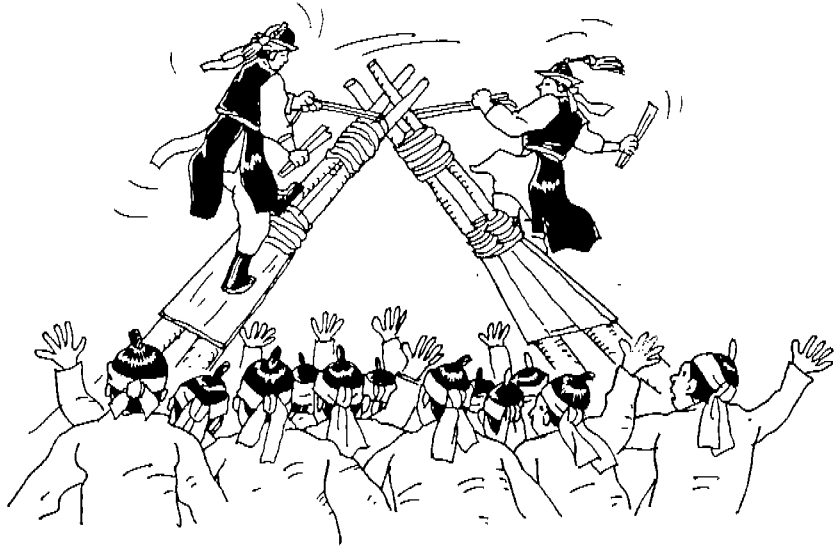
동채싸움놀이의 특성으로 먼저 응맹성을 들 수 있는데, 팔장을 낀 채 어깨로 밀어서 상대방을 물리치며 상대의 동채를 위로부터 짓눌러 무릎을 꿇게 하면 이기는 이 집단 민속놀이는 이제 비단 정월 대보름의 안동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운동회에서도 놀이되고 있다. 영남지방의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겨루음놀이로 이

‘동채싸움’을 꼽는다면 호남 지방의 유사한 집단 겨룸놀이로는 ‘고싸움놀이’를 꼽을 수 있다.

* 자료 : 한승희·이해연, 1993. 심우성, 1990.

□ 진행 방법

- ① 싸움에 앞서 각 편에서 동채를 직접 제작하여 준비한다.
- ② 운동장에서 전체 인원을 우군과 좌군으로 나눈다.
- ③ 동채꾼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대장은 1인으로 리더의 자질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채싸움을 전체적으로 지휘한다. 머리꾼은 30% 정도로 민첩하고 단결심이 강한 참가자가 머리꾼이 되며 피라밀형으로 서서 팔장을 끼고 적을 어깨로 밀어서 분산 격퇴시키는 일만 하며 이 이외의 행동은 하지 못한다. 동채꾼은 장신이고 힘있는 사람이 되는데, 각각 10% 정도로 앞채꾼은 동채를 메고 최후 보루의 머리꾼이 되며, 뒤채꾼은 동채를 메고 지휘대로 움직이며 동채를 이탈하지 못한다. 놀이꾼은 앞놀이꾼 30%, 뒤놀이꾼 20% 정도로 편성하여 유격대의 성격으로서 각자의 체력과 자신감을 감안하여 앞뒤에 임의로 가담한다.
- ④ 동채꾼을 배치한다.
- ⑤ 자신의 역할에 맞는 충분한 연습을 하고 상대편과의 연습 시합을 통해 상대편의 전력도 파악한다.
- ⑥ 싸움이 시작되면 양편의 선발대는 동채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상대편의 실력과 동태를 살핀다.
- ⑦ 어느 정도 동태가 파악되면 대장의 지휘아래 상대편을 향해 돌진한다. 지휘자의 명령아래 모든 동채꾼이 한마음이 되어 전진 후퇴 및 좌우 회전 등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 ⑧ 상대방의 동채를 빼앗으면 동채가 땅에 닿기 전에 동채의 방석과 결박줄을 뜯어서 하늘 높이 던짐을 신호로 이긴편은 함성과 함께 쥔신을 하늘 높이 던져 올리며 기세를 보이고 전리품을 둘러메고 함성을 지른다. 승자와 패자가 관계없이 한마



음으로 어우러져 협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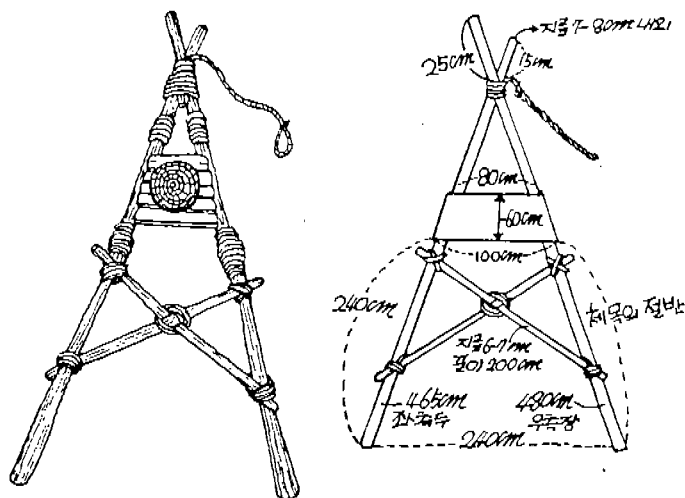
□ 유 의 사 항

- ① 규칙을 완화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② 참가자들이 동채를 제작하거나 동채 싸움을 연습할 때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③ 동채싸움을 실시할 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지도한다.

□ 참 고 사 항

1. 동채 제작

- ① 동채 재료로 참나무로 된 채목(좌측-길이 465cm, 지름 7-8cm 내외, 우측-길이 480cm, 지름 7-8cm 내외), 나무판자 1개(윗변 80cm, 밑변 100cm의 사각형), 가르새 2개(길이 200cm, 지름 6-7cm의 원목), 새끼줄을 준비한다.



- ② 좌측에 짧은 석가래를 놓고 그 위에 겹쳐 우측으로 긴 석가래를 놓는다. 머리부분은 교차시켜 새끼로 묶는다.
- ③ 체목 중간 150cm 되는 부분을 새끼줄로 감아
- ④ 그 중앙부에 가르새를 넣어 회전하여 새끼를 꼬아서
- ⑤ 가르새의 양단을 체목에 고정하고 고삐를 단다.

2. 놀이 규칙

- ① 대장은 손으로 신호하여 지휘하고 상대방의 대장이나 동채를 붙들지 못한다.
- ② 머리꾼은 팔장을 풀지 못하며 상대방을 잡아 당기거나 박치기나 발길로 차지 못한다.
- ③ 머리꾼이 강력하여 적군을 밀어제치고 적의 동태에 도달하였을 때 앞채꾼은 적의 동채를 당기고 또 밀기로 누르며 동채를 찢을 수도 있으나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 ④ 이 때 열체에 물린 자는 상대편을 해치거나 동채를 잡은 상대편의 팔을 당기거나 하지 못하고 오직 팔장을 낀 채 적을 밀어내며 자기 동채를 빼앗기지 않도록 사력을 다하며 이 사이에 뒤채꾼은 신속히 동채를 빼내어 후퇴한다. 이 때 적에 등(배)을 보이지 않는다.

- ⑤ 절대로 대장을 공격하지 못한다. 만약 대장이 격전 중에 실수로 떨어지면 공격을 멈추고 다시 동채에 오를 기회를 주고 경기를 계속하나 최후 결정적 순간은 그러하지 않다.
- ⑥ 공격은 언제나 대각선 상에서 정면으로 정정당당히 하여야 하며 측면 또는 후면에서 비열한 공격은 못한다.
- ⑦ 머리꾼이 넘어지면 곧 쌍방이 후퇴하여 넘어진 사람을 구한 다음 경기를 계속한다.(이 때 대장 또는 심판의 신호로 후퇴한다)
- ⑧ 양 동채머리가 교차하여 두상 1m 이상 높이 올리지 못한다. (이는 정식회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약식에서 왕왕 있다. 이것은 승부를 낼 수 없으며,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 ⑨ 회전중 규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킴과 아울러 주의를 환기시킨 후 계속하게 한다.
- ⑩ 동채꾼은 동채 삼각형 내부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 ⑪ 싸움의 승부는 동채가 땅에 닿거나 동채를 빼앗겼을 때(결정패), 경기 중 항상 수세로 밀리어 궁지에 빠진 때(판결패), 규칙위반 기타 비도덕적 행위로 주의를 받고 경기를 중단케한 경우(벌칙패)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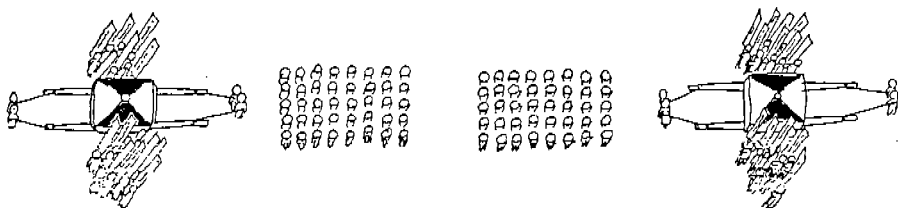
* 자료 : 한승희·이혜연, 1993. 심우성, 1990. 임변장 외, 1994.

□ 유 래

경상북도 의성 지방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로 자매쌈 또는 가마 놀이라고도 한다.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서당제도가 생긴 이후에 학동놀이를 출발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 붕괴 이후 놀이가 중단되어 오다가 근래에 다시 복원되었다. 8월 추석날에 하는 것인데, 잠시 서당이 쉬는 틈을 타서 학동들이 해방감과 명절기분에 들떠서 즐겼던 놀이이다. 한편 가마싸움의 발생시기는 그 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형태 면에서도 돌이 팔을 정(井)자로 걸고 하던 가마싸움이 일반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 진 행 방 법 I

- ① 놀이 도구인 가마와 원님과 깃발을 준비한다. 가마는 밑에 네 개의 바퀴를 달고 앞뒤에 줄을 매어 잡아 끌 수 있도록 한다. 원님은 애호박(풍선이나 탈을 대응해서 사용)에 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려 가마 속에 넣는다. 깃발은 총수기·부기·청룡기·백호기·주작기·현무기·청도기·영기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한다.
- ② 인원제 따라 두패로 나눈다.
- ③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각 패는 마을이나 운동장 등을 누비며 기세를 올린다.
- ④ 행렬의 순서는 영기·청도기·청룡기·백호기·주작기·현무기·총수기·공격 학동대·가마·호위 학동대 순으로 뒤에 가는 학동대가 ‘앞에가는 마부!’하고 소리치면, 공격 학동대가 ‘어이야!’ 하며 받으며, 다시 뒤에서 ‘니 말 좋다 자랑마라!’고 메기면, 똑같이 ‘니 말 좋다 자랑마라!’로 받는다.
- ⑤ 양패가 서로 대치하면서 한동안 입시름을 하다가 총수의 지휘에 따라 싸움을 시작한다. 놀이가 자칫 과격해 질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규칙을 정하여 놀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⑥ 공격하는 청소년들(동태머릿군)은 상대편 가마를 공격하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가마를 둘러싸서 상대편 공격 학동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킨다.

- ⑦ 승부의 판가름은 기를 많이 빼앗고, 가마를 빼앗거나 부수면 이기는 것이다.
- ⑧ 이긴 편은 깃발을 높이 들고 마을(운동장)을 누비면서 풍물로 흥을 돋운다.(가마싸움에서 이긴 편은 그 해의 과거시험에 많이 합격한다는 속신이 있어 학부형들이 기뻐하여 동리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어 온마을의 축제가 되곤 하였다고 한다)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1987.

□ 진행 방법 II

- ① 전체 인원을 두 편으로 나눈다.
- ② 각 편은 4~5명이 한 조가 되어 井자형 가마를 뒀 수 있는대로 만든다.(한명이 앞으로 나와서 양팔을 벌리고 앉으면 2명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손가락지를 하고 싸 안는다. 마지막 한명은 양쪽에 팔을 낀 사이에 두 다리를 각각 끼고 앉는다)
- ③ 각 편에 대장을 한명씩 뽑아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기를 든다.
- ④ 각 가마는 대장을 보호하는 가마와 길을 여는 공격하는 가마

로 구분하여 약 10m의 거리를 두고 가마를 두고 정리한다.

- ⑤ 심판의 신호에 따라 자기의 진을 나와 상대방 대장기 또는 모자를 공격한다. 수비 가마는 대장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운다.
- ⑥ 상대 패의 대장의 모자나 기를 빼앗는 패가 이긴다.
- ⑦ 이긴 패는 만세삼창을 하고 진패는 큰 절을 한번 한다.

* 자료 : 이영숙 외, 1992.

□ 유 의 사 항

- ① 너무 과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대장을 바꾸거나 여러명의 대장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놀이를 한다.

□ 유 래

석기시대의 경우 돌은 삶을 가능케하는 유일한 도구로 들질승을 잡거나 열매를 따거나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돌팔매질을 했다. 그러다가 점차 생산도구가 바뀌면서 이전에 생산도구였던 돌팔매는 자연스레 놀이로 전환되고 발전되었다. 도구나 방법이 너무 간단하여 쉽게 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곧 놀이로 발전하게 된 원인이다.

문헌에 의하면 ‘수서동이전’ 고구려조와 ‘조선왕조실록’ 등에 편싸움(석전)에 관한 기록이 많다. 고구려에서는 왕이 직접 참가했고 신라에서는 석추반이라는 군대조직도 있었다고 한다. 석전은 사회가 고도화되어 왕조의 형태를 띠면서 단지 놀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을 방위하는데 이용될 군사훈련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런 훈련은 구체적으로 삼포왜란 때 안동, 김해에서 돌 잘던지는 사람을 뽑아 선봉으로 삼고 공격하여 적을 물리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초기에 사용했던 큰 돌을 호도알 정도로 제한하는 방식을 띠면서 석전이 진정한 놀이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는 당시 석전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긴 지혜이다. 석전이 집단의 힘을 모으는 대동놀이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민족 말살정책으로 탄압받다가 해방 후 되살아 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연변 등지의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마을을 동서부로 나누어 아직까지 행하고 있다고 한다. 돌팔매 놀이는 바닷가에서 쫓기잡시(문수제비뜨기), 육지에서선 비석치기로 발전하게 된다.

□ 진 행 방 법

- ① 청소년들을 두 편으로 나눈다.
- ② 일정 거리를 두고 땅에다 평행한 일직선을 긋는다.
- ③ 각각의 편은 각 선에 서로 마주보며 서서 같은 수의 모래(콩)주머니를 준비하고 대기한다.

- ④ 시작 신호와 함께 준비한 모래주머리를 던져 상대방을 맞춘다.
- ⑤ 두 선 가운데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다시 주워 던진다.
- ⑥ 모래 주머니에 맞은 사람은 밖으로 나와 응원을 한다.
- ⑦ 수비편에서 모래 주머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손으로 받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 ⑧ 일정 시간이 지나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많은 편이 이긴다.

□ 유 의 사 항

- ①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래주머니를 직접 만들도록 한다.
- ② 모래주머니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③ 규칙을 다양히 하여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하도록 한다.

* 자료 : 이영숙 외, 1992.

□ 유 래

줄다리기는 옛날부터 남한 각 지방에서 성행해 오던 대중적 의의를 가진 특수한 놀이로서 대개는 정월 대보름날에 행한다. 작은 고을이나 마을에서는 당일 하루만 하지만 큰 고을에서는 보통 15일을 전후하여 3일 동안 한다. 그런데 지방에 따라서는 5월 5일 단오절이나 7월 15일 백중절에 행하기도 한다.

줄다리기는 우리 나라 외에도 중국·일본·버마 등 여러 나라에도 있으나 그 발생지는 중국으로 보인다. 중국 줄다리기는 원래 양한의 풍속으로 정월 보름날에 행하는데 전쟁시에 초나라 장수가 오나라를 칠 때에 했던 것으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한 이후 중국에는 발하(拔河)라고 하는 줄다리기 놀이가 행하여졌다. 발하란 명칭은 강을 사이에 두고 행한 데서 붙여진 것이다. 후세에 와서 한국·일본·버마 등 제국의 줄다리기는 중국의 이 발하 풍속을 모방한 듯하다.

* 자료 : 홍일식 외, 1982.

□ 진 행 방 법

- ① 며칠전부터 청소년들이 협동하여 줄다리기에 사용할 줄을 직접 제작한다.
- ② 줄의 암수가 잘 연결되면 줄을 땅에 내려놓고 줄의 중앙에 줄다리기의 상징기를 꽂고 좌우에 각팀의 상징기를 꽂는다.
- ③ 심판의 신호에 따라 첫 신호에 줄을 잡고 둘째 신호에 줄을 들고 세째 신호에 잡아당긴다.
- ④ 양쪽에서 뽑은 대장의 구령에 따라 힘을 모아 잡아당긴다.
- ⑤ 한판이 끝나면 풍물장단에 맞춰 양편 위치를 서로 바꾸고 대열을 재정비한다. 한판이 끝날 때마다 위치를 바꾸며 3판 2승이나 5판 3승으로 승부를 가린다.

□ 유 의 사 항

- ① 줄을 만드는 과정도 단결심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참 고 사 항

〈줄다리기 제작〉

- ① 행사 몇일 전부터 양쪽 편 준비위원들이 모여 줄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이나 새끼줄을 구입한다.
- ② 준비한 짚으로 세가닥 줄꼬기를 하여 50m줄 10개를 만든다.
- ③ 꼬아진 줄 9가닥을 사용하여 3가닥 꼬기로 50m 줄 3개를 만든다.
- ④ 위의 3가닥을 3가닥 꼬기로 50m 줄 1개를 만든다.
- ⑤ 50m 줄은 반을 접어서 10가닥 중 나머지 1가닥으로 등글게 고리가 만들어진 목줄 부분부터 쉼쉼 감은 후 두 줄이 합쳐지는 몸불 부분은 두줄을 같이 묶어 튼튼하게 감아가며 25m 줄 하나를 만든다.
- ⑥ 양 편에서 이러한 줄을 각각 하나씩 만든다. 목줄의 고리는 어느 한쪽 편이 다른 편보다 커야 한다.

* 자료 : 한승희·이혜연, 1993.

【과 정 5】

게줄다리기

□ 유 래

감천(甘川)에서는 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웃 마을간에 게를 잡는 터 때문에 때로 싸움이 벌어지곤 하여 마을 어른들이 상의하여 게 모양의 줄을 만들어 그 줄을 당겨 이기는 편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한 것에서 게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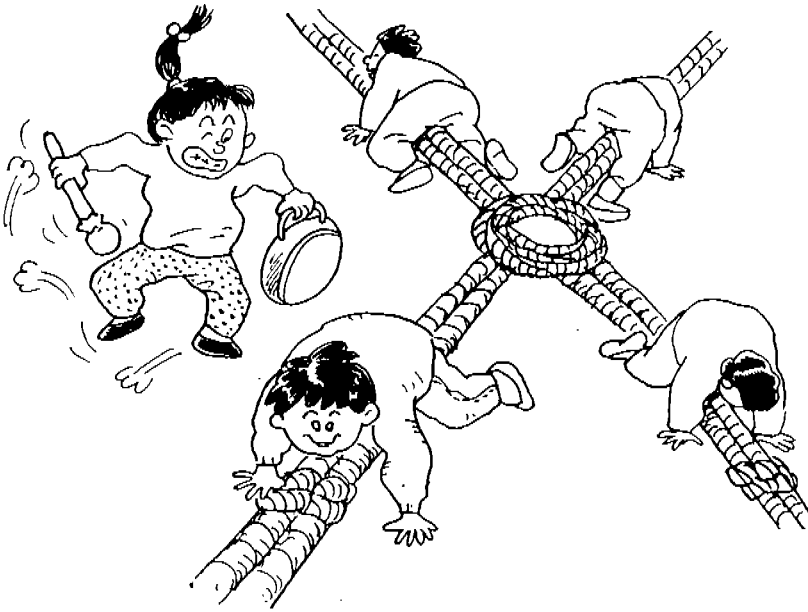
그러나 그 후에 와서는 정월 보름과 칠월 백중 때 농한기를 택하여 개보(改洑)를 하는 일이나, 농로를 닦는 일을 걸고 게줄다리기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 진 행 방 법

- ① 편을 둘로 나누고, 중앙에 둥그런 게줄(또는 타이어), 그리고 그 주위로 여러개의 젓줄(새끼줄)을 달아 게줄다리기 준비를 한다.
- ② 준비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면 둥그런 게줄을 둥으로 마주보고 하나의 젓줄에 여러명씩 위치하여 제자리에 앉는다.
- ③ 자기 편의 승리를 위해 힘찬 응원을 시작한다.
- ④ 시작 징소리가 울리면 어깨와 허리에 힘을 주고 마치 소가 논 갈이를 하듯이 손과 발로 땅을 짚으면서 잡아당긴다.(사람에 따라서는 발에 새끼를 감기도 하고, 땅에 흙을 파서 버티기도 한다.)
- ⑤ 일정 시간(약 3분)이 지나 종료 징소리가 울리면 줄을 중앙선에서 목표 지점까지 많이 끌어간 편이 이긴 것으로 한다. 한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2-3판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다.
- ⑥ 진편은 이긴 편에게 절을 하고 이긴 편은 함성을 지른다.

□ 유 의 사 항

- ① 참가 인원수에 따라 젓줄의 수를 조정하여 줄다리기에 임한다.
- ② 줄다리를 하는 사람은 둥그런 게줄을 절대로 마주보지 말고 둥으로 마주진 채 잡아당겨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반칙으로



여긴다.

- ③ 앞사람 또는 땅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 고 사 항

계줄다리기는 보통 줄다리기보다 그 규모가 작은 것이 특색이며, 때에 따라 두 사람이 겨루는 소형의 줄에서부터 세 사람씩 한 조가 되는 6인용 줄, 다섯 사람씩 나누어 겨루는 10인용 줄, 그리고 열 사람씩 한 조가 되는 20인용 줄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겨룰 수 있는 줄 등이 있다고 한다. 계줄은 중앙이 둥그렇고 좌우에 젖줄이 달려있는데, 중앙의 둥그런 부분은 새끼로 감았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에 줄을 달아 게 모양으로 보이게 한다.

* 자료 : 정병호, 1988.

창작마당 01 0



장원급제를 꿈꾸며
창작품을 내 손으로
역사의 기로에서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호수와 같은 그리움으로.

오! 생겨났으면, 생겨났으면,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이
천년을 천년을 사랑하는 이
새로 햇볕에 생겨났으면,

히나, 나는 여기 섰노라.

이 싸늘한 바윗속에서
날이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이는
푸른 숨결은
아, 아직도 내 것이로다.

—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서정주) —

활동 15 장원급제를 꿈꾸며

활동개요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시행되었던 과거제도는 인재 등용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한번쯤 성취하고픈 커다란 꿈이자 희망이었으며 이를 위해 젊음의 많은 세월을 바쳐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고시 등 또 다른 형태의 변형을 하여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본 활동에서는 전통적인 과거 제도를 되돌아봄으로써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활동목표

전통적인 과거 시험 제도의 현대적 재현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지혜를 경주할 수 있게 한다.

준비사항

필기도구, 시험지, 각종 운동 기구

활동방법

- ① 장원 급제 시험 과목과 시간 등을 벽이나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② 시험 응시자를 운동장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 ③ 팔씨름, 달리기, 활쏘기 등 무과시험에 해당하는 각 활동의 시험을 치른다.
- ④ 무과 시험이 끝나면 즉흥시 짓기 등의 문과시험을 치른다.
 - ㉠ 각 응시자는 운동장에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모인다.
 - ㉡ 일정 간격으로 자리에 앉아 시제가 내려지기를 기다린다.
 - ㉢ 모든 준비가 갖춰지면 시험시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시제를 발표한다.
 - ㉣ 각 응시자들은 주어진 시간내에 즉흥시를 짓도록 한다.
 - ㉤ 시험 시간이 끝나면 시험지를 걷는다.
- ⑤ 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전통적인 시험 분위기에 적합한 공연을 연주한다.
- ⑥ 무과 시험과 문과 시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 ⑦ 축하의 음악과 함께 장원급제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하며 준비한 가마에 태워 운동장을 돌며 흥겹게 즐긴다.

유의사항

- ①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참가하도록 한다.
- ② 흥미있고 재미있는 종목으로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 ③ 시제는 너무 어렵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다.
- ④ 여건이 마련되면 음악이나 시설 등을 옛모습으로 재현하도록 한다.
- ⑤ 가마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명이 기마를 만들어 운동장을 돌도록 한다.

참고사항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보던 국가시험으로 원래 중국

에서 관리 등용을 위해 만들었던 시험제도로서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신라시대인데, 788년(원성왕 4)에 시행된 독서출신과가 우리나라 과거제도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독서출신과는 독서력을 시험하여 상·중·하의 3품으로 나누어 등용하였으므로 독서삼품과라고도 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과거는 고려초기에 시작된 것으로,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958년(광종 9)에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비로소 과거의 법을 마련하였다. 처음에는 제술과·명경과·의·복과를 두었었는데, 그 뒤에 과거제도는 더욱 발전하여 인종 때에 이르러 대략 정비되었다.

과거의 시험 절차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1차 시험을 보았다. 중앙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상고, 지방에서 합격한 자를 향공이라 하였고, 중국인으로 이에 합격한 자를 빈공이라 하였다. 삼공은 개성에 있는 국립중앙대학 격인 국자감에서 다시 간단한 시험을 보았다. 이에 합격한 자와 국자감에서 3년이상 공부한 학생, 벼슬에 오른지 300일 이상되는 자를 통틀어서 소정의 시험과목에 따라 최종시험을 보게 하였다. 이 최종시험을 감시라 하였으며, 제술과에 있어서는 갑·을의 두 과, 명경과에는 갑·을·병·정의 네과에서 합격자를 내었다. 합격자에 정원은 없었으나, 중엽 이후 대체로 33명이 되었고, 처음에는 해마다 과거를 실시하던 것을 성종 때에는 3년에 한번의 식년시를 실시하였다. 현종 때에는 격년으로, 그 후에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하였다. 동 당시의 경우에 갑과와 일등 합격자를 장원, 2등을 이원 또는 방안, 3등을 탐화라 하였고, 빈공에서 합격된 자를 별두라 하였다. 때로는 감시에 합격한 자들을 모아 임금이 다시 시·부·논으로 친히 시험을 보았는데, 이것을 복시 또는 염전중시라 하였다. 염전중시의 시험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를 독권관이라 불렀다. 이 복시는 성종 때에 처음 실시된 것이나 상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홍패를 주었으니 홍패는 붉은 종이에 쓴 합격증이었다. 고급관리의 등용문인 제술·명경과에는 양반의 자제들만 응시할 수 있는데, 대체로 주·군·현의 차관인 부호장 이상의 자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갑과 즉 일

종의 기술자를 채용하는 시험에는 천민을 제외한 일반 서민도 응시할 수 있었다. 관리로서의 등용문인 제술·명경2과에 비하여 일종의 소과라 할 수 있는 국자시와 승보시가 그것이다. 합격자는 국자감에 들어가 공부할 자격 또는 하급관리에 등용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한편 무과는 1390년(공양왕2)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과거의 과목이 되었으나, 2년후 나라가 망하였으므로 고려에서는 그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대체로 고려시대와 비슷했다. 1392년(태조1)에 과거의 법을 제정하여 서울은 성균관, 지방은 각 도에서 경서에 정통한 자들을 추려 성균관에서 시험을 치루었다. 조선시대의 과거 과목에는 문무 2과와 생원, 진사과 이외에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등의 잡과가 있었다. 이 중 역과는 다시 한학, 몽학, 왜학과 여진학으로 나누어지고, 음양과에는 천문학, 지리학 및 명과학이 있었다. 이 중에서 문과는 문과의 등용자격 시험으로 고려의 예에 따라 동 당시라고도 한다. 승문정책의 영향으로 가장 중시되어 대과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생원, 진사과는 소과라 하였다. 문과의 초시는 한성부에서 실시하는 한성시,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관시 및 각 도에서 실시하는 향시의 3종이 있어서 모두 가울에 실시하였다. 이 초시의 합격자를 이듬해 봄에 서울에 모아 명륜당 및 비천당에서 2차 시험을 보게 하였으니 이것을 복시라 하였다. 복시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시 궁궐 안의 전정에서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보였으니 이것을 전시라 한다. 후기에 이르러 전시는 형식에 그치고 복시에 합격하면 사실상 최종 합격한 셈이 되었다.

* 자료 : 신준호, 1991.

활동 16 창작품을 내 손으로

활동개요

우리 겨레는 창의롭고 슬기로운 민족으로 예로부터 일반 백성에서부터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예술품을 창안해왔다. 민속 공예는 각 지역마다 전승되어 온 전통적 기법과 그 고장 산물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조형예술로서 일반 백성들에 의해 제작되어 왔고, 측우기, 해시계, 물시계, 수표 등은 그 시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궁궐에서 발명한 과학적 예술품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보게 한다. 본 활동에서는 이러한 조상들의 창의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한다.

활동목표

민족 예술품을 청소년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조상들의 정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창의성을 개발한다.

준비사항

참고 사항 참조

활동방법

- ① 탈, 도자기, 부채, 해시계 등 제작할 작품을 선정한다.
- ② 작품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을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준다.
- ③ 작품에 대한 용도 및 제작 방법을 청소년들에게 설명한다.
- ④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다.
- ⑤ 제작 도중 어려움이 있으면 질문 또는 지도를 부탁하여 모두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작품 만들기가 끝나면 각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한다.
- ⑦ 각자 만든 작품은 개인에게 돌려주어 집으로 가져가게 한다.

유의사항

- ① 청소년들이 흥미있어 하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 ② 모두 똑같이 제작하게 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창의성이 담긴 작품이 되도록 지도한다.

참고사항

1. 도자기 만들기

1) 청자

태도구입 - 수비 - 건조 - 토련 - 성형 - 굽 깎기 - 상감작업/조각
- 건조 - 초벌구이 - 시유 - 재벌구이

수 비 : 흙을 물에다 풀어서 흙물을 거른 후 통에다 가라 앉
힘.

토 련 : 제대로 건조된 흙 양금(점토)을 발이나 땀메로 쳐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손으로 반죽해서 흙속에
공기를 제거해 준다.

성 형 : 토련이 끝난 점토를 물레 위에 놓고 형태를 만든다.

굽 깎 기 : 성형후 약각 건조된 후에 기형을 얹어 놓고 기형의
하단 부를 깎아서 완성시킨다.

상감작업 : 칼로 조각을 한 후에 백토, 흑토를 사용 상감을 한
다.

초벌구이 : 연료는 가스, 석유, 장작을 사용하여 천천히 소성한

다(초벌온도 : 약 900도 내외)

시 유 : 초벌구이된 기형에 두께 약 1mm-2mm 정도의 유약을 입힌다.

시유방법 { 당금법
 { 살포법
 { 도포법

재벌구이 : 환원염으로 소성 온도 약 1,300도

2) 백자

태토 입 - 수비 - 건조 - 토련 - 성형 - 굽깎기 - 조각
- 초벌구이 - 그림 - 시유 - 재벌구이

3) 분청

태토(혹은 수비) - 건조 - 토련 - 성형 - 굽깎기 - 백토
분장(분장법, 귀얄법, 당금법) - 초벌구이 - 시유
- 재벌구이

※ 재벌시 소성 온도는 점토와 제작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 자료 : 박철원, 1993.

2. 단오부채 만들기

1) 대나무살 붙이기

- ① 흰색 한지를 사방 30cm가 되도록 두장을 재단한다.
- ② 한지 위에 풍을 칠하고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살을 붙인 후 나머지 한장의 한지를 그 위에 덮어 붙인다.

2) 부채모양 만들기

- ① 마분지에 사방 30cm의 정사각형을 그린다.

- ② 30cm의 정사각형을 반으로 접고 부채의 반쪽모양을 그린다.
- ③ 반으로 접힌 마분지를 선을 따라 오린다.
- ④ 대나무살을 붙인 한지 위에 부채 모양을 대고 그린다.
- ⑤ 가위로 선을 따라 오린다.

3) 색지 붙이기

- ① 그림과 같이 위는 노랑색으로 아래는 주황색으로 붙인다.
이 때 바깥으로 0.3cm 정도의 여분을 두고 오려내어 뒤로 넘겨 붙인다.
- ② 뒷면은 녹색으로 붙이는데 바깥으로 0.3cm의 여분을 두고
오려 앞쪽으로 넘겨 붙인다.
- ③ 색지를 바른 후 0.6cm폭으로 검정색지를 잘라서 부채의
가장자리에 양쪽으로 반씩 넘겨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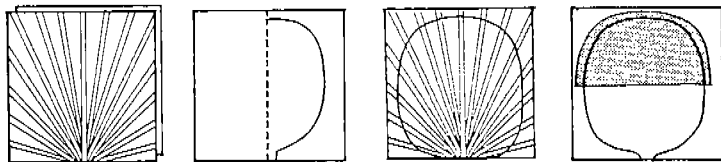
4) 문양오려 붙이기

- ① 문양을 본 뜬 종이를 색지 위에 겹쳐 놓고 호치켓 등으로
고정시킨 후 칼로 오려낸다.
- ② 정해진 위치에 문양을 붙인다.

5) 자루달기

- ① 문양을 다 붙인 후 부채면을 평평하게 해 준 후, 자루를
끼우고 장식못으로 고정시킨다.

6) 정리한다.



* 자료 : 이영숙 외, 1992.

3. 태극문 사각 상자 만들기

1) 완성된 치수

가로 15cm, 세로 15cm, 높이 10cm

2) 재 료

두께 3mm 판지 110cmx80cm 1장, 한지 2장 적, 청, 황, 연두, 흑색지 각 1장씩, 풀, 접착제, 래커

3) 용 구

30cm 쇠자, 연필, 지우개, 커터, 가위, 스테이플러, 풀 귀얄 대.소 각 1개씩, 래커 귀얄 대.소 각 1개씩

4) 만드는 법

(1) 골격 재단하기

- ① 두께 3mm의 판지에 자를 대고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을 그린다
- ② 정사각형의 선을 따라 반듯하게 잘라 낸다.
- ③ 뚜껑의 옆면 15cmx10cm 2장과 14.4cmx10cm 2장을 판지 위에 그린다.
- ④ 자를 대고 똑바로 잘라낸다. 같은 방법으로 속상자의 골격도 13.8cmx13.8cm 1장, 13.8cmx9.5cm 2장, 13.2cmx9.2cm 2장을 재단한다.

(2) 골격 형성하기

- ① 골격의 옆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 ② 1-2분 후에 뚜껑 윗면을 바닥에 놓고 옆면을 직각 붙이기 하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붙여 나간다.
- ③ 성형된 골격 안쪽에 접착제를 덧발라 튼튼하게 한다. 속상자도 같은 방법으로 성형하고 접착제를 덧바른다.

(3) 한지 재단하기

- ① 뚜껑 윗면에 한지를 대고 눌러 표시한 뒤 사방 5mm의 여분을 두고 가위로 선을 따라 재단한다.
- ② ①과 같은 방법으로 옆면에 바를 한지를 4장 재단한다. 2장은 표시된 자국에서 좌우에 5mm, 아래에 1cm 여분을 두고, 2장은 아래에만 1cm 여분을 둔다. 속상자에 바를 한지도 마찬가지로 재단한다.

(4) 한지바르기

- ① 바닥에 종이를 깔고 뚜껑 윗면에 바를 한지를 놓고 귀알에 풀을 묻혀 곱게 펼친다.
- ② 뚜껑 윗면을 구김이 가지 않도록 관관하게 넘겨 바른다.
- ③ 옆면을 순서대로 바르는데 좌우 5mm 여분을 준 2장부터 먼저 서로 마주보는 면에 바른 다음 나머지를 바른다.
- ④ 뚜껑 안쪽 옆면을 바깥쪽과 같은 방식으로 바른다.
- ⑤ 안쪽 바닥을 여분없이 바르고 주름지지 않도록 잘 펴준다.

(5) 색지 재단하기

- ① 뚜껑의 윗면에 대각선을 긋는다.
- ② 뚜껑 옆면에는 아래에 테의 면적 약 1cm를 남겨 두고 대각선을 긋는다.
- ③ 투사지를 대고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찍어 표시한 다음 자를 대고 꼭지점을 선으로 잇는다.
- ④ 투사지 밑에 적, 청, 황, 연두의 4가지 색지를 겹쳐 놓고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킨 뒤 자를 대고 선을 따라 똑바로 자른다.
- ⑤ 재단한 색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뚜껑 옆면에 바를 색지도 2종류로 재단한다.

(6) 색지 바르기

- ① 골격의 뚜껑 윗면에 풀을 친한다.
- ② 황색, 연두, 적색, 청색, 즉 열은 색에서 짙은 색의 수서로 이어 바른다.
- ③ 같은 방법으로 옆면을 차례로 이어 바르기 한다.

- ④ 뚜껑 안쪽을 한지 바르기와 같은 방식으로 연두 색지를 바른다. 속상자는 바깥쪽은 청색으로 안쪽은 연두색으로 한지 바르기와 같은 방식으로 바른다.

(7) 테 재단하기

- ① 검정 색지를 테의 폭과 비슷하도록 여러번 접는다.
② 자를 대고 색지에 표시하여 1cm 폭으로 길게 재단한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밑테의 폭도 2cm로 재단한다.

(8) 테 두르기

- ① 골격 양 모서리에 0.5cm씩 표시한 두 점을 선으로 잇는다.
② 골격의 표시해 둔 곳에 양쪽으로 5mm씩 똑같은 폭으로 테를 넘겨 바른다. 밑테는 양쪽으로 1cm씩 넘겨 바른다.
③ 속상자에는 골격 안쪽 윗부분에 1cm 폭의 적색띠를 둘러준다.

(9) 문양붙이기

색지 바르기와 테두르기가 끝난 뚜껑에 태극 문양을 윗면과 옆면에 붙여 준다.

(10) 작품 풀칠하기. 래커 칠하기

작품 전체에 고루 풀칠해 준 다음 풀이 다 마르면 래커칠을 한다.

* 자료 : 상기호, 1994.

활동 17 역사의 기로에서

활동개요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수 많은 침략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역사의 각 순간마다 이루어진 결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활동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이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역사 중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하여 청소년들 상호간에 토의를 해 봄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역사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한다.

준비사항

연단, 참고자료, 필기도구 등

활동방법

- ① 토론 주제를 선정한다.
- ②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 또는 의견의 차이에 따라 조를 편성한다.
- ③ 각 조별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근거를 토론 진행에 앞서 준비한다.
- ④ 각 조별로 몇명의 대표를 뽑아 연단에 나와서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
- ⑤ 서로간의 토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회자는 각 대표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토의를 마무리한다.

유의사항

- ① 참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② 대표의 논리가 부족하면 이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논리가 부족한 사람이 억지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사항

1. 신라의 민족통일

백제와 고구려는 모두 700여년을 이어온 노대국으로서 자연적으로 그 지배층은 비대해지고 따라서 내분은 자주 일어났다. 또한 오랫동안 서로 통일의 주인이 되려는 경쟁으로 피로하여 있었다. 이때 중국대륙의 새로운 통일왕조와 결탁한 신흥 신라에 의하여 차례로 멸망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 곧 신라의 삼국통일은 아니었다. 2국을 점령한 뒤 당나라는 일방적으로 두 나라를 모두 자국의 연초로 편입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이를 통치하려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내고 실제로 삼국을 통일하여야 할 국가적 민족적 과업이 남게 된 것이다. 당은 당초부터 백제를 점령한 다음 곧 신라도 병합하려 하였다. 소정방이 회군하자 당고종이 “어찌하여 신라는 정벌하지 않고 돌아왔는가?”라고 물은 것으로 보아 당군은 출정시에 이미 신라 점령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신라는 이미 이 계획을 알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당나라는 이를 단념하고 고구려로 화살을 돌리게 된 것이다.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당군과 함께 백제부흥군을 진압하는 한편, 당군을 부추겨 고구려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백제 영토 안에 당나라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당나라는 신라의 속셈을 알고 백제부흥군을 토벌한 다음 백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 용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백제를 통치하게 하며 신라를 견제하게 하였다.

신라는 고구려가 멸망하기까지는 백제내에서 군사활동을 소극적으로 벌이면서 당군과 충돌을 피하다가 고구려가 멸망하던 해부터 적극적인 당군 축출작전을 전개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군을 지원하여 고구려 지역에서 당군을 몰아내면서 한편 백제지역의 각 성읍도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 660년에 백제왕조가 멸망하였으나 당군과 신라군은 등진과 사비를 점령하고 있을 뿐 백제 전역이 각 성주들에 의해 독립한 상태였다. 670년(문무왕10) 3월 설유가 고구려 유민 태대형 고연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가 당군을 토벌하였고, 671년 4월에는 석성에서 당군을 공격 5,300인을 참살하였다. 671년 7월에는 동맹군을 일으킬 때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에게 주겠다고 한 당태종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지역은 신라가 점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이로써 두 나라는 공식적인 목표를 밝히면서 전투가 계속된 것이다. 672년 1월에는 가림성의 당군을 격파하였고, 7월에는 고간 이근행의 1만 3000군을 평양 근교에서 격파하였다. 675년 9월에는 바다를 건너오는 설인귀의 군사를 천성에서 격파하는 한편, 매초성에 주둔한 이근행의 20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이 매초성 전투에서 당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11월에 설인귀가 다시 본국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나 기벌포에서 그 상륙을 저지하고 격파하였다. 이로써 5년에 걸친 당군과의 전선없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2. 위화도 회군(威化島 回軍)

1388년 명나라의 요동을 공략하기 위하여 출정하였던 이성계 등

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위화도는 외주의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이다. 당시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는 명나라가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는 등으로 매우 긴장되어 있었는데, 1388년에는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요동도사의 관할 아래 두겠다고 통고하여옴으로써 고려가 크게 반발하였고, 이것이 결국 요동정벌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때 수문 하시중 이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이는 옳지 않으며,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부적당할 뿐 아니라,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고 왜구가 창궐할 것이며,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므로 활의 야교가 녹아 풀어지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는 4불가론을 들어 반대하였지만, 우왕과 문하시중 최영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요동정벌이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는 8도의 군사를 징집하는 한편, 세자와 여러 비들을 한양산성으로 옮기고 찬성사 우현보로 하여금 개경을 지키게 한 뒤 우왕과 최영은 서해도로 가 요동정벌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해 4월에는 우왕이 봉주에 있으면서 최영을 팔도도통사로 임명하고, 창성부원군 조민수를 좌군도통사로 삼아 서경도원수 심덕부 서경부원수 이무, 양광도 도원수 왕안덕, 양광도 부원수 이승원, 경상도 상원수 박위, 전라도 부원수 최운해, 계림원수 경의, 안동원수 최단, 조전원수 최공철,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조원교·양경·왕빈 등을 소속시키고,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삼아 안주도도원수 정지, 안주조상원수 지용기, 안주도부원수 황보(皇甫) 립, 동북면 부원수 이빈, 강원도 부원수 구성로, 조전원수 윤호·배극렴·박영충·이화·이두란·김상·윤사덕·경보,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이을진·김천장 등을 소속시켜 좌·우군 3만 8830명과 검군 1만 1600명, 그리고 말 2만 1682필이었다.

곧이어 우왕과 최영은 평양에 머무르면서 독전하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좌·우군은 10만대군을 자칭하면서 평양을 출발하여 다음달에는 위화도에 둔진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망하는 군사가 속출하였고, 마침 큰 비를 만나 압록강을 건너기가 어렵게 되자, 이성계는 이러한 실정을 보고하면서 요동정벌을 포기할 것을 우왕

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정벌을 독촉하자, 결국 이성계는 조민수와 상의한 두 회군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개경에 돌아온 이성계 등은 최영의 군대와 일전을 벌인 끝에 최영을 고봉현으로 유배하고 우왕을 폐위하여 강화도로 방출하였다. 이로써 이성계 등은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제개혁을 단행, 조선전공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회군 당시부터 이미 역성혁명의 이작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 붕당정치(朋黨政治)

조선 중기·후기의 정치 운영형태로 일반적으로 연산군대 혹은 선조연간부터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도록 쉴새 없이 계속된 당파싸움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한 이해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세기에 이르러 정치운영은 당파를 가진 다수인의 공공연한 논쟁을 수반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러차례 사회가 일어난 끝에 움직이지 않는 당인을 가진 붕당이 발생함으로써 항구적 당쟁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당쟁 발생의 직접적 요인은 선조대 심의겸과 김효원의 전랑 관직을 둘러싼 암투였으며, 두 인물을 중심으로 조정의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분열되고 나아가 모든 관리와 유생이 그 대립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칠 줄 모르는 정쟁의 기반은, 당시의 정치인들이 지방에 물질적 토대로서 농장을 소유하고, 서원이나 죽보를 통하여 동족적 과당의 결합을 굳게 하였던 것에 있었다. 동서분당 이후 붕당의 분열은 끝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열대립의 기본적인 주체세력은 노론·소론·남인·북인 등 사색이었다. 그들은 지극히 편협한 배타적 태도를 지니고 복상문제나 세자 책봉문제와 같이 사회성이 결여된 관념적인 정치론을 주제로 대립함으로써, 인재등용의 길이 봉쇄되고, 국리민복이 도외시되어 결국 국력이 약화되는 등 지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당쟁의 폐단은 영조, 정조의 탕평책 실시로 인하여 겨우 누그러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당쟁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부정일변도의 시

각'에서 조선시대의 정치운영에 대한 가치평가 차원의 설명을 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통설은 왜곡된 역사인식에 크게 오염된 것이었다. 19세기에 조선왕조 나뭇의 정치질서가 붕괴된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의하여 우리민족 자체내에서 그 이전의 정치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사상적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양반정치를 청산하고 마무리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뒤 일본인들의 왜곡된 역사관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침략과 통치의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식민통치자들의 패배주의적 좌절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정치사를 이용하였다.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은 그 관심과 접근방식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의 식민통치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의 정치적 전통을 왜곡하고 잠재적 정치역량을 말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었다. 일제에 의하여 그러한 논리가 강요되고 또 일부 한국인들에 의하여 수용, 재생산되는 상황에서는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자치제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있었다. 일제에 의하여 그러한 논리가 강요되고 또 일부 한국인들에 의하여 수용, 재생산되는 상황에서는,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자치제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당파정치를 초월적 진보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던 안확과 같은 인물의 주장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와같이 주로 식민주의 사관에 의하여 왜곡된 조선시대 정치사의 인식은 광복이후로도 크게 수정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통설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봉당정치라는 개념 위에서 새로운 이해의 틀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포 이마당



나의 주장은
배불러 못먹어도
난장의 세계로

땡땡 땡더꿍, 땡땡 땡더꿍.

이 단순한 가락이 왜그리 한국인을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 참으로 묘한 일이다. 도는 속도가 차차 빨라진다. 숨이 차도록 실컷 돌아가면 그 동작 자체가 춤이 된다. 지쳐버릴 정도가 된 후에야 모두 하늘을 향해서 요란스럽게 두드리며 한만을 내린다.

다시 막걸리 바가지를 들고 한숨쉰다. 쉬는 동안에는 노래자랑도 나오고 만담도 나온다. 학생들 경우에는 교수님에게 짤막한 즉흥강의도 청한다. 막걸리 잔을 들고 일어서야 알찬 강의가 나온다. 참으로 정다운 사제지간의 모습이요, 이 모두가 도깨비국물 덕분이다.

밤이 깊어간다. 도깨비 탈바가지를 뒤집어쓰고, 무당옷을 몸에 걸치고, 팽과리, 징, 북, 장고 올리면서 취한 도깨비들은 모닥불을 돌면서 미친듯이 춤을 추고 소란을 피운다. 모두가 주연 배우이며 구경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자기도 취하고, 친구들도 취하고, 산도 취하고, 하늘도 취하고, 땅도 취한다. 구경거리라고는 모닥불밖에 없다. 무아(無我)의 경지란 바로 이렇게 아닐까?

무(舞)는 무(武)로도 통하고, 무(巫)로도 통하며, 결국엔 무(無)로도 통한다.

— 마을축제 중에서(서낭당) —

활동 18 나의 주장은

활동개요

청소년축제는 청소년들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며 일상 생활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한다. 일상 생활의 고통은 오히려 풍자의 대상으로 화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기쁨을 배가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축제만이 창출해 낼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평소 생활에서의 욕구 불만을 마음껏 토로할 기회가 마련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공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을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청소년들에 의해서 토로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만족 또는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준비사항

마이크, 각종 악기, 연기자

활동방법

- ① 심사위원을 청소년들 내에서 선정한다.
- ② 발표할 주제를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하게 한다.
- ③ 선정 주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혹은 조별로 발표 내용을 작성 또는 구상한다.
- ④ 발표자를 선정한다.
- ⑤ 발표자는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한명씩 나와 10-15분 내로 발표를 하게 한다.
- ⑥ 심사위원들은 발표에 대한 채점을 하는 동안 준비된 공연을 하거나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함께 한다.
- ⑦ 채점이 끝나면 발표를 잘 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한다.

유의사항

- ①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여 어려움이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
- ② 정해진 시간내에 발표하도록 시간을 통제한다.
- ③ 진행은 재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 ④ 포상 내용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스스로 준비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발표 주제 사례〉

— 나는 문제아도 좋아 —

안녕하세요?

순진하다고나 할까? 멍청하다고나 할까? 나도 내 성향을 모르는 진지한 아이 ! ○○○ 인사드립니다.

여기 아주 예쁘고 착하고 잘 생긴 선남선녀들이 다 모였군요. 아닌가요? 저는 문제아 친구도 나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소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맘에 드는 친구, 우리와 친한 친구, 그냥 보통아이 또는 문제아, 속된말로 우리와 원수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계에서 우리 나라만이 존재하고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우리는 몇명의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들 중에 10명을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니까? 발들어 주실래요? 여러분들 중 10명을 다 사귄다면 여러분의 사교성은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성 학생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차이로 보통학생과 문제아로 나뉘어지게 된걸까요? 또한 우리가 그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성출판사에서 출판된 새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143장 맨오른쪽에서 다섯째 줄의 가장 시커먼색 문제아란? 지능, 성격, 행동이 보통아이들과 달라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아동들을 말합니다. 특히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자라온 성장과정에서의 상처들로 인해, 친구들과의 대화나 깊은 교제를 꺼리고 자기만의 고립된 세계에 갇혀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안으로만 어떤 아픔과 충격들을 쌓아가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문제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더 문제아를 인식하기 위해서 문제아의 유형을 살펴봅시다.

문제아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문제아, 선생님에게 낙인 찍힌 문제아, 사회에서의 문제아 등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학생들사이에서의 문제아입니다. 이 전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루의 2/3라는 시간을 학교생활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아 유형은 심한 언어를 사용하고 나쁜행동을 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우사이에서 성적인 말투나 욕설 등으로 친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문제아 또 별명이나 그 친구의 약점을 가지고 나쁜행동을 하는 문제아 입니다. 한마디로 내적으로 많이 괴롭히는 아이돌일 것입니다.

또다른 유형은 친구들 사이에는 계급과 같은 위계질서가 없어

야만 하는데 싸움 못하는 친구를 자기 밑으로 두어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 친구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문제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래! 동무한테 심부름이래 시킬테니 날래 날래 갔다오라고! 알았디” 그러나 흔히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습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학생들일 겁니다.

그리고 문제아 유형중 선생님께 낙인찍힌 문제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의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는 성격이 난폭하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기본 생활습관이 잘못되어있다든지 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자주 어기는 학생들을 문제아로 여깁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고 자기의 수업시간에 열중한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냥 중간 정도로 가지 않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나 학생으로서의, 아니 청소년으로서의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로 수업분위기를 망쳐놓는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기본 생활습관에서의 문제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학생은 매일 지각하고, 싸움질하고, 결석 등을 하여 선생님의 규범으로서 마땅하지 못한 아이 등이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은 대체로 불성실하고 자본적인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문제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문제아 시각은 좋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잘못인지? 사회의 잘못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문제아도 처음부터서 문제아가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같은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선향도 없고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입니다.

저의 주변에는 문제아가 아니었는데 사고를 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가 있습니다.

며칠전 나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

이 편지를 쓴 아이는 1학년때 저와 같은 반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아주 내성적이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J.S.는 정말 상대하기 싫어, 꼭 여자같잖아” 그의 내성적인 성격은 다른 친구에게 호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동안 잘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참지 못하고 일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겐 아주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내성적인 성격은 비록 많은 친구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지만 그 친구의 온화한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비록 문제아의 성향에 끼게 되었지만 그 친구의 착한 마음씨는 나의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문제아는 그 개인이 타고난 성향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회, 아니 가정이나 학교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아의 치료는 문제아를 배출한 그 배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회가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급우나 친구를 진실한 사랑과 우정으로 대해줌으로써 그 사랑의 향기로 그들의 상한 부분을 치료해주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아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전 문제아 친구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급우일수도 또는 남일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기만 하고 괴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상한 마음이 돌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아 일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들을 이해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줍시다. 그들에게 사랑의 힘과 우정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문제아 아니 우리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문제아 친구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 자료 : 순천 YMCA, 1995.

활 동 19 배불러 못 먹어도

활동개요

우리의 축제에서는 놀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 축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축제 기간 동안 먹을 것의 준비를 위해 이웃간에 필요한 음식들을 모우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고 즐겁게 나눠 마시는 것 속에서 풍류를 맛볼 수 있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축제의 음식을 준비하며 즐겁게 먹고 마시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우리 조상들의 정신의 세계를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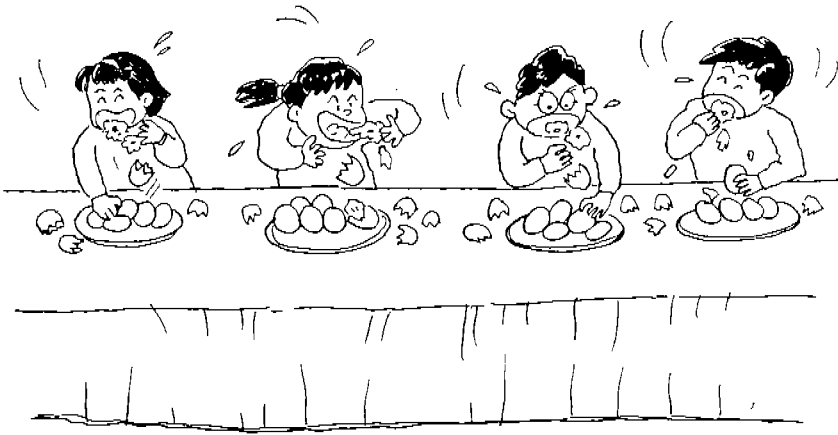
청소년들로 하여금 간단한 우리의 음식을 준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음식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시합을 하도록 함으로써 먹는 것과 관련한 기쁨을 체험하도록 한다.

준비사항

각종 음식 재료, 호각, 각종 악기

활동방법

- ① 전통 요리사를 초대하거나 직접 간단한 전통 요리를 배운 지도자를 준비시킨다.
- ②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음식을 준비한다.
- ③ 음식물 재료나 요리된 음식 중에서 임의로 한가지를 골라 먹는 시합을 준비한다.
- ④ 먼저 시합 종류와 시합 요령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계란 먹기 시합은 대학 축제 때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1분 동안에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며, 시간이 종료되었을때 음식물을 먹던 입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 ⑤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출전할 청소년들을 선발한다.



- ⑥ 선발된 청소년들은 각각 준비된 음식 앞에 서서 시합 시작 신호를 기다린다.
- ⑦ 주의 사람들은 흥겹게 응원을 시작한다.
- ⑧ 호각 또는 기타 시작 신호와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 ⑨ 종료 신호가 나면 즉시 먹던 것을 중지하고 판정관의 지시에 따른다.
- ⑩ 판정관은 시합 기간 동안 먹은 음식의 수를 세고 반칙 여부를 가리어 승패를 결정한다.
- ⑪ 우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하며 주위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즐겁게 먹고 마신다.

유의사항

- ① 음식 먹기 시합의 종류는 되도록 간단한 것으로 한다.
- ② 시합 시간을 너무 길게 하여 경기에 임한 사람이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시합 판정은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 ④ 포상 내용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스스로 준비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1. 정월 초하루(설날) 음식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 하니 설날 아침에는 식구들이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새로 지은 옷(설빔)을 입고, 세찬과 세주를 마련하여 조상님께 세배 드리는 의식 곧 차례를 지낸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께 새해 첫인사를 올리니 곧 세배다.

집안 세배가 끝나면 차례를 지낸 음식으로 차임을 먹고, 일가 친척, 이웃 어른을 찾아 새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는 쪽에선 손님께 대접하는 음식상을 차린다. 어른에겐 술과 음식을, 아이들에겐 과자나 돈을 주고 덕담을 건넨다.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은 저축 정신을 기르는 뜻으로, 곧 계란을 사서 닭으로 돌려 다시 송아지에서 소로 돌려 논밭을 장만하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새해 인사를 올리고 안방마님은 노비를 친절으로 보내 길어로써 문안을 드린다. 벼슬하고 있는

집에서는 붉은색을 칠한 상을 대청에 마련해 두면 세배 온 사리들이 이름 쓴 종이를 상에 놓고 돌아간다. 또 설날 새벽 가족들은 이 명주라 하여 귀가 밝아지는 약주를 한 잔씩 마신다.

정월의 설날음식으로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떡국, 떡만두국, 떡볶음, 떡찜, 떡산적, 떡잡채 등이 있다. 고기 음식으로 갈비찜, 사태찜, 생선찜, 편육, 족편, 지짐으로 녹두빈대떡, 각색전, 채소음식으로 삼색나물, 겨자채, 잡채 등이 있다.

우리나라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신선로와 김치 곧 떡과 함께 먹는 장김치가 있고 후식류로는 약과, 다식, 정과, 엿강정, 강정, 산자, 식혜, 절편, 꽃절편, 인절미, 수정과 등이 있다.

2. 대보름(음력 1월 15일) 음식

신라시대부터 지켜온 명절로 달이 가득 찬 날이라 하여 재앙과 액을 막는 제일이다.

정월 14일 저녁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다. 또한 달을 보면 운이 좋다고 하여 달맞이를 하고 서울에서는 답교놀이를 하였다. 어린아이가 봄을 타고 살이 여위는 것을 막기 위해 백 집의 밥을 얻어다가 절구 위에 얹어서 먹는 풍습도 있었다. 또 새벽에 일어나 사람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 하며 더위 팔기를 하여 병이 없는 여름이 되길 기원했다. 대보름의 음식으로 오곡밥, 약식, 부럼, 귀밝이술, 묵은 나물, 복쌈, 원소병, 팔죽 등이 있다.

3. 입춘 음식

입춘날에는 춘련 또는 입춘첩이라 하여 좋은 글 곧 ‘입춘대길’ 등을 써서 대문에 붙이고 일년이 길하기를 축원하였다.

이 날은 입춘 오신반인 시고 매운 생채요리를 만들어 새봄의 미각을 돋게 했다. 또한 장을 담그는 시기이기도 하다.

음식으로는 탕평채, 승점초 산적, 죽순 나물, 죽순찜, 달래나물, 달래장, 냉이 나물, 산갓 김치 등이다.

4. 중화절(2월 초하루)

음력 이월 초하룻날을 중화절이라 한다. 정조 병진년(1766)에 중국 당나라의 중화절을 본떠서 농삿일을 시작하는 날로 삼았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오랫동안 농삿일이 없어 머슴들은 별로 뚜렷한 일이 없었지만 이 달부터는 농사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노비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고 쉬게 했다. 농가에서는 이삭을 내려다가 떡가루를 만들어 송편을 빚어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 먹였고 하루를 쉬게 한다. 그래서 노비일 또는 머슴날이라 한다.

어촌에서는 흰떡을 쳐서 굵게 비벼 용떡을 만들어 용신에게 바치고 바다를 평온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노비일의 송편을 노비 송편이라 한다. 쌀가루로 흰떡을 만들어 큰 것은 손바닥만하게, 작게는 계란만하게 만든다.

소는 팔, 까만 콩, 푸른 콩, 꿀 또는 대추살, 삶은 미나리 등을 넣어 시루에 찌는데 이때 솔잎을 사이에 두고 찌 내어 참기름을 바른다.

이 날은 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으면 노래기가 없어진다고도 하였고 또한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도 한다.

5. 삼월삼짇날

3월 3일은 설날(1월 1일), 단오(5월 5일), 칠석(7월 7일), 중구(9월 9일)와 더불어 중절의 하나이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삼월에 모든 이가 조를 짜서 산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하루를 즐기는 것을 화전놀이 또는 꽃달임이라 하고, 부녀자들이 머리를 감으면 머리결이 윤기가 나고 소담해진다고 하였다. 삼짇날 먼저 보는 나비의 빛깔로 나비점을 치는데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를 보면 길조라 하고 흰나비를 먼저보면 양친상을 당한다 하였다. 삼짇날의 절식은 두견화주, 두견화전, 꽃국수(화면), 수면 등이 있다.

6. 한식 음식

한식을 청명절이라 하고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성묘는

일년에 네번으로 정초, 한식, 단오, 중추에 한다. 제물은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이다.

중국에서는 한식을 냉절이라 하는데 그 유래로 인하여 우리도 이날은 미리 장만해 놓은 찬 음식을 먹고 닭싸움, 그네 등의 유희를 즐기며 불을 쓰지 않는다.

중국의 춘추시대때 개자추라는 진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문공을 모시고 있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하여 망명 19년까지도 모셨지만 그에게 오해를 받아 산속에 숨어 살았는데, 나중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산에서 나오기를 권했지만 나오지 않아 불을 질렀는데 늙은 홀어미나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서 타 죽었다. 그래서 이날은 버드나무를 대문에 꽂기도 하고, 개자추의 죽음을 아파하여 불을 쓰지 않고 찬밥을 먹으니 냉정리라고 한 것이다. 대개 양력 4월 5, 6일경이다. 이날은 조상의 무덤에 폐를 다시 입히고 민간에서는 이날을 전후하여 쑥탕, 쑥떡을 해 먹었다.

7. 곡우절 음식

24절기의 여섯번째로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시작하고 실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할 때이다. 이날을 전후하여 인천 앞바다에서는 잡는 조기가 살찌고 맛이 좋다고 하여 장안에서 조기국 먹기를 기다린 날이기도 하다.

또한 이 때의 봄 조개는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제일 맛날 때이다. 대합탕, 대합구이와 도미면, 도미찜도 도미가 살이 쫄 때라 제맛이 난다. ‘마’를 그대로 썰어 꿀에 찍어 먹거나, 찌 먹기도 한다. 4월의 시식으로 증편, 개피떡, 화전, 어채, 어만두, 복어, 도미 등이 있다.

8. 사월 초파일(4월 8일) 음식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욕불일이라고도 한다. 이 풍속은 고려 초에 정월 보름, 이월 보름에 국가와 백성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한 행사에서 유래되었다. 이날은 절을 찾아 재를 올리고 연등을 단다. 불심으로 부처님께 복을 빌고 탑돌이도 하고 연등 행렬도 하였다.

이 날의 저녁을 등석이라 하여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고 각 가정에서 오색의 종이를 바른 등에 불을 붙여 밖에 걸어 놓아 거리의 조망이 아주 화려하였다. 이 날 절에서는 참배객에게 절밥을 대접한다. 소찬으로 고기없이 산채를 주로 하여 독특한 맛이 나는 별식을 낸다. 느티떡, 복은콩, 미나리 나물 등이 있다.

9. 단오(음력 5월 5일) 음식

천중절 또는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홍색, 녹색의 새옷을 입는다. 단오날 오시에 익모초, 쑥을 뜯어 말려 두었다가 일년 내내 약용으로 쓴다. 이 날이 연중 가장 양기가 많은 날이라 했다.

또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단오 차례라고 하여 각 집에서는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제물을 가묘에 피고 제사를 지냈다. 고을에서는 중앙에 있는 관리에게 부채를 바쳐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조정에서는 헌납받은 부채를 하사했다. 궁중의 내의 원에서는 제호탕을 만들어 왕께 바치면 신하에게 하사하여 여름 더위를 막도록 해 주었다. 여자들은 그네뛰기, 남자들은 씨름을 즐기고, 혼인한 여자는 친정 나들이를 하였다.

단오 때의 음식으로는 수리치떡, 앵두 화채, 준치국, 붕어찜, 제호탕, 앵두편, 도행병, 준치만두가 있다. 또 항간에서는 장을 담그기도 한다.

10. 유두(6월 보름) 음식

‘유두’는 ‘동류두목육’이란 말에서 온 것이며 풍속은 신라시대에서 온 것이다. 고려시대에 씌여진 「동도유숙집」에 “6월 보름을 유두일이라 하고 맑은 개울에서 먹을 감고, 굵은 것을 털어버리고 선비들은 유두음식을 차려 물가에서 풍월을 읊는 유두연을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유두날 전후로 나온 햇과일인 참외, 오이, 수박과 떡을 빳고 국수를 말아 사당에 제를 올리는데 유두천신이라 한다. 삼복이 끼어 있는 무더운 한 여름이니 부인들은 약수를 찾아 머리를 감고 물맞이

를 하며 낫술에 밥을 지어 제를 드린다. 유두의 절식으로 유두면, 수단, 편수, 밀쌈 등이 있다.

11. 칠월칠석(음력 7월 7일)

7월 7일을 칠석이라 한다. 칠석날에는 은하수에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놓고, 동쪽의 견우성과 서쪽의 직녀성이 만나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느라 대체로 날이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마당에 바느질 차비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문인들은 술잔을 교환하면서 두 별을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또한 별이 좋을 때 옷과 책을 말린다. 집집마다 우물을 퍼 내어 청결히 한 다음 시루떡을 해서 우물에 두고 칠성제를 지낸다. 음식으로 밀국수, 밀전병을 하고 잉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오이 김치나 복숭아, 수박으로 과일 화채를 만들어 먹는다.

12. 삼복 음식

우리나라의 4계절 가운데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는 30일 동안은 장마 뒤여서 습기가 많은 때이고, 섭씨 30도에서 35도로 더위가 심할 때이다. 산의 물가에 가서 복놀이를 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더위를 잊고, 오행의 원리로 열이 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양하였다. 복 음식으로 삼계탕, 개장국(보신탕), 닭죽, 육개장, 임자수탕, 민어국, 팔죽 등이 있다. 삼계탕과 보신탕은 조선후기의 기록인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열량세시기」에 전한다. 또한 적소두죽이라 하여 붉은 팔으로 죽을 쑀어 동지와 같은 의미로 잡귀를 빨간색으로 쫓아 열병을 예방하였다.

13. 백중절(7월 15일) 음식

7월 15일은 백중절, 백중일, 또는 망혼일이라고 한다. 이 날에는 망혼을 위하여 절에서 제를 올려 극락으로 인도한다. 백중절엔 밀가루에 박잎이나 깻잎을 넣어 지지고 햇감자와 밀가루로 전을 부쳐 사당에 제향한다. 7월 보름을 전후하여 마을 형편에 따라 택일한다. 이 날을 초연 또는 머슴날이라 하여 호미씻기를 한다. 이때 쫄

엔 힘든 농사일도 거의 끝나 호미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이날은 농사가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상을 내리고 술로 노고를 위로한다. 7월의 시식으로 증편, 밀전병, 육개장, 게, 진유화, 오이김치, 깻갯탕, 김치국, 냉면, 어채, 열무김치, 생실과 등이 있다. ‘농가월령가’의 7월령에는 각종 밀반찬을 마련하는 데 적당한 시기라 하여 애호박, 도라지, 더덕, 깻잎 부각, 풋고추 부각, 감자 녹말 등을 마련하여 저장하여 두었다고 쓴다. 가을철에 접어들어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게장, 게찜, 두부, 햇실과, 떡 등을 만들고 멸치젓, 어리굴젓도 담근다.

14. 한가위(8월 15일) 음식

8월 보름날을 한가위, 추석 또는 가배일이라 하여 정월 명절과 더불어 제일 큰 명절이다. 이 달에는 추분이 들어 있고, 농사일도 거의 끝나고 햅쌀과 햅과일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쾌청하여 예부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라는 말이 있다.

이 날엔 햅쌀로 밥도 짓고 송편도 하고, 술도 빚어 신도주라 하여 조상께 수확의 기쁨을 추석 차례로써 알린다. 새옷 차림으로 차례를 지내고 음복하고, 음식을 이숙과 나누어 먹은 다음 집안 식구가 산으로 성묘간다.

추석의 차례음식으로는 정월 차례 때의 떡국 대신 햅쌀밥과 편 대신 송편을 놓는다. 주, 과, 포, 탕, 적, 해, 나물, 침채(김치), 청장을 정해진 굵이 있는 제기에 담고, 위치는 가풍이나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차린다. 8월의 시식으로는 오려 송편, 햅과일, 토란탕, 송이버섯, 요리, 배숙, 화양적, 느리미적 등이 있다.

15. 중양절(9월 9일)과 늦가을의 절식

삼짇날에 왔던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는 날이다. 중양 또는 중구라 한다.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뜻이고, 중양이라 홀수인 숫자가 2개 겹쳤다는 뜻이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 때부터 시작된 풍습으로 술친구를 찾아가거나 술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 선비들은

단풍을 주제로 시를 짓고, 부녀자들은 내방가사를 읊고 농부들은 농악을 줄리며 즐겼다.

16. 상달 음식

10월에는 입동, 소설의 절기가 있는 계절로 겨울 달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햇볕이 따듯하여 소춘이라고 한다.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민가에서는 가장 높은 달이라 했다. 이 달의 무오일인 말날에는 상마일로 쳐서 말을 위해 마굿간 앞에 시루 팔덕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길일을 택해서 신곡을 가지고 떡을 찙고 술을 빚어서 터줏대감굿을 하는데 이것을 성주제라 한다. 5대조 이상의 조상께 시제를 올리고 단군에게 신곡을 드리는 제사인 농공제를 지낸다.

10월 시식으로는 시루떡, 무 시루떡, 만두국, 열구자탕, 변씨 만두, 연포탕, 애탕, 애단자, 밀단고, 강정 등이 있으며 김장을 담근다. 10월 상달의 고사떡은 추수감사의 뜻이 담긴 절식이고 대추, 감, 밤도 저장하여 두면 겨울을 알리는 첫서리가 내리더라도 농사하는 백성들은 겨울 채비를 마치면서 한 숨을 돌리게 된다.

17. 동지 음식

동지는 음력 11월 중에 천세력에 정해져 있고, 양력으로 12월 22, 23일 경으로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를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동지팔죽을 쑤어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다.

동지 팔죽엔 반드시 참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죽 그릇에 먹는 사람의 나이 수만큼씩 넣어서 먹는 풍습이 있다. 옛날에는 관상감에서 다음 해의 달력을 만들어 모든 관원에게 나누어 주고 제주도에서는 동지 무렵 굴과 감자를 진상하고 평안도, 함경도에서는 메밀 국수로 냉면을 하여 먹고, 청어를 천신했다 한다. 궁에서는 동지 절식으로 우유와 우유 죽(타락죽)을 내공신에게 내려 약으로 썼다.

18. 선달(12월) 음식

선달을 납월이라 하고 동지로부터 세번째 미일을 납월이라 하고,

이 때의 제사를 납향이라 한다. 납일 밤에는 새잡기를 하여 고소하게 구워 먹고, 먹은 아이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였다. 또 이 날 내린 눈은 약이 된다고 하여 독 안에 담았다가 눈에 바르면 눈병이 낫고, 책이나 옷에 바르면 좀이 쏘지 않는다고 했다.

충청도에서는 엿을 곤다. 선달 그믐밤은 새잡기를 하고 주부들은 차례에 쓸 제물과 세찬, 정월에 두고두고 먹을 후식류도 미리미리 마련하고, 남정네들은 집 안팎 대청소를 한다. 남에게 빛이 있는 사람은 이 날 빚을 모두 청산하고 빚 받을 사람은 이 날이 지나면 정월 보름까지는 빚 독촉도 못하게 된다.

묵은 세배를 웃어른께 드려, 일 년을 무사히 나뉘었음을 고마워하며 인사드렸다. 이 때는 김, 복어, 고기 등을 갖고 간다. 평시에 나라에서는 백성에게 세 가지를 금했는데 주금, 송금, 우금이 있다. 그러나 세모나 정초에는 세찬이라 차례에 쓸 육류 때문에 잠시 우금을 해제한다. 조선의 고기요리는 쇠고기를 으뜸으로 여겨 쇠고기 요리가 많다. 설농탕(설렁탕), 족편, 돼지고기찜 등이 있다.

* 자료 : 한복선, 1990.

활동 20 난장의 세계로

활동개요

대부분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은 입시공부를 위해 보내지고 있어 신체적으로 고달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억눌린 청소년들의 욕구는 적당한 여건만 마련된다면 즉시로 표출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표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가면이나 탈을 통하여 자신을 가리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게 하는 것은 일정 시간동안 일상세계를 떠나 자신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행동을 보다 자유스럽게 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축제라는 장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평소의 걱정이나 근심을 잊고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면과 의상을 하고 즐거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과 노래, 공연, 의견 발표, 대화 등을 함으로써 평소에 가졌던 불만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준비사항

가면, 탈, 의상, 폭죽, 간식(음료수, 과자, 과일), 카세트, 각종 악기, 무대

활동방법

- ① 노래, 춤,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마련한다.
- ② 진행과정을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③ 모든 청소년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 가면과 의상을 착용한 채 참석한다.
- ④ 폭죽과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음으로써 시작을 알린다.
- ⑤ 각 무대별로 진행자를 준비하여 청소년들의 흥을 돋군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 ⑥ 일정 시간동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며 필요에 따라 춤과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공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 ⑦ 중간 중간에 준비된 과자, 과일, 음료수 등의 간식을 개별적으로 취식하도록 한다.
- ⑧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면을 벗고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크고 작은 원을 만들어 돌면서 화합의 노래를 부른다.

유의사항

- ① 프로그램의 과정에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② 공연 또는 무대의 진행자는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초대하면 좋다.
- ③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여 주어진 시간내에 최대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

참고사항

〈베네치아 카니발 사례〉

베니스는 12월 26일부터 사순절의 첫날까지 계속되는 가장 역사가 깊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몇 가지의 특별한 행사가 벌어진다. 거기에는 민속 오락, 황

소 사양, 곡예사의 묘기, 폭죽 따위가 포함되어 있다.

광장과 거리의 작은 골목은 가장 무도회로 넘치게 된다. 이 축제 동안에는 평소의 계급적 질서로 돌아가기 직전 잠시 동안 사회 생활에 진정한 변동이 일어나곤 했다. 곧 평민들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귀족들과 더불어 매우 특별한 날의 행복과 흥분을 나눌 수가 있었다.

한편 축제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베니스에서 하층민에게 낙원의 경험을 허락함으로써 사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16세기에 베니스에서의 축제는 파괴와 죽음, 재생과 부활의 묘사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일종의 심리적인 해방을 제공하기도 했다.

베니스 축제의 가장 오래된 의식은 사순절 전 목요일에 행해졌다. 이 날에는 일종의 전쟁을 위한 공물인 황소 한 마리와 12마리의 돼지가 아퀼레이아 총대주교에 의해 준비되었고 잔인한 의식이 끝난 뒤 대중 앞에서 행해졌다. 이 의식은 고관들 앞에서 행해졌다. 12세기에 있었던 베네치아 공국과 아퀼레이아 총대주교 관할국의 대결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유혈 낭자하고 잔인한 의식은 칙명에 의해 1525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한마리 황소의 목을 자르는 단순한 행사로 대체되었다.

베니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아퀼레이아에게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공식적 경축과 함께 많은 행사와 말을 이용한 스포츠·공중 곡예·민속 전시회가 숙련된 광대와 ‘콤파니 델라 칼자’라고 불리는 단체에 의해 벌어지게 된다. 이 단체의 이름은 그 회원들이 입었던 다채로운 의상에서 딴 것이다. 이들은 여러개의 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공연하는 활동을 하며, 각‘콤파니아’는 귀족 혈통의 회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극이나 쇼를 무대에 올리곤 했다.

베니스 축제는 두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행사에 평민이 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과 공화국의 귀족 정부가 직접 참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베니스의 ‘라 세레

니씨마'가 즐길 수 있었던 조화로운 삶의 명백한 예가 되는 것이다. 베니스 축제의 역사는 삶의 가장 궁극적 측면 중 하나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즐기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베니스의 축제는 더 이상 단순히 지역적 행사가 아니라 매년 전세계로부터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곳은 여전히 보세 구역이다. 여기에는 규칙과 제한이 없다. 이 축제는 평화롭게 규칙을 어기는 것이 허락되는 순수한 휴식이다. 이 행사는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위장한 몸매 익명성을 허락하고 영혼을 해방시킨다.

산 마르코 광장은 축제의 중심이자 고동치는 심장부로서 동맥과 정맥을 베니스의 가장 외진 지역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광장은 개인 집들과 귀족들의 건물과 이어지는 운하는 가로지르고 있고 음악과 촛불에 의해 이루어진 마술적 분위기를 모든 곳에 퍼뜨린다.

축제 중의 방문객은 저 유명한 'Calle'인 좁은 골목을 따라서 과거의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가수, 행상인, 기다리는 여인, 광대 등이 있는데 그들은 프란체스코 파르디(1712-1793)와 안토니오 카날레토(1697-1768)의 그림 속에서 새 세계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온 이들처럼 보인다. 베니스의 축제는 지속적인 위대한 기적을 허용한다.

곧 그것은 그 참여자들에게 독특한 느낌을 제공한다. 그 느낌은 자유와 행복의 느낌이고, 과격과 무질서의 느낌이고 궁극적으로는 삶 자체의 느낌이다.

* 동아출판사 사진자료팀, 1995.

청소년 전통 축제의 평가



활동수첩을 들고
비디오에 비친 내모습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강렬한 동기가 없는 곳에는 축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축제 자체에 말하자면 엑스타시의 계기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엑스타시적인 것으로서 축제는 흘러 사라지는 생활, 전투와 노동으로 지새는 생활로부터 탈출한다. 그렇다고 결코 연결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탈출함으로써 축제는 일종의 독특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축제에는 항상 무엇인가 동기가 있다. 그러한 동기가 되는 사건을 축하하는 곳에, 즉, 그런 종류의 사건이 생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통찰할 수 있게 하는 데 축제의 의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도 가장 기쁜 것을 기쁘게 말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그것은 지금의 이 슬픔 속에서 내게 자신을 말해준다.

Manche versuchten umsonst, das Freudigste freudig zu sagen,
Hier spricht endlich es mir, hier in der Trauer sich aus.

— 축제의 미학적 해명(김문환) —

활동 21 활동 수첩을 들고

활동개요

청소년 축제는 해마다 또는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행사이다. 이러한 축제가 청소년들의 참여와 흥미를 자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축제의 평가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통념이 있는데, 축제가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또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에 의한 축제 평가활동을 소개하기로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이 청소년축제에 참여하여 각 단위 활동에 대하여 흥미도 및 참여 정도를 직접 평가를 해 봄으로써 축제에 대한 흥미와 참여 태도를 진지하게 한다.

준비사항

활동수첩(활동평가표), 필기도구

활동방법

- ①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활동수첩을 나누어 준다.
활동수첩에는 행사 일정 및 활동 내용, 참가자 명단(사진) 및 연락처, 메모란 등이 있고 맨마지막에 단위활동 평가표 등이 들어있어야 한다.
- ② 지도자는 축제의 각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활동평가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여 준다.
- ③ 청소년들은 각 활동이 끝나면 활동수첩 마지막에 있는 활동평가표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다.
- ④ 모든 활동이 끝나면 각 단위 활동마다 작성한 활동평가표를 절단하여 담당지도자에게 제출한다.
- ⑤ 담당 지도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축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① 활동평가표는 절단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 ② 활동평가표의 작성을 너무 늦게 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활동종류	평가종류	평 가 수 준			의 견
		상	중	하	
길 놀 이	준 비 도				
	난 이 도				
	흥 미 도				
	참 여 도				
감상활동	준 비 도				
	난 이 도				
	흥 미 도				
	참 여 도				
민속놀이	준 비 도				
	난 이 도				
	흥 미 도				
	참 여 도				
토론활동	준 비 도				
	난 이 도				
	흥 미 도				
	참 여 도				
창작활동	준 비 도				
	난 이 도				
	흥 미 도				
	참 여 도				

활동 22

비디오에 비친 내 모습

활동개요

축제의 평가는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 과정 자체도 즐겁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설문조사를 한 다든가 토론을 한 다든가 하는 활동만을 할 것이 아니라 비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소개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디오 상영은 흥미있게 하여야 하지만 너무 흥미 위주로 하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요한 활동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면을 비디오로 담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평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활동에서는 비디오를 활용한 축제 평가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활동목표

청소년들의 청소년축제 활동 참여 과정을 비디오로 담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면서 청소년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준비사항

소형 비디오

활동방법

- ① 소형 비디오를 준비하여 사용법을 익힌다.
- ② 비디오로 촬영할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다. 흥미를 위주로 하되 활동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장면을 담도록 한다.
- ③ 각 단위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는다.
- ④ 비디오 촬영이 모두 끝나면 비디오 내용을 적당하게 편집한다.
- ⑤ 편집한 비디오를 청소년들에게 상영한다.
- ⑥ 비디오를 본 후 청소년들의 소감 및 의견을 듣는다.
- ⑦ 담당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소감 및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 축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① 비디오 내용은 50분 내외로 제작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 ② 비디오 편집은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명이 함께 의논하여 하도록 한다.
- ③ 의견발표 및 토론 시간도 30분 내외로 간단히 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비디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비디오 제작에 있어 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문적인 제작인들이 모여서 만든다. 그러나 홈비디오는 촬영자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며, 카메라맨, 녹음기사, 조명 기사 등이 되어 비디오 제작 전 과정에 걸쳐서 혼자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촬영에 중점을 두어 기획이나 조명, 편집 등에 앞서 촬영부터 배우게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작하는 촬영에 익숙해지기는 쉬우나 다른 작업 영역에 대해서는 동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카메라 워크는 훌륭한데도 만들어진 작품이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

비디오 제작에서는 기획, 구성, 대본, 준비, 촬영, 편집, 녹음

등 여러 공정을 거쳐야만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편의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기획

- 비디오 소프트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를 확실히 한다.
- 내용에 대해 조사, 검토한다.

2) 구성

-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어울리는 스토리를 전달한다.

3) 대본

-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어떠한 영상을 촬영할 것인가를 써넣는다.
- 나레이션, 음악, 효과음 등을 써넣는다.
- 카메라 워크 등 세부적인 표현을 결정한다.

4) 준비

- 스케줄을 결정한다.
- 출연자, 스텝, 소품 등을 결정한다.
- 비디오 기재를 정리하고 준비한다.

5) 촬영

-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과 음성을 수록한다

6) 편집

- 촬영한 테이프를 대본의 흐름에 따라 순서를 맞춘다.
- 필요에 따라서 음악, 나레이션 등을 첨가한다.

7) 완성

－ 편집이 완성되면 원본 테이프를 완성, 시사 후 복제한다.

이상의 과정은 아마추어의 경우 좀 더 생략하여 제작에 임할 수 있다.

* 자료 : 황인선, 1994.

참고 문헌

- 김매자(1994), 한국의 춤, 서울:대원사.
- 김신일 외(1992), 청소년 어울마당 발전방안, 서울:체육청소년부.
- 동아출판사 사진자료팀(1995), 세계의 대축제, 서울:동아출판사.
- 우리 의례 연구소(1995), 새민속 혼례, 서울:우리 의례 연구소.
- 박철원(1993), 도예입문, 이천:연예사.
- 배도식(1993), 한국 민속의 현장, 서울:집문당.
- 봉천놀이마당(1994), 민속교육자료집, 서울:우리교육.
- 사회교육연구회(편)(1988) 사회교육방법론, 서울:형설출판사.
- 상기호(1994), 실용과 장식을 겸한 오색한지 공예, 서울:한림출판사.
- 서낭당(1993), 마을축제, 서울:민학.
- 전남 청소년종합상담실(1995), “나에게도 친구가 있는데”, 제2회 청소년토론의
광장, 순천:YMCA.
- 신준호(1991), 한국민속대사전, 서울:민족문화사.
- 심우성(1990), 한국의 민속놀이, 서울:대광문화사.
- 이상일(1988), 놀이 문화와 축제,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영숙 외(1992), 명절쇠기활동,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 정병호(1988), 민속기행, 서울:눈빛.
- 정병호(1993), 한국의 민속춤, 서울:삼성출판사.
- 조홍운 외(1994),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서울:한국문화정책
개발원.
- 천안YMCA(1995), 우리들의 문화만들기와 학교축제, 천안:YMCA.
- 한국관광공사(1995), '95 한국의 축제와 행사, 서울:문화체육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7), 한국의 축제,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복선(1990), 명절 음식, 서울:대원사.
- 한승희·이혜연(1993a), 민속놀이교실활동,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3b), 신바람나는 민속놀이,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홍일식 외(1982), 한국민속대관, 서울: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황인선(1994), 비디오 어떻게 찍을 것인가?, 서울:미진사.